

44

第44回 韓日經濟人會議

報告書

THE 44th KOREA-JAPAN BUSINESS CONFERENCE

2012.5.16 ~ 17
OSAKA, JAPAN

主 催 | (社)韓日經濟協會・(社)日韓經濟協會

後 援 | 知識經濟部・(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



한국측 단장단의 일본 주요기관 예방 모습



주일 한국대사 주최 만찬회

회의전경



개회인사하는 양국 단장

회의 진행하는 양국 단장



내빈축사 신각수 대사, 오카다 심의관

기조연설 한덕수 회장, 아소 타로 전총리

특별강연 후쿠가와 신지



산업무역회의의보고 안현호 부회장, 아소 유타카 사장

리셉션

건배 제의하는 양국 단장



리셉션 전경

|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



세션1 전경



이경태 좌장



최광 교수



박철 회장



후지야마 집행임원



무코야마 연구원



도마리 상무



단장단 공동성명 심의



일반단원 오찬



세션2 히라노 좌장



양인집 사장



이나바 리더



이우광 연구위원



신장철 교수



자유토론



자유토론



공동성명(안)낭독



폐회



공동기자회견



단장주최 만찬회



- 목 차 -

I. 단장단 예방활동	1
II. 공동성명	3
III. 일정	5
IV. 의제	8
V. 양측 대표단 명단	9
1. 한국측 대표단 명단	9
2. 일본측 대표단 명단	17
VI. 의사록	31
1. 개회식	31
(1) 단장인사	32
사사키 미키오 단장	32
조석래 단장	34
(2) 내빈인사	36
오카다 히데이치(岡田 秀一) 경제산업심의관	36
신각수 주일본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37

2. 기조강연	37
아소 타로 前 일본총리	39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 前 국무총리	43
3. 특별강연	49
후쿠가와 신지 일한파트너십포럼 좌장 · 前 통상산업사무차관	49
4. 보고 · 제언	54
(1) 신산업무역회의 보고 · 제언	54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54
아소 유타카 아소라파즈시멘트(주) 사장	57
(2) 일반경과보고(협회활동)	59
5. 제1세션 [테마 : 세계 경제의 불안정 심화와 한일 협력]	61
(1) 좌장인사	62
(2) 한국측 발표	
『세계경제의 불투명성 심화와 한일협력』	
최 광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前 보건복지부 장관	63
『세계 금융의 불안정과 동아시아 역내 금융안정을 위한 한일 협력』	
박 철 Leading투자증권(주) 회장 · 前 한국은행 부총재	67

(3) 일본측 발표

『글로벌리즘(Globalism)과 리스크 매트릭스(Risk matrix)』
후지야마 토모히코 三菱商事(株) 집행임원 71

『글로벌화 속에서 강화되는 한일경제관계』
무코야마 히데히코 (株)日本綜合研究所 수석주임연구원 75

(4) 자유토론 77

6. 제2세션 [테마 : 한일 경제의 합리적 협력방향] 82

(1) 좌장인사 83

(2) 일본측 발표

『일본시장에서의 진로의 사례』
양인집 眞露(株) 사장 83

『한일 협동작업(協業)의 자원대책 -암바토비·프로젝트-』
이나마 마코토 住友商事(株) 資源第一本部 암바토비 프로젝트 리더 85

(3) 한국측 발표

『한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하는 생산네트워크의 새로운 구축』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자문위원 · 前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89

『제3국 공동진출과 미래지향적인 한일협력 방안 -자원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신장철 숭실대학교 일어일본학과 교수 92

(4) 자유토론 94

VII. 폐 회 식	100
1. 공동성명 낭독 및 채택	100
2. 단장 폐회인사	101
조석래 한국측 단장	101
사사키 미키오 일본측 단장	101
VIII. 양국단장 공동기자회견	105
 <부록 1> 보도자료 · 신문기사	109
<부록 2> 프레젠테이션 자료	167

I. 단장단 예방활동

1. 예방실적

가. 예방시간 및 대상 : 5월 15일(화)

예방시간	예 방 처	성 명	비고
14:15~14:45	외무 부대신	야마구치 쓰요시(山口 壯)	외무성
15:00~15:20	내각관방장관	후지무라 오사무(藤村 修)	수상관저
15:45~16:15	경제산업 부대신	야나기사와 미츠요시(柳澤 光美)	경산성

※ 노다 총리의 오키나와 방문으로 내각관방장관 예방 : 5월15일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27년간 미군정 통치를 받아온 오키나와현이 일본에 반환된 지 40년이 되는 날

나. 예방인사 : 조석래 단장 등 한국측 단장단 9명

* 성명 가나다순

NO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1	團 長	趙 錫 來 CHO Suck Rai	(社)韓日經濟協會 會長 (株)曉星 會長
2	顧 問	韓 惠 洙 HAN Dock Soo	(社)韓日經濟協會 顧問 韓國貿易協會 會長
3	顧 問	李 潤 雨 LEE Yoon Woo	(社)韓日經濟協會 顧問 三星電子(株) 常任顧問
4	副 團 長	姜 皓 文 KANG Ho Moon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三星電子(株) 副會長
5	副 團 長	朴 三 求 PARK Sam Koo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錦湖 ASIANA GROUP 會長
6	副 團 長	張 世 宙 CHANG Sae Joo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東國製鋼(株) 會長
7	副 團 長	河 英 鳳 HA Young Bong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株)LG商事 代表理事 社長
8	副 團 長	韓 東 禹 HAN Dong Woo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新韓金融持株會社 會長
9	副 團 長	李 鐘 允 RHEE Chong Yun	(社)韓日經濟協會 常勤副會長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專務理事

※ 주일한국대사관 관계자 배석

- 내각관방장관 : 서형원(徐炯源) 경제공사, 강명수(姜明秀) 상무관
- 외무 부대신 : 서형원(徐炯源) 경제공사, 강명수(姜明秀) 상무관
- 경산 부대신 : 강명수(姜明秀) 상무관

※ 일한경제협회 배석 및 안내자

- 佐々木 幹夫(SASAKI Mikio) (社)日韓經濟協會 會長/三菱商事株式會社 取締役相談役
- 是永 和夫(KORENAGA Kazuo) (社)日韓經濟協會 専務理事
- 杉山 茂夫(SUGIYAMA Shigeo) (社)日韓經濟協會 常務理事・總務部長
- 森賀 弘(MORIGA Hiromu) (社)日韓經濟協會 事業企劃部長

※ 사무국 및 통역

- 사무국 : (사)한일경제협회 조덕묘(趙德卯) 사무국장, 김 탁(金 卓) 부장
- 통 역 : 최은주(崔銀珠) 통역사

다. 한국측 대표단의 일본 정부기관 예방 시, 주요 의견교환 내용

(1)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성과

(상호 무역투자협정 서명, 年內 한일중 FTA 협상을 개시)

- o 높은 수준의 한일중 3국간 FTA를 체결하여 유럽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 간 높은 수준의 FTA/EPA 체결을 선행시키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

(2) 높은 수준의 한일 FTA/EPA의 체결을 촉구

- o 방문을 받은 일본의 3개 관청 모두 **한일중 삼국간 FTA의 年內교섭 개시에 대해 평가**하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비롯하여 **일본의 FTA/EPA 추진계획**을 설명
 - 한일 FTA/EPA 교섭 재개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경제연계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임을 설명
- o 우리 측 대표단은 **한일이 중심축이 되어 높은 수준의 경제 통합을 하자고 10년 동안 주장해 오고 있는데, 일본이 농수산물 개방과 비관세장벽 철폐에 협력하여 한일 FTA가 빨리 체결되기를 촉구함**

(3)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할 최초의 기후변화 특화기금인 UN산하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유치에 대해 일본의 협력을 요망

- o 오는 11월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에서 최종 결정 되는 **UN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위해 이사국인 **일본의 도움**을 요망

(4) 아시아 선진국으로서의 가교역할, 청소년 교류사업의 계속지원, 하나의 경제권 구축의 구체화 방안(서플라이 체인의 새로운 구축·R&D 네트워크 구축·제3국 공동진출 확대·인재교류 활성화), 양국 간 관광 등 교류 확대 등에 대한 협력 촉구

II. 공동성명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12년 5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일본국 오사카시(大阪市)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조석래(趙錫來) 단장 등 144명,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단장 등 167명이 참가하였다. 오사카에서의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며, 본 경제인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간사이 지구(關西地區)와의 경제·문화·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발전되기를 기대한다.

[대지진 후, 1년을 지나면서]

일본에 커다란 피해를 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지 1년 남짓 지났다. 현지에서는 열심히 복구·부흥을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인들은 일본이 하루빨리 부흥하기를 기원하며, 경제문제를 포함한 일본과의 교류와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특히 동북지방의 피해 극복을 위해 한일이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제인들은 지금까지 1년 넘게 계속된 한국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원과 깊은 우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세계에서의 한일 양국의 위상과 한일 협력]

작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즉, 양국경제의 번영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성장축(成長軸)으로써 충분히 기능해 가기 위해서도, 역내 통합경제권의 구축이 필요 불가결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 후 미국 및 유럽의 매우 불안정한 금융정세를 필두로 더욱 더 혼미해지고 있는 중동 정세,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는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북한의 움직임 등 불확실한 상황이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음에 양국 경제인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때 일수록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으로 한층 더 제휴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일 FTA/EPA의 체결을 촉구]

양국 경제인은 「하나의 경제권」형성을 강력히 지지하여 한일 FTA/EPA를 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양국 정부에 대해 조속한 실현을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5월 13일과 14일 양일 간에 걸쳐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한일중 투자협정이 서명된 것을 평가하며, 금후는 다음 단계로써 하루라도 빨리 한일 FTA/EPA가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향한 구체적 시책]

양국 경제인은 동일본 대지진과 태국을 뒤덮은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양국, 나아가서 아시아 전체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있어 커다란 장애가 된 것을 교훈으로, 한일의 제휴에 의한 서플라이 체인의 재구축 등의 대응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건본전시회·상담회 등 양국 산업기술협력재단의 사업을 통해 일본

기업에 의한 한국산 부품·소재조달의 가일층 확대와 이에 따른 한국기업의 상업적 기회(商業的 機會) 확대를 추진하고, 한국의 여러 공업단지를 일본기업 경영자에 소개하는 방한미션 등의 사업을 통해 대한투자 활성화를 꾀하고 나아가서 한국으로의 기업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양국이 계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는 양국에서 간호·요양보호(介護), 예방의료 등의 의료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정보교환도 재단의 지역교류 등의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양국 경제인은 한일 기업이 제휴한 R&D 네트워크의 구축이 양국에 있어서 공통의 장기안정적인 신규시장의 확보로 연결되며, 또한 소요되는 연구·개발비를 해당기업이 적절히 부담해 나가는 것이 코스트의 절감으로 연결되어 기업 경쟁력의 향상에 공헌해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한일의 기업들이 향후 사람·상품, 즉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왕래를 촉진해 나가는 것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한일 기업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제3국 공동진출 확대]

양국 경제인은 세계 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양국의 제휴에 의한 제3국 글로벌 전개를 강력히 추진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양국 제휴에 의한 금속·에너지 등의 중요자원의 확보, 양국의 높은 기술력을 배경으로 한 인프라 수출의 추진 등을 통해 양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경제인이 본 글로벌 전개의 중요성을 실감·인식하여 그것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형성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하며, 제3국의 현장에 시찰 미션을 파견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전개를 뒷받침하는 의미에서 양국 정부에 대해 계속하여 규제 완화, 제도금융 등의 폭넓은 지원을 요청해 나가기로 하였다.

[인재, 문화교류 확대]

제19회 고교생교류캠프는 한일 양 경제협회에 의한 예산확보 등의 노력의 결과, 금년 7월에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양국 경제인은 고교생·대학생·대학원생 등 차세대를 짚어질 청소년들의 교류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양국 정부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양국 경제협회가 협력하여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경제인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일교류 촉진을 위해서는 매년 양국에서 개최되는 한일축제한마당 등과 같은 풀뿌리 차원에서의 교류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활동이 관광객의 증가로도 이어진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차기 회의 개최]

현재 여수에서 개최 중인 여수세계박람회를 비롯하여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 금후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다음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13년,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2년 5월 17일
한국측 대표단 단장 조 석 래
일본측 대표단 단장 佐々木 幹夫

Ⅲ. 일 정

일 자	시 간	내 용
5/15(화)	08:40~10:45 09:00~11:05 11:40~12:40 12:50~13:50 14:00~18:00 19:00~20:30	<한일경제인회의 한국측 단장단 출국> 김포공항 → 하네다공항 (OZ1025/NH6968) 김포공항 → 하네다공항 (KE2707/JL5234) 하네다공항 → Okura Hotel (BUS) 오찬(Okura Hotel 본관 5F 山里) 일본 정부부처 주요인사 예방 주일한국대사 주최 만찬간담회
5/16(수)	10:30~13:06 13:20~13:40	<한일경제인회의 한국측 단장단 오사카로 이동> 동경역 → 신오사카역 (노조미 25호) 신오사카역 → Rihga Royal Hotel (버스)
	08:30~10:10 09:15~10:55 11:40~13:30 13:30	<한일경제인회의 한국측 일반단원 출국> 김포공항 → 간사이공항 (OZ1125/NH6958) 김포공항 → 간사이공항 (KE2725/JL5246) 간사이공항 → Rihga Royal Hotel (BUS) 호텔 체크인
	14:30~15:00 15:00~15:15 15:15~15:40 15:40~16:00 16:00~16:40 (20분) (20분) 16:40~16:55 16:55~17:15	□ 회의주제 : 하나의 경제권 구축을 향한 한일협력 회의장 등록 : 大阪府立국제회의장 10층 로비 <개회식> : 10층 1001~1003호 개회 단장인사 □ 일본측: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 ■ 한국측: 조석래(趙錫來) 한일경제협회 회장 내빈인사 □ 일본측: 오카다 히데이치(岡田 秀一) 경제산업심의관 ■ 한국측: 신각수(申珏秀) 주일본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기조연설> (20분X2명=40분) □ 일본측 : 아소 타로(麻生 太郎) 前 일본총리 ■ 한국측 : 한덕수(韓惠洙) 한국무역협회 회장·前 국무총리 「세계 번영에 기여하는 한일 경제협력의 전개」 <특별강연> : 후쿠가와 신지(福川 伸次) 일한파트너십포럼 좌장·前통상산업사무차관 「한일 경제협력의 新展開 -이노베이션으로 新展開 모델구축을-」 Coffee Break (20분) : 10층 중앙로비

일 자	시 간	내 용
5/16(수)	17:20~17:45	<p><한일신산업무역회의 보고·제안> (25분)</p> <p>■ ‘하나의 경제권’ 구축의 구체화를 위한 한국측 보고·제안 안현호(安玟鎬)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p> <p>□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일본측 보고 아소 유타카(麻生 泰) 아소라파즈시멘트(주) 사장</p> <p>◇ 질의응답</p>
	17:45~17:50	협회 활동의 일반경과보고 : 고레나가 카즈오(是永 和夫) 일한경제협회 전무
	18:30~20:00	<p>환영리셉션 : 리가로얄호텔 3층 Royal Hall</p> <p>- 한일·일한경제협회, 지방자치단체 공동 개최</p>
5/17(목)	07:20~08:35	한일 양국 재단 연락협의회 : 리가로얄호텔 28층 Emerald Room
		<전체 공통> : 大阪府立국제회의장 10층 1001~1003호
	09:00~11:20	<p><제 1 세션> (2시간20분, 15분X4명발표, 토론·질의응답 70분)</p> <p>□ 테마 : 세계 경제의 불안정 심화와 한일협력</p> <p>■좌장(Coordinator) : 이경태(李景台) 고려대학교 석좌교수·前 국제무역 연구원장</p> <p>(15분) ■한국측① : 최 광(崔 洸)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前 보건복지부 장관 「세계경제의 불투명성 심화와 한일협력」</p> <p>(15분) ■한국측② : 박 철(朴 哲) Leading투자증권(주) 회장·前 한국은행 부총재 「세계 금융의 불안정과 동아시아 역내 금융안정을 위한 한일협력」</p> <p>(15분) □일본측① : 후지야마 토모히코(藤山 知彦) 三菱商事(株) 집행임원 「글로벌리즘(Globalism)과 리스크 매트릭스(Risk matrix)」</p> <p>(15분) □일본측② : 무코야마 히데히코 (向山 英彦) (株)日本綜合研究所 수석주임연구원 「글로벌화 속에서 강화되는 한일경제관계」</p> <p>(70분) ◇질의응답</p>
	11:20~11:30	<p><강연> 「대지진 이후 1년을 지나면서」</p> <p>도마리 미츠오(泊 三夫) 하쿠호도(博報堂) 상무집행임원</p>
	11:45~13:20	<p><오찬회></p> <p>- 고문·단장단·전문위원회 체어맨(공동성명 심의) : 12층 Grande Toque</p> <p>- 단원 : 10층 1004~1009호</p>

일 자	시 간	내 용
5/17(목)	13:30~15:40	<p><제 2 세션> (2시간10분, 15분X4명발표, 토론·질의응답 60분)</p> <p>□ 테마 : 한일 경제의 합리적 협력방향</p> <p>■좌장(Coordinator) : 히라노 카즈미(平野克己) JETRO아시아경제연구소 지역연구센터장</p>
	(15분)	<p>□일본측① : 양인집(楊仁集) 眞露(株) 사장</p> <p>「일본시장에서의 진로의 사례」</p>
	(15분)	<p>□일본측② : 이나바 마코토(稲葉 誠) 住友商事(株) 資源第一本部</p> <p>암바토비 프로젝트 리더</p> <p>「한일 협동작업(協業)의 자원대책 ~암바토비·프로젝트~」</p>
	(15분)	<p>■한국측① : 이우광(李佑光)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자문위원·前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p> <p>「한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하는 생산네트워크의 새로운 구축」</p>
	(15분)	<p>■한국측② : 신장철(申章澈) 숭실대학교 교수</p> <p>「제3국 공동진출과 미래지향적인 한일협력 방안 -자원개발 사업을 중심으로-」</p>
	(60분)	◇질의응답
	15:40~16:00	Coffee Break (20분)
	16:00~16:20	<폐회식> (20분)
	(10분)	공동성명 채택(양국 낭독)
	(10분)	양국 단장 폐회인사
	16:30~17:00	공동기자회견(양국단장) : 11층 1102호
	(30분)	
	18:00~20:00	<교류 만찬회>
5/18(금)		* 한일경제인회의 한국측 단원 귀국
	08:30~09:50	Hotel - 간사이공항 (버스)
	11:10~13:00	간사이공항 → 김포공항 (OZ1115/NH6957)
	11:55~13:40	간사이공항 → 김포공항 (KE2726/JL5247)
* 사무국 : 오사카국제회의장 10층 10-②호		

IV. 의 제

1. 第 1 세션 [테마 : 世界 經濟의 不安定 深化와 韓日協力]

司 會 : 李景台 高麗大學校 碩座教授 · 前 韓國貿易協會 國際貿易研究院長

韓國側 : 『世界經濟의 不透明性 深化와 韓日協力』

崔 洸 韓國外國語大學校 經濟學部 教授 · 前 保健福祉部 長官

『世界金融의 不安定과 東아시아 域內 金融安定을 爲한 韓日協力』

朴 哲 Leading投資證券(株) 會長·前 韓國銀行 副總裁

日本側 : 『글로벌리즘(Globalism)과 리스크 매트릭스(Risk matrix)』

후지야마 토모히코(藤山 知彦) 三菱商事(株) 執行役員

『글로벌化 속에서 強化되는 韓日經濟關係』

무코야마 히데히코(向山 英彦) (株)日本綜合研究所 首席主任研究員

2. 第 2 세션 [테마 : 韓日 經濟의 合理的 協力方向]

司 會 : 히라노 카즈미(平野 克己) JETRO아시아經濟研究所 地域研究센터長

日本側 : 『日本市場에서의 眞露의 事例』

楊仁集 眞露(株) 社長

『韓日 協同作業(協業)의 資源對策 -암바토비·프로젝트-』

이나바 마코토(稻葉 誠) 住友商事(株) 資源第一本部 암바토비 프로젝트 리더

韓國側 : 『韓日을 하나의 經濟圈으로 하는 生産네트워크의 새로운 構築』

李佑光 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諮問委員 · 前 三星經濟研究所 首席研究員

『第3國 共同進出과 未來指向의인 韓日協力 方案 -資源開發 事業을 中心으로-』

申章澈 崇實大學校 教授

V. 양측 대표단 명단

1. 한국측 대표단 명단

(區分別, 姓名 가나다 順)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團 長	趙 錫 來 CHO Suck Rai	(社)韓日經濟協會 會長 (財)韓日產業·技術協力財團 理事長 (株)曉星 會長·全國經濟人聯合會 名譽會長
顧 問 (基調演說)	韓 惠 洙 HAN Duck Soo	(社)韓日經濟協會 顧問 (財)韓日產業·技術協力財團 理事 (社)韓國貿易協會 會長
顧 問	李 潤 雨 LEE Yoon Woo	(社)韓日經濟協會 顧問 三星電子(株) 常任顧問
副 團 長	姜 皓 文 KANG Ho Moon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三星電子(株) 副會長
副 團 長	朴 三 求 PARK Sam Koo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錦湖ASIANA GROUP 會長
副 團 長	張 世 宙 CHANG Sae Joo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東國製鋼(株) 代表理事 會長
副 團 長	河 英 鳳 HA Young Bong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財)韓日產業·技術協力財團 理事 (株)LG商事 代表理事 社長
副 團 長	韓 東 禹 HAN Dong Woo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新韓金融持株會社 會長
副 團 長	李 鐘 允 RHEE Chong Yun	(社)韓日經濟協會 常勤副會長 (財)韓日產業·技術協力財團 專務理事
來 賓	申 珪 秀 SHIN Kak Soo	駐日本國大韓民國特命全權大使
來 賓	李 賢 主 LEE Hyun Ju	駐大阪大韓民國總領事館 總領事
來 賓	姜 信 浩 KANG Shin Ho	東亞製藥(株) 會長 全國經濟人聯合會 名譽會長
特別參加 (專門委員長)	安 玟 鎬 AHN Hyun Ho	韓日新產業貿易會議 Chairman (社)韓國貿易協會 常勤副會長
特別參加 (Session I 座長)	李 景 台 LEE Kyung Tae	高麗大學校 碩座教授 前 韓國貿易協會 國際貿易研究院 院長
特別參加 (Session I 發表)	崔 洸 CHOI Kwang	韓國外國語大學校 教授 前 保健福祉部 長官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特別參加 (Session I 發表)	朴 哲 PARK Cheul	LEADING投資證券(株) 代表理事 會長 前 韓國銀行 副總裁
特別參加 (Session II 發表)	李 佑 光 LEE Woo Kwang	(財)韓日產業技術協力財團 諮問委員 前 三星經濟研究所 首席研究員
特別參加 (Session II 發表)	申 章 澈 SHIN Jang Churl	崇實大學校 教授
團 員	李 洙 喆 LEE Soo Chul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株)Chemcross International 代表理事 會長
團 員	李 一 揆 LEE Il Kyu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Best Western Korea 會長
團 員	黃 昊 均 HWANG Ho Kyoon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株)Nature Republic 副會長
團 員	朴 南 淑 PARK Nam Sook	(社)韓日經濟協會 監事 Kyosei國際特許情報(株) 代表
團 員	康 正 亨 KANG Jung Hyung	兵庫韓國商工會議所 專務理事
團 員	高 英 寬 KOH Young Kwan	大阪韓國商工會議所 會長
團 員	具 文 浩 KOO Moon Ho	在日韓國民團 前 副團長
團 員	權 珍 祐 KWON Jin Woo	現代綜合金屬JAPAN 代表理事
團 員	奇 秉 泰 KEE Byung Tae	(株)HIKARI情報 會長
團 員	金 江 熙 KIM Kang Hee	(株)東和Entec 代表理事 會長
團 員	金 德 吉 KIM Duk Kil	金田事務所(株) 代表理事
團 員	金 都 亨 KIM Do Hyung	東西大學校 教授
團 員	金 石 英 KIM Suk Young	Youcanbuytheworld(株) 代表理事
團 員	金 潤 希 KIM Yoon Hee	法務法人 世宗 辯護士
團 員	金 正 KIM Jung	Hanwha Group 常勤顧問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團	員	金 KIM	正 Jeong 洙 Soo	大韓航空 大阪旅客支店 支店長
團	員	金 KIM	載 Jae 祐 Woo	SBJ銀行 副社長
團	員	金 KIM	重 Jung 珏 Gak	ENVIROTECH CO.,LTD. 代表理事
團	員	金 KIM	天 Chun 柱 Joo	Canon Korea Business Solutions, Inc 代表理事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理事
團	員	金 KIM	學 Hak 權 Kwon	Jaeyoung Solutec (株) 代表理事 會長
團	員	金 KIM	漢 Han 翊 Ik	三田商事(株) 代表理事
團	員	高 TAKASUGI	杉 暢 也 Nobuya	金・張法律事務所 常任顧問
團	員	貫 NUKUI	井 英 一 Eiichi	金田事務所(株) 理事
團	員	盧 RO	成 Sung 泰 Tae	大韓生命保險(株) 顧問
團	員	朴 PARK	良 Yang 基 Ki	(株)高麗貿易JAPAN 代表理事
團	員	朴 PARK	永 Young 卓 Tahk	韓國機械産業振興會 副會長
團	員	朴 PARK	禹 Woo 建 Keon	韓國生產性本部 情報文化院 院長
團	員	朴 PARK	在 Jae 弘 Hong	Hanwha Corporation / Trade 代表理事 社長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理事
團	員	朴 PARK	忠 Choong 弘 Hong	一般社團法人 在日韓國商工會議所 會長
團	員	朴 PARK	憲 Hern 根 Gun	PKVALVE CO., LTD. 代表理事 社長
團	員	孫 SON	伸 Shin 明 Myung	(株)豐山 副社長
團	員	申 SHIN	德 Duck 鉉 Hyun	(社)韓國優良製品振興協會 會長
團	員	申 SHIN	鉉 Hyun 根 Keun	(株)INB 專務理事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團	員	慎	三 範 SHIM Sam Beom	一般社團法人 在日韓國商工會議所 副會長
團	員	梁	榮 文 YANG Young Moon	梅ヶ枝中央法律事務所 Partner 弁護士
團	員	梁	龍 雄 YANG Yong Woong	(社)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會長
團	員	梁	恩 榮 YANG Eun Young	KOTRA OSAKA 副館長
團	員	吳	聖 銖 OH Sung Soo	KORSTEC. R Co., LTD 會長
團	員	吳	榮 煥 OH Young Whan	韓國航空宇宙産業振興協會 副會長
團	員	龍	乙 植 YONG Earl Shik	南德物産(株) 會長
團	員	柳	誠 YU Seong	POSCO JAPAN(株) 社長
團	員	柳	壯 烈 YOU Jang Ryul	GS Global JAPAN(株) 支店長
團	員	尹	鳳 秀 YOON Bong Soo	(社)韓國中堅企業聯合會 會長 (株)南盛 會長
團	員	尹	在 烈 YOON Jae Yul	(株)THREE R 會長
團	員	李	景 載 LEE Gyung Jae	SAMJIN LND Co., Ltd 代表理事 會長
團	員	李	德 根 LEE Deok Keun	韓國生產技術研究院 企業成長動力政策團 長 / 部品・素材支援Center長
團	員	李	德 浩 LEE Duk Ho	京都韓國商工會議所 名譽會長
團	員	李	相 範 LEE Sang Beom	CANA PACKING & LOGISTICS CO., LTD 代表理事
團	員	李	承 昊 LEE Seung Ho	三星電子(株) 大阪支店 常務
團	員	李	丞 鎬 LEE Seung Ho	法務法人 世宗 辯護士
團	員	李	榮 澤 LEE Young Taek	World Entertainment 代表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團 員	李 禎 徹 Lee Jung Chul	Vextone Asia Research Co., Ltd. 代表理事 社長
團 員	李 熙 萬 LEE Hi Man	三鼎産業 代表理事
團 員	林 範 植 LIM Bum Sik	SHINSEI CORPORATION 副社長
團 員	張 鳳 翼 CHANG Bong Ik	韓國LOSTWAX(株) Team長
團 員	張 哲 男 CHANG Chul Nam	大阪韓國商工會議所 事務局長
團 員	全 炳 錫 CHUN Byung Suk	KOTRA OSAKA 館長
團 員	全 賢 哲 JOHN Hyun Chul	(社)韓國中堅企業聯合會 常勤副會長
團 員	丁 永 喆 CHUNG Young Chul	中央鋼管建材(株) 會長
團 員	鄭 在 容 JUNG Jae Young	現代重工業(株) 大阪支店長
團 員	鄭 哲 承 JUNG Chul Seung	LG Japan(株) 代表理事
團 員	鄭 台 一 CHUNG Tae Il	中小企業中央會 副會長 韓國OSG(株) 會長
團 員	趙 恩 來 CHO Eun Rae	ORIENT Co., Ltd. 代表理事
團 員	崔 鐘 太 CHOI Jong Tae	一般社團法人 在日韓國商工會議所 名譽會長
團 員	許 南 整 HUH Nam Jung	S4U 會長
團 員	玄 東 實 HYUN Dong Shil	錦湖ASIANA GROUP 副社長 ASIANA航空(株) 日本地域本部
團 員	洪 性 一 Hong Sung il	全國經濟人聯合會 東北亞TEAM長
團 員	黃 才 榮 HWANG Jae Young	老人研究情報Center 代表理事
Observer	姜 明 秀 KANG Myung Soo	駐日本國大韓民國大使館 商務官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Observer	裴 晟 竣 BAE Seong Jun	駐日本國大韓民國大使館 書記官
Observer	李 明 烈 LEE Myung Yul	駐大阪大韓民國總領事館 副總領事
Observer	南宮 煥 NAMGUNG Hwan	駐大阪大韓民國總領事館 領事
Observer	南 胤 銑 NAM Yoon Sun	韓國經濟新聞 記者
隨 行 員	姜 旼 廷 KANG Min Jeong	KOTRA OSAKA 課長
隨 行 員	康 憲 一 KANG Kenichi	(株)高麗貿易JAPAN 部長
隨 行 員	金 光 秀 KIM Kwang Su	(株)曉星 秘書室 遂行秘書
隨 行 員	金 山 明 広 KANEYAMA Akihiro	金田事務所(株) 大阪事務所長
隨 行 員	金 俸 萬 KIM Bong Man	全國經濟人聯合會 東京事務所長
隨 行 員	金 是 延 KIM Si Youn	Kyosei國際特許情報(株) 社員
隨 行 員	金 廷 洙 KIM Jung Soo	(社)韓國貿易協會 國際協力室 室長
隨 行 員	金 泰 忍 KIM Tae In	(株)高麗貿易JAPAN 社員
隨 行 員	明 珍 鎬 MYOUNG Jin Ho	(社)韓國貿易協會 通商研究室 課長
隨 行 員	閔 庚 台 MIN Kyung Tae	三星電子(株) 次長
隨 行 員	閔 章 誠 MIN Jang Seong	東亞製藥(株) 部長
隨 行 員	朴 相 守 PARK Sang Soo	Hanwha Corporation / Trade 企劃部TEAM長
隨 行 員	朴 又 燮 PARK Woo Sup	三星電子(株) 課長
隨 行 員	朴 鎭 永 PARK Jin Young	(株)高麗貿易JAPAN 課長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隨 行 員	宋 孝 圭 SONG Hyo Kyu	(社)韓國貿易協會 國際協力室 代理
隨 行 員	安 世 暎 AN Sea Young	韓國生產技術研究院 日本輸出企業綜合技術支援Center 研究員
隨 行 員	芮 尙 煜 YE Sang Wook	SBJ銀行 大阪副支店長
隨 行 員	鈴 池 俊 雄 SUZUIKE Toshio	Youcanbuytheworld(株) 理事
隨 行 員	尹 榮 南 YOON Young Nam	錦湖ASIANA GROUP 課長
隨 行 員	李 相 眞 LEE Sang Jin	KOTRA OSAKA 課長
隨 行 員	李 相 輝 LEE Sang Hwy	(社)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部長
隨 行 員	李 成 俊 LEE Sung Jun	ORIENT Co., Ltd. 課長
隨 行 員	李 昇 峻 LEE Seung Jun	(社)韓國貿易協會 課長
隨 行 員	李 榮 鎬 LEE Young Ho	Hanwha Corporation / Trade 經營支援室 室長
隨 行 員	田 弼 煥 JEON Pil Hwan	SBJ銀行 大阪支店長
隨 行 員	鄭 在 純 CHUNG Jae Soon	(株)曉星 東京支社 社員
隨 行 員	趙 炳 柱 CHO Byung Ju	新韓金融持株會社 次長
隨 行 員	崔 想 CHOI Sang	一般社團法人 在日韓國商工會議所 職員
隨 行 員	曹 永 學 CHO Young Hak	Hanwha Corporation / Trade 企劃部TEAM長
隨 行 員	崔 炯 權 CHOI Hyung Kwon	KOTRA OSAKA 課長
隨 行 員	河 昇 佑 HA Seung Woo	中小企業中央會 國際通商室 課長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隨 行 員	許 HUH	文 Mun	九 Gu	(社)韓國貿易協會 研究委員
韓日財團連絡協議會 事務局	宋 SONG	成 Sung	基 Gi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日本知識情報Center長
韓日財團連絡協議會 事務局	金 KIM	彰 Chang	彬 Bin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經營支援室 室長
韓日財團連絡協議會 事務局	張 CHANG	震 Jin	旭 Wook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日本Business協力Center長
韓日財團連絡協議會 事務局	金 KIM	德 Deok	淵 Yeon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經營戰略室 室長
第44回韓日經濟人會議 事務局	趙 CHO	德 Duck	卯 Myo	(社)韓日經濟協會 事務局長
第44回韓日經濟人會議 事務局	金 KIM	正 Jung	鎬 Ho	(社)韓日經濟協會 部長
第44回韓日經濟人會議 事務局	金 KIM		瑋 Tak	(社)韓日經濟協會 部長
第44回韓日經濟人會議 事務局	洪 HONG	昭 So	榮 Young	(社)韓日經濟協會 代理
第44回韓日經濟人會議 事務局	俞 YOO	智 Ji	潤 Yoon	(社)韓日經濟協會 社員

團 員	132名
夫 人	12名
合 計	144名

2. 일본측 대표단 명단

(敬称略・順不同)

団 長	佐々木 幹 夫 SASAKI MIKIO	(社)日韓経済協会 会長 三菱商事(株) 相談役(前会長)
副団長	鮫 島 章 男 SAMESHIMA FUMIO	(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太平洋セメント(株) 相談役
副団長	石 原 進 ISHIHARA SUSUMU	(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九州旅客鉄道(株) 代表取締役会長
副団長	麻 生 泰 ASO YUTAKA	(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麻生ラファージュセメント(株) 代表取締役社長
副団長	上 田 勝 弘 UEDA KATSUHIRO	(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大垣精工(株) 代表取締役社長
副団長	河 内 哲 KAWACHI SATOSHI	(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住友化学(株) 最高顧問
副団長	岡 素 之 OKA MOTOYUKI	(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住友商事(株) 代表取締役会長
副団長	吉 川 尤 雄 YOSHIKAWA MOTOO	(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東レ(株) 顧問
副団長	荻 田 伍 OGITA HITOSHI	(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アサヒグループホールディングス(株) 代表取締役会長
顧 問	渡 辺 博 史 WATANABE HIROSHI	(株)国際協力銀行 代表取締役副総裁
来 賓	岡 田 秀 一 OKADA HIDEICHI	経済産業審議官
来 賓	松 井 一 郎 MATSUI ICHIROU	大阪府知事
特別参加 基調講演	麻 生 太 郎 ASO TARO	衆議院議員 第92代内閣総理大臣
特別参加 特別講演	福 川 伸 次 FUKUKAWA SHINJI	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フォーラム座長 (一財)高度技術社会推進協会 顧問
特別参加 発表者	向 山 英 彦 MUKOYAMA HIDEHIKO	(株)日本総合研究所 調査部 上席主任研究員

特別参加 発表者	楊 仁 集 YANG IN JIP	眞露ジャパン(株) 代表取締役社長
特別参加 コーディネーター	平 野 克 己 HIRANO KATSUMI	(独)日本貿易振興機構アジア経済研究所 地域研究センター長
団 員 発表者	藤 山 知 彦 FUJIYAMA TOMOHIKO	三菱商事(株) 執行役員
団 員 発表者	泊 三 夫 TOMARI MITSUO	(株)博報堂 常務執行役員
団 員 発表者	稲 葉 誠 INABA MAKOTO	住友商事(株) 資源第一本部 アンバトビープロジェクトリーダー
団 員	成 田 茂 NARITA SHIGERU	アイリスオーヤマ(株) 監査室常勤監査役
団 員	水 野 雄 氏 MIZUNO YUJI	旭化成(株) 取締役常務執行役員
団 員	西 原 香 織 NISHIHARA KAORI	アサヒグループホールディングス(株) 秘書室副課長
団 員	観 山 知 見 MIYAMA TOMOMI	韓国味の素(株) 社長
団 員	堀 尾 卓 HORIO TAKASHI	伊藤忠商事(株) 開発・調査部海外室チーフエリアマネージャー
団 員	川 上 弘 恭 KAWAKAMI HIROYASU	韓国伊藤忠(株) 社長
団 員	竹 中 誉 TAKENAKA HOMARE	(株)エル・ビー・エス 代表取締役会長兼社長
団 員	萩 尾 千 里 HAGIO SENRI	(株)大阪国際会議場 取締役社長
団 員	清 水 幸 広 SHIMIZU YUKIHIRO	(株)大阪国際会議場 専務取締役
団 員	大 辻 茂 雄 OTSUJI SHIGEO	(株)大阪国際会議場 取締役営業部長
団 員	高 橋 文 明 TAKAHASHI HUMIAKI	(社) 科学技術国際交流センター 理事

団 員	林 隆 治 HAYASHI TAKAHARU	川崎重工業株式会社 マーケティング本部海外総括部アジア・オセアニア部課長代理
団 員	山 川 薫 YAMAKAWA KAORU	(公社)関西経済連合会 常務理事
団 員	小 林 義 彦 KOBAYASHI YOSHIHIKO	(公社)関西経済連合会 国際部国際部長
団 員	杉 田 龍 飛 SUGITA RYUTO	(公社)関西経済連合会 国際部
団 員	蔵 元 利 浩 KURAMOTO TOSHIHIRO	(社)九州経済連合会 国際部次長
団 員	坂 本 隆 行 SAKAMOTO TAKAYUKI	九州旅客鉄道株式会社 経営企画部企画国際室主査
団 員	中 野 一 龍 NAKANO KAZURYU	近畿産業信用組合 秘書室長
団 員	藤 富 孝 FUJITOMI TAKASHI	山九株式会社 ロジスティクス・ソリューション事業本部 取締役常務執行役員 本部長
団 員	朴 宰 徹 PARK JAECHOL	住友商事株式会社 地域総括部課長代理
団 員	小 林 中 KOBAYASHI TADASHI	韓国住友商事株式会社 社長
団 員	朴 長 雨 PARK JANG-WOO	韓国住友商事株式会社 専務
団 員	山 本 聡 YAMAMOTO SATORU	韓国住友商事株式会社 企画開発室長
団 員	松 井 収 MATSUI OSAMU	全日本空輸株式会社 企画室部長
団 員	鈴 木 秀 洋 SUZUKI HIDEHIRO	韓国双日株式会社 代表理事
団 員	徳 植 桂 治 TOKUUE KEIJI	太平洋セメント株式会社 取締役会長
団 員	清 田 瞭 KIYOTA AKIRA	株式会社大和証券グループ本社 名誉会長

団 員	須々木 智 行 SUSUKI TOMOYUKI	(一財)高円宮記念日韓交流基金 事務局長
団 員	小保方 一 夫 OBOKATA KAZUO	千代田化加工建設(株) 取締役常務執行役員
団 員	松 岡 憲 正 MATSUOKA NORIMASA	千代田化加工建設(株) 営業第1ユニットゼネラルマネージャー
団 員	山 田 雅 之 YAMADA MASAYUKI	月島機械(株) 執行役員海外営業部長
団 員	森 島 進 MORISHIMA SUSUMU	月島機械(株) 審議役
団 員	藤 巻 義 恭 FUJIMAKI YOSHIYASU	(株)東芝 産業政策渉外部 国際渉外室室長
団 員	沼 野 隆 一 NUMANO RYUICHI	東レ(株) ソウル事務所長
団 員	高 梨 建 司 TAKANASHI KENJI	豊田通商(株) 取締役副社長
団 員	坂 口 肇 SAKAGUCHI HAJIME	豊田通商(株) コーポレート本部渉外広報部・部長
団 員	牧 村 行 隆 MAKIMURA YASUTAKA	韓国豊田通商(株) 代表理事社長
団 員	井 水 治 博 IMIZU HARUHIRO	(株)日刊工業新聞社 取締役社長
団 員	山 崎 弘 YAMAZAKI HIROSHI	(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常務理事
団 員	今 井 哲 郎 IMAI TETSURO	(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事業第二部長
団 員	木 村 慎一郎 KIMURA SHINICHIRO	(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事業第一部長
団 員	初瀬川 茂 HATSUSEGAWA SHIGERU	(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日韓中小企業情報交流センター 所長
団 員	杉 原 景 SUGIHARA KEI	(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日韓中小企業情報交流センター ビジネスアドバイザー

団員	加藤 高弘 KATO TAKAHIRO	日本航空(株) 執行役員
団員	溝上 直思 MIZOGAMI NAOSHI	日本航空(株) 企画業務グループ部長代理
団員	高原 暢恭 TAKAHARA NOBUYASU	(株)日本能率協会コンサルティング 取締役
団員	田中 強志 TANAKA TSUYOSHI	(株)日本能率協会コンサルティング マーケティング本部関西オフィス チーフ・プランナー
団員	横溝 博一 YOKOMIZO HIROKAZU	(一社)日本貿易会 国際グループマネージャー
団員	横尾 英博 YOKOO HIDEHIRO	(独)日本貿易振興機構 副理事長
団員	小栗 道明 OGURI MICHIAKI	(独)日本貿易振興機構 企画部事業推進主幹
団員	中山 正幸 NAKAYAMA MASAYUKI	(独)日本貿易振興機構 ソウル事務所副所長
団員	高田 伸朗 TAKADA NOBUAKI	野村アグリプランニング&アドバイザー(株) コンサルティング部長 主席コンサルタント
団員	西野 範彦 NISHINO NORIHIKO	野村証券(株) マネジメントオフィス・韓国代表
団員	成田 純治 NARITA JUNJI	(株)博報堂 代表取締役会長
団員	清原 當博 KIYOHARA MASAHIRO	(株)ホテルオークラ東京 代表取締役社長 総支配人
団員	清水 紘一郎 SHIMIZU KOICHIRO	(株)ホテルオークラ東京 特別顧問
団員	外山 宗保 TOYAMA MUNYASU	(株)ホテルオークラ東京 営業一部セールス一課課長
団員	寺本 誠 TERAMOTO MAKOTO	韓国丸紅(株) 代表理事社長
団員	安原 貴彦 YASUHARA TAKAHIKO	(株)みずほコーポレート銀行ソウル支店 支店長

団 員	井 口 武 雄 INOKUCHI TAKEO	三井住友海上火災保険(株) シニアアドバイザー
団 員	会 田 南 AIDA MINAMI	(株)三井住友銀行 執行役員
団 員	木 下 雅 之 KINOSHITA MASAYUKI	三井物産(株) 代表取締役専務執行役員
団 員	樋 口 達 之 HIGUCHI TATSUYUKI	三井物産(株) 経営企画部海外室・次長
団 員	中 島 透 NAKAJIMA TORU	韓国三井物産(株) 代表理事社長
団 員	矢 野 雅 英 YANO MASAHIDE	三菱商事(株) 取締役副社長執行役員 東アジア統括
団 員	篠 原 徹 也 SHINOHARA TETSUYA	三菱商事(株) 相談役業務秘書
団 員	西 原 真 司 NISHIHARA SHINJI	三菱商事(株) 企画業務部 国内・アジアチームリーダー
団 員	森 原 康 夫 MORIYAMA YASUO	三菱商事(株) 企画業務部 国内・東アジアチーム担当シニアマネージャー
団 員	安 達 健 ADACHI KEN	三菱商事(株) 企画業務部 経済調査チーム課長
団 員	永 井 康 雄 NAGAI YASUO	三菱商事(株) 代表取締役常務執行役員 国内統括兼関西支社長
団 員	小 椋 和 平 OGURA KAZUHIRA	三菱商事(株) 理事 関西支社副支社長
団 員	柳 川 勝 彦 YANAGAWA KATSUHIKO	三菱商事(株) 理事 関西支社副支社長兼繊維原料資材部長
団 員	渥 美 裕 之 ATSUMI HIROYUKI	三菱商事(株)関西支社 副支社長兼業務開発部長
団 員	池 上 元 伸 IKEGAMI MOTONOBU	三菱商事(株)関西支社 エネルギー事業部長代行
団 員	池 上 秀 雄 IKEGAMI HIDEO	三菱商事(株)関西支社 エネルギー事業部電力チームマネージャー

団員	伊 藤 博 ITO HIROSHI	三菱商事㈱関西支社 電力プラント部長代行
団員	塚 原 孝 志 TSUKAHARA TAKASHI	三菱商事㈱関西支社 機械・新産業金融事業部長
団員	林 忠 彦 HAYASHI TADAHIKO	三菱商事㈱関西支社 機械・新産業金融事業部長代行
団員	樽 谷 豊 TARUTANI YUTAKA	三菱商事㈱関西支社 化学品部長
団員	塚 田 芳 邦 TSUKADA YOSHIKUNI	三菱商事㈱関西支社 化学品部長代行
団員	毛 利 信 作 MORI SHINSAKU	三菱商事㈱関西支社 食料部長
団員	織 間 弘 明 ORIMA HIROAKI	三菱商事㈱関西支社 食料部長代行
団員	奥 村 樹 OKUMURA TATSUKI	三菱商事㈱関西支社 食料部農水産チームリーダー
団員	西 川 嘉 一 NISHIKAWA YOSHIKAZU	三菱商事㈱関西支社 繊維原料資材部繊維原料チームリーダー
団員	擲 木 健 一 OTEKI KENICHI	三菱商事㈱関西支社 繊維原料資材部繊維資材チームリーダー
団員	高 橋 雄一郎 TAKAHASHI YUICHIRO	三菱商事㈱関西支社 繊維原料資材部自動車・機能素材チームリーダー
団員	河 田 昌 彦 KAWADA MASAHIKO	三菱商事㈱四国支店 電力・企画開発チームリーダー
団員	小 泉 裕 KOIZUMI HIROSHI	三菱商事㈱ 重電機本部神戸分室長
団員	栗 谷 勉 AWAYA TSUTOMU	韓国三菱商事㈱ 代表理事社長
団員	鶴 見 大 輔 TSURUMI DAISUKE	韓国三菱商事㈱ コーポレート本部次長
団員	尹 离 娜 YUN LEENA	韓国三菱商事㈱ コーポレート本部

団 員	折 田 章 宏 ORITA AKIHIRO	(学)立命館 東京キャンパス課長
団 員	川 崎 亨 KAWASAKI TORU	(株)ロイヤルホテル 代表取締役社長
団 員	高 舛 啓 次 TAKAMASU KEIJI	(株)ロイヤルホテル 専務執行役員
団 員	吉 岡 正 行 YOSHIOKA MASAYUKI	(株)ワールドプランニング 代表取締役
団 員	是 永 和 夫 KORENAGA KAZUO	(社)日韓経済協会 専務理事
団 員	杉 山 茂 夫 SUGIYAMA SHIGEO	(社)日韓経済協会 常務理事・総務部長
特別参加	丸 山 浩 平 MARUYAMA KOHEI	外務省 日韓経済室長
特別参加	宇 山 智 哉 UYAMA TOMOCHIKA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経済公使
特別参加	伊集院 健 夫 IJUIN TAKEO	経済産業省 通商政策局韓国室室長
特別参加	福 永 洋 FUKUNAGA HIROSHI	経済産業省 通商政策局韓国室
特別参加	長 尾 正 彦 NAGAO MASAHIKO	近畿経済産業局長
特別参加	持 木 浩 徳 MOCHIKI HIRONORI	近畿経済産業局通商部長
特別参加	戸 田 美 和 TODA YOSHIKAZU	近畿経済産業局国際化調整企画官
特別参加	山 本 陽 一 YAMAMOTO YOICHI	近畿経済産業局国際課長
特別参加	橋 本 俊 次 HASHIMOTO SHUNJI	近畿経済産業局国際課課長補佐
特別参加	坂 野 聡 SAKANO SATOSHI	近畿経済産業局投資交流促進課長

特別参加	柴 田 澄 雄 SHIBATA SUMIO	公立大学法人国際教養大学 東アジア調査研究センター 特任教授
特別参加	稲 葉 通 宣 INABA MICHINOBU	衆議院議員 松岡博隆事務所 秘書
特別参加	崔 鐘 太 CHOI JONG TAE	(一社)在日韓国商工会議所 名誉会長
特別参加	朴 忠 弘 PARK CHOONG HONG	(一社)在日韓国商工会議所 会長
特別参加	慎 三 範 SHIM SAM BEOM	(一社)在日韓国商工会議所 副会長
特別参加	木 村 慎 作 KIMURA SHINSAKU	大阪府副知事
特別参加	楠 本 政 幸 KUSUMOTO MASAYUKI	大阪府 国際交流監
特別参加	中 村 昌 也 NAKAMURA MASAYA	大阪府 国際交流・観光課長
特別参加	一 坂 浩 史 ICHISAKA HIROFUMI	大阪府 国際交流・観光課 観光振興グループ課長補佐
特別参加	花 田 公 絵 HANADA KIMIE	大阪市 ゆとりとみどり振興局
特別参加	池 田 仁 志 IKEDA HITOSHI	大阪市 経済局
特別参加	大 野 美保子 OHNO MIHOKO	大阪市 政策企画室
特別参加	湯 田 毅 YUDA TAKESHI	岸和田市役所 産業振興部 理事
特別参加	西 村 利 彦 NISHIMURA TOSHIHIKO	岸和田市役所 産業振興部観光課長
特別参加	的 場 佳 子 MATOBA YOSHIKO	伊藤忠商事(株) 関西業務室室長
特別参加	辻 川 雅 芳 TSUJIKAWA MASAYOSHI	(株)大阪国際会議場 営業部次長

特別参加	府中谷 隆 FUCHUYA TAKASHI	(株)大阪国際会議場 営業部営業課長
特別参加	岡 野 俊一郎 OKANO SHUNICHIRO	(株)大阪国際会議場 営業部営業課課長補佐
特別参加	矢 島 健 YAJIMA TAKESHI	(株)大林組 経営企画室大阪企画部企画課副課長
特別参加	水 越 玲 MIZUKOSHI AKIRA	(株)大林組 経営企画室大阪企画部企画課副課長
特別参加	齋 藤 行 巨 SAITO MICHIIRO	(一社)関西経済同友会 常任幹事事務局長
特別参加	野 畑 健 NOBATA KEN	(一社)関西経済同友会 企画調査部課長
特別参加	日 高 直 輝 HIDAKA NAOKI	住友商事(株) 専務執行役員 関西ブロック長
特別参加	若 林 稔 久 WAKABAYASHI TOSHIHISA	住友商事(株) 関西ブロック総括部長
特別参加	前 田 正 宜 MAEDA MASANOBU	住友商事(株) 関西ブロック総括部業務企画チームリーダー
特別参加	市 磯 正 夫 ICHISHI MASAO	双日(株) 関西地区担当顧問
特別参加	小 椋 昭 夫 OGURA AKIO	バンドー化学(株) 代表取締役会長
特別参加	大 井 篤 OI ATSUSHI	三井物産(株) 常務執行役員 関西支社長
特別参加	先 崎 尚 祐 SENNZAKI NAOSUKE	三井物産(株) 関西支社 副支社長
特別参加	大 迫 享 OSAKO TORU	レンゴー(株) 理事 関連事業部門海外関連事業部長
特別参加	須 藤 俊 SUDO SHUN	(株)日刊工業新聞社 東京支社企画営業部
特別参加	慈 道 建 人 JIDO KENTO	(株)日刊工業新聞社 東京支社企画営業部

特別参加	森崎 まき MORISAKI MAKI	(株)日刊工業新聞社 東京支社編集部記者
事務局	保坂 昭寿 HOSAKA AKITOSHI	(社)日韓経済協会 調査・広報部主任調査役
事務局	森賀 弘 MORIGA HIROMU	(社)日韓経済協会 事業企画部長
事務局	伊藤 美千代 ITO MICHIO	(社)日韓経済協会 総務部課長
事務局	金 侑 貞 KIM YUJUNG	(社)日韓経済協会 事業企画部

団員 162名
夫人 5名
合計 167名

VI. 의 사 록



1. 개 회 식

사회 【是永 和夫
(KORENAGA KAZUO)
(사)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이하동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4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될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고레나가 카즈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조석래 단장님을 비롯한 한국측 단장단의 일본정부에 대한 예방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측 예방단 9명은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의 안내로 5월 15일 오후에 후지무라 오사무(藤村 修) 내각관방장관, 야마구치 쓰요시(山口 壯) 외무 부대신, 그리고 야나기사와 미츠요시(柳澤 光美) 경제산업 부대신을 각각 예방하였습니다. 관방장관과 양 부대

신은 “한국 대표단을 대환영하며 일한경제인회의가 4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최된 것에 대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과, 양국 경제인이 늘 민간의 선두에 서서 양국의 우호확대에 공헌하신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이번에 오사카에서 개최될 회의가 결실이 많은 회의가 될 것을 기원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조석래 단장은 “한일 양국은 다른 나라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높은 차원의 FTA(EPA)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표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로부터도 조석래 회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관계부처간의 공조를 긴밀히 해서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산업계에서도 계속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석래 단장은 “아시아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이 세계의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특히 개도국의 온난화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방단의 멤버로부터는, 「청소년 사업의 지속, 양국이 공조한 제3국 공동진출, R&D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에 대한 일본정부의 이해와 지원을 기대한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측으로부터는, 경제부처와 협의를 한 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대응이 있었습니다. 3개 기관을 방문하였습지만, 모두 시간을 초과하는 등, 상당히 화기애애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국 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측 단장이신 일한경제협회 사사키 미키오 회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측 단장이신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입니다. 이어서 한국측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측 기조연설을 해 주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입니다. 정부대표로서 인사말씀을 해 주실 신각수 주일본국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입니다. 다음 전경련 명예회장이신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입니다. 이어서 일본측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측 기조연설을 해 주실 중의원 의원 아소 타로 의원입니다. 정부대표로서 말씀해 주실 오카다 히데이치 경제산업심의관입니다. 그리고 특별강연을 부탁드린 후쿠카와 신지 일한파트너십포럼 좌장입니다. 그러면 식순에 따라 양국 단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 단장인사

佐々木 幹夫

(SASAKI MIKIO)

일본측 대표단 단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님, 신각수 주일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님,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한국측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아소 타로 전 내각총리대신님, 오카다 히데이치 경제산업심의관님, 후쿠가와 신지 일한파트너십포럼 좌장님, 그리고 일본측 참석자 여러분. 일한경제협회 회장과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사키 미키오입니다. 오늘은 다망하신 가운데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개회에 즈음하여 일본측을 대표해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올해로 44회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관서지방은 재일동포 여러분들이 많은 지역이고 역사적으로도 한국과 인연이 깊은 지역입니다. 본 한일경제인회의를 계기로 관서지방과 한국과의 교류가 더욱 더 심화,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3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에서는 하루라도 빠른 복구와 부흥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분들께서는 지진발생 직후에 구조대와 구조건을 파견해 주시고 거국적으로 따뜻하고 폭넓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3월11일자 아사히신문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기고문이 게재되었는데, 「3월

11일 대지진과 한일관계, 깊은 우정과 유대의 재확인』이라는 기고문입니다.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의 벗이 참된 벗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일 양국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따뜻한 이웃이다. 이와 같은 선린우호관계를 토대로 21세기의 성숙한 파트너십을 함께 키워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이명박 대통령의 따뜻한 가슴이 느껴져서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향후 양국관계의 키워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여러 주요국가에서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경제는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신흥국가들의 성장도 둔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정세는 여전히 예측불허의 상태이고, 북한관련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한일 두나라가 미래지향적인 윈윈의 관계를 맺고 연대를 강화하여 강력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한일 양국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양국경제의 번영과 동반자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또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안정축이 되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받아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자리가 바로 이번 한일경제인회의입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하고 기탄없는 논의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번 주제와 관련해 다음 4가지의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FTA(EPA)문제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튼튼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더욱 더 번영하기 위하여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강력하게 서포트하기 위해서라도 FTA체결이 불가결합니다. 따라서 양국 정부에게 다시 한번 조기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며칠 전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상호무역투자협정이 체결되었고, 또 3국간 FTA의 연내협상 개시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기쁜 일이며 앞으로의 진전 상황을 기대감 갖고 주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와 병행해 한국과 중국은 양자간 FTA체결을 향한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FTA/EPA에 대해서도 가급적 조기에 협상이 재개되기를 양국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일본과 한국간의 연대를 통한 글로벌전개에 대해서입니다. 한일 두나라가 서로 공조해서 금속자원 혹은 에너지자원을 제3국에서 공동개발하고 공동확보하는 움직임이 해마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강력히 밀어주기 위해서 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 한국개발은행 등 정부기관들의 제도금융을 통한 서포트를 기대하며, 또 민간금융기관도 앞으로 계속 폭넓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나라의 높은 기술력을 배경으로 한 인프라 수출, ODA나 CS활동과 접목시킨 복합프로젝트를 늘리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프로젝트는 인재양성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프로젝트 현장에 두 나라의 젊은 인력들을 파견하여 자원개발, 혹은 경영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본 양국의 경쟁력 강화, 종합능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양국간 인재교류입니다. 저희들은 한일경제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협력해 차세대를 젊어질 보배라고 할 수 있는 두 나라의 젊은이들, 청소년들의 교류와 육성에도 주력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고교생교류 캠프사업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생, 사회인이 된 이후에도 자율적으로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24일부터 5일간 서울에서 제 19회 한일 고교생교류캠프사업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 양국의 이공계대학원 학생들이 각각 일본과 한국에 약 2개월동안 체재하면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수준 높은 연수를 받는 프로젝트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젊은 이들의 교류와 육성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양국간 관계구축에 기여하리라 확신하며 앞으로도 지속해 가고자 합니다. 두 나라 정부에서도 우리들의 이러한 정신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지원 등의 폭넓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경제의 범위를 넘은 풀뿌리차원의 양국간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9월에서 10월까지 서울시와 동경도에서 한일축제 한마당이 개최됩니다. 저도 작년부터 일본측의 실행위원장을 맡아 미력하나마 돕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일 양국의 유대」라는 것이 키워드였습니다. 올해의 키워드는 대지진을 극복하여 전진하고 새롭게 도약한다는 의미에서 「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은 시민차원의 교류는 대단히 중요하며 저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 갈 생각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 주에 여수세계박람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6월 2일 재팬데이의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2014년에는 인천아시안게임, 2018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국제행사들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웃 나라인 일본 입장에서 대단히 기쁜 일이며 그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사카에서의 이틀동안의 회의가 양국의 파트너십 강화로 이어지는 알차고 유익한 회

의가 되기를 기원하며 저의 개회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 : 사사키 단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한국측 단장이신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석래 한국측 대표단 단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대표적인 상업도시이자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 오사카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도시에서 한일·일한경제인회의를 열어 왔었는데, 오사카에서는 왜 이번에 처음으로 회의를 열게 된 것인지 신기합니다. 오사카는 과거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들어오는 길목이었고, 현재도 한국 동포가 30만명이나 살고 있어, 한국과 인연이 매우 깊은 곳입니다.

이처럼 유서 깊은 오사카에서 한일 양국 기업인들이 만나 경제협력과 우호친선을 위해 토론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대표단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과 일한경제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축사를 해주실 오카다 히데이치 일본경제산업성 경제산업심의관님과 신각수 주일한국대사님, 그리고 이번 회의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아소 타로 전 일본국 총리대신님과 한덕수 전 대한민국 국무총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 경제인 여러분, 올해 초 미국의 경기지표가 호

전되어 세계경제가 나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 불안과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둔화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집행 등으로 재정불안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듯하다가, 지난 6월에 있었던 프랑스 대통령 선거와 그리스의 회선 선거 결과, 집권여당이 패배함으로써 긴축정책과 구조개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또다시 높아지고 글로벌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도 작년 하반기 이후 부진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듯하였으나, 유로지역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제일 큰 시장인 중국 수출마저 줄어들기 시작하여 무역수지 흑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한일 양국 간의 무역은 작년에 사상 최초로 1천억불을 넘어섰고, 양국을 오가는 방문객들도 연 5백만 명을 넘는 등 양국 간의 교류는 한층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한류문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카라 등 한국 가수들의 공연이 연일 매진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호감을 느껴서인지, 한국에서도 일본을 가깝게 여기는 젊은이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일본이 조선왕실 의례를 한국에 반환했는데, 이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인 여러분, 이번 세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그동안 구미시장으로의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성장모델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역내 교역을 늘리고 내수시장을 키워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성장축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시아 국가들도 EU와 같은 경제통합을 함으로써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확보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오래도록 추진되어오던 한일 FTA는 지금 정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과 중국은 지난 5월 2일 베이징에서 양국의 통상장관들이 만나 한중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고, 지난 일요일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만나 연내에 한중일 FTA 협상을 시작하자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국은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에 대해 FTA를 추진하자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국이 맺은 뉴질랜드나 싱가포르와의 FTA를 보면, 중국이 하고자 하는 FTA는 민감한 품목을 제외시키거나 자유화의 속도를 늦추는 등 ‘낮은 수준의 FTA’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낮은 수준의 FTA’가 아시아 경제통합의 표준으로 자리잡게 된다면, 아시아는 EU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해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시아도 EU처럼 성공하려면, 한일 양국이 수준 높은 FTA를 먼저 체결하고, 이를 아시아 시장통합의 모델로 삼아 아시아 모든 나라가 함께 참가하는 통합된 거대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 정부가 농수산물 시장개방과 비관세장벽을 어떻게 허물지를 뚜렷이 제시하지 않고 있어 한일 FTA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협상에 쉽게 응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며칠 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이 중국을 FTA 협상대상으로 택한 것은 일본이 말로만 하자고 했을 뿐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 모범을 보여주면, 한국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위한다’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면서 한일 FTA를 빨리 성사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야 아시아가 미국·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어 성장을 이끄는 중추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일 경제인 여러분, 아까 사사키 회장님께서 한일고교생 상호방문을 위한 고교 생교류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 한일경제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주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사업이 계속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사키 회장님이 말씀하신 여수 박람회에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6일에는 서울에서 <제4회 한일 부품소재 조달공급상담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2009년부터 매년 열려온 이 전시회는 자동차, 전기전자, 금속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품공급을 원하는 일본기업들과 기술력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1대 1 비즈니스상담을 통해 맺어주는 ‘역전본시’입니다. 사전에 구매조건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기업들의 생산현장을 시찰할 수 있어 비즈니스 성사가 더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상담회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서로 Win-Win하는 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일 경제인 여러분, 세계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 양국 경제인 간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처럼 우리 한일 경제인들이 이럴 때 일수록 더욱 합심 협력하여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일 간 경제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

져 한일 두 나라가 굳건한 신뢰와 우애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 인사말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내빈인사

사회 : 조석래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양국 정부대표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일본측의 오카다 히데이치 경제산업심의관계 부탁드립니다.

岡田 秀一

(OKADA HIDEICHI)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심의관



방금 소개받은 오카다입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님, 아소 타로 전 일본 내각총리대신 각하, 신각수 주일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님,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그리고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평소 힘써주고 계시는 참석자 여러분. 오늘 이곳 오사카에서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일본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경제관계는 양국의 무역액이 작년에 처음으로 1천억불을 돌파하는 등 최근들어 더욱 더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일수출은 재작년과 비교해서 작년에는 40%를 넘는 등 대폭적으로 신장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동일본대지진에서 비롯된 일본국내의 공급부족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보태졌다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작

년 대지진때 한국정부와 산업계,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대일수출확대 이유의 또 하나는, 한국제품의 경쟁력의 대폭적인 향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1월에 한국을 방문하신 아소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께 역건본시 개최를 제안 하였습니다. 이는 조석래 회장님도 소개하셨듯이 일본기업이 서울에 가서 한국의 부품과 소재의 조달을 위해 상담회를 개최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에 매년 역건본시가 개최되어 한일 무역관계의 긴밀화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주부터 이번 주에 걸쳐 한일 경제관계에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여수국제박람회 개막식이 성대히 개최되었고, 일본관도 오픈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일간의 문화와 관광, 인적교류가 더욱 더 활발해 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일본과 한국의 정상회담, 경제무역장관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국의 투자보장협정이 서명되었고, 또 3국간의 FTA에 관해서 연내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합의되었습니다.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대신과 박태호 통상협상본부장간에는 오랜 현안인 한일FTA협상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확인되었습니다. 유럽의 채무위기를 비롯하여 세계경제가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재, 아시아는 세계경제의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센터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봄의 대지진과 가을에 태국의 대홍수가 저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세계서플라이체인망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긴밀히 펼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동북지방의 어떤 공장이 지진의 피해를 입어 생산되는 부품의 공급부족으로 전세계의 자동차생산에 지장이 생겼다는 점은 기억이 새로울 것입니다. 특

히 국제적인 서플라이체인이 보다 긴밀히 형성되고 있는 곳이 바로 동아시아입니다. 이 지역의 경제통합의 필요성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통합을 통한 아시아경제의 활력있는 발전을 꾀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참석하신 산업계의 리더 여러분들입니다. 한일경제인회의가 오늘 테마인 하나의 경제권구축을 향한 한일협력, 이것을 실현키 위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솔직하고 기탄없는 대화와 진정한 노력을 거듭해 오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양국의 경제관계가 더욱 더 긴밀해지고 정부간에서도 양자간, 그리고 3자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야말로 하나의 경제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한일 양국의 산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더욱 더 노력을 가속화 할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협력을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개최에 즈음하여 힘써주신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 조석래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한일경제인회의가 큰 성과를 거두시고 양국 경제관계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하며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오카다 심의관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정부를 대표해 신각수 주일본국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각수
주일본국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아소 타로



전 총리님, 한덕수 전 총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일 경제인 여러분. 먼저 올해로 44회째를 맞이하는 한일경제인 회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지난 1969년 이래 매년 개최되어 오늘로 44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양국간 경제협력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작년에는 한일간 교역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0억불을 넘어섰습니다.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의 교역규모가 2억불 수준임을 감안하면 실로 놀라운 속도로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일간 인적교류도 크게 확대되어 2010년에 양국간 교류인원이 500만명을 넘었습니다. 양국간의 대표적인 민간 경험체인 한일경제인회의는, 지난 44년간 양국 경제인의 꾸준한 대화협력을 통해 한일경제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한일경제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오신 양국 협회 회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작년에 일본은 3.11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대형 복합 재해를 겪었습니다. 지난 1년간 피해는 많이 복구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해 6월 대사로 부임하자마자 피해지역을 방문해 이 미증유의 재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이런 엄청난 재난에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세계인들은 인내심을 갖고 질서있게 대처하는 일본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이웃 일본의 재난을 자신의 일처럼 가슴아파하면서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진정한 마음의 교류가 양국국민으로 하여금 국경을 넘어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고 화합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일본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북지역의 부흥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일본경제가 활기를 찾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2008년 세계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환경이 악화된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금년도 그렇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해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도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세계경제가 불확실하다는 것만이 확실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키 위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다원화 및 리스크 분산차원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일기업들은 이미 적극적으로 서플라인 체인의 공유를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스컴등에서 한일기업간 치열한 경쟁관계를 부각시켜 보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관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양국기업들은 한일관계가 나쁠 때나 좋을 때나 반세기 가까운 시간을 함께 공유해 온 동반자입니다. 세계화시대의 넓은 세계시장을 생각하면 협력의 장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한일경제인회의가 양국기업들의 깊은 협력관계 구축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감안하면, 최근 양국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도전을 헤쳐 나가는데 더욱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윈윈의 파트너십을 확대, 심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큰 활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기조강연

사회 :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조강

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경제인회의의 관례에 따라 양국 경제협회 회장님께 공동의장을 부탁드립니다. 두 분 의장님께서서 의장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佐々木 幹夫 단장 : 그럼 지금부터 기조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의 진행은 조석래 단장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측의 기조강연으로 아소 타로 전 내각총리대신께 부탁드립니다. 아소 타로 전 총리님은 제92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외무대신, 총무대신, 경제기획청장관, 자유민주당 간사장 등의 요직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한협력위원회 회장대행을 맡으셨으며,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교류에 앞장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麻生 太郎
(ASO TARO)**

중의원 의원, 전 내각총리대신

아소 타로입니다. 오늘은 44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걸쳐 매년 회의를 개최해 온



뜻깊은 이 회의에 강사로 초청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기꺼이 수락해 주셨다는 소개가 있었지만, 사실은 다른 예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이 일본측 부단장직을 맡고 있는 관계상, 다른 예정을 취소하고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 조석래 회장님을 비롯한 제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뵙는 분들도 많았는데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가 있었지만, 기시 노부스케 초대 위원장, 3대 위원장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등 역대총리께서 회장을 맡아오신 『일한협력위원회』에서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의 관계는 아주 가까워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 확실히 한일관계는 과거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조강연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3월 11일, 일본은 천년에 한번이라는 지진과 해일로 인한 재난을 당했습니다. 저는 재난 직후에 바로 피해지역을 다녀왔습니다만, 상상을 초월하는 대참사였습니다. 재난이 일어난 지 1년이 되었지만, 2만명이 넘는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아직도 남아 있고, 현재도 피난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34만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대지진 직후 한국의 여러분께서는 다른 나라보다 먼저 구호팀을 보내주셨고, 식량과 물 등의 생필품을 지원해 주셨고 거액의 의연금도 보내 주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일주일 후, 3월 18일에 주한일본대사관에 조문까지 해 주셨습니다. 현직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조문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5월에는 대통

령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직접 미야기현을 방문하여 이재민을 위로하였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한국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셨는데, 과거 10년간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한일관계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주일한국대사관은 겨울의 시대였다고 할 정도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유 대사님께서서 외무장관에 취임하신 후부터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변화되어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저도 외무대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일, 한미, 일미, 일한 등의 여러 회의에 제가 참석하였는데 분위기가 아주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1년에 평균 2번정도 한국을 방문해 왔습니다. 50회 이상 방문하였는데, 이명박 대통령님도 외무대신에 취임 이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최근 몇 년동안은 확실히 한국 경제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거리의 지나가는 사람의 복장과 거리가 아주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경제수준과 생활수준이 확실히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은 올림픽과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 G20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은 아시아의 리더 나아가 세계의 리더국가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국으로서의 자신감을 계속 가지고 더욱 더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까지는 일본의 음악, 잡지,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등은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틀이 보다 완화되어 일본에서 수입된 영화 등이 상

영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측은 고노 외무대신이 협상을 하였는데, 한국에서는 일본영화의 수입으로 인해서 한국의 영화업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붕괴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대에 못미친 일본영화의 영향으로 대량의 한국 영화가 일본으로 수출되었고, 일본내에서는 한류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NHK에서는 「이산」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하였는데 시청율이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한류붐은 아주머니들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라, 소녀시대 등 K-POP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수출된 첫 만화는 슬램덩크, 세일러문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단서를 만든 것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외교협상을 하는데 있어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많이 수출되고 수입되면서 한국의 대일감정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세대가 지금 40대가 되어있고, 또 이 40대 세대 이후의 세대는 일본어를 쓰지는 못하지만 읽을 수는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모두 TV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TV게임의 공약을 위한 책자가 있는데, 비디오게임의 공약을 위한 그 책자를 먼저 보고 마스터하는 것이 학교에서 히어로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먼저 빨리 자기 자신에 대한 이익도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빨리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50~60대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30대, 40대는 영어와 일본어를 유창히 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는 매우 좋은 일이며, 시대가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토와 역사인식문제에 있어 양국간

에 인식의 갭이 있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로써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국은 이 지역,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별로 없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의 기본적인 개념을 공유하는 인식이 일치하고 있는 선진국입니다. 이런 공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 지, 일본과 한국이 제3국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 지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 아시아의 선진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아시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국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로 재탄생하고 있는 국가들과 함께 자유와 번영이라는 것을 보다 확대시켜 나가는 일을 한국과 일본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자원이 없는 일본과 한국이 아시아의 선진국으로써 성장을 이룩해왔다는 사실은 자랑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현재 일본은 브라질과 함께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라는 지역에서 대두의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광대한 토지를 갖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사막입니다. 약 50년전부터 그 사막지대에 일본계 이민자들이 대두를 재배하여 현재는 브라질에서 커피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농산물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수입되고 있는 대두는 미국산이 아니고 대부분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식량 부족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모잠비크에서 재배해 보자는 것입니다. 모잠비크는 원래 포르투갈의 영토로 브라질 사람들은 포르투갈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외무대신 시절에 제안을 하였고 총리대신때 싸인

을 하여 스터디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양국이 같이 추진하면 아프리카의 식량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반드시 같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가치의 외교라는 측면에서 세계각국의 신흥민주 국가를 지원하는 사업도 우리들이 앞으로 많이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중국의 대두가 국제정치학상 밸런스의 변화라는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아주 침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의 오바마 대통령의 백서를 보더라도 아시아의 방위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국무장관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습니다. 아직 일당 독재주의, 핵을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도 갖고 있는 국가가 바로 옆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와 우리들이 같이 살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핵개발 등의 추진에 대해서 우리들이 대처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격동의 시기에 있어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 시장주의 국가로써 아시아의 안정된 세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하였고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에 뿌리내린 우리 국가가 번영을 이룩해 온 것입니다. 자원도 없이 교육과 인재육성을 통해 성장해 온 것입니다. 이런 양국이 함께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전보장상, 그리고 경제발전상 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세력이 되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서의 한일 협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방금 소재분야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만, 역경본시를 경제산

업성과 같이 제안했을 때 의아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벌써 4회째가 됩니다. 그리고 고교생교류사업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확실히 이 사업들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격의없는 대화와 토론을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한국어와 일본어가 아닌 영어로 토론을 한다는 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유라고 봅니다. 이렇듯 우리는 각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고 아직도 협력의 소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정치인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아직 아시아에는 격차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라는 국가도 지금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일본은 공식적으로 대화를 개시하고 올해 20여년 만에 미얀마 대통령과 의장, 상의 회장 등이 일본을 방문하고, 미얀마라는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일본은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경제적인 국력의 격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격차가 있는 나라들이 같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EU의 그리스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래도 격차가 많이 있는 나라들이 갑자기 협력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서서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경제적인 연계, 안보, 테러 대책, 해적문제, 해상안전 등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개별적인 부분에 들어가 분야별 협력을 쌓아 올리는 것이 결국 좋은 협력관계로 연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환경에 있고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들이 격의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육성한다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회의, 학생교류 등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런 젊은 분들과의 교류가 중요합니다. 적어도 서로를 잘 알고 있다, 식사와 술을 같이 하고 대화를 나누었다는 식의 경험 즉 인간관계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깊은 유대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인회의를 지금까지 계속 실시해 온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 감사말씀드립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않더라도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감으로써 1년에 한번씩 이 회의에 참석하면 반드시 만날 수 있는 인간관계가 결과적으로 양국의 관계를 더욱 더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의가 계속 존재하고 일본과 한국의 사이를 맺어주는 여러 가지 채널과 요소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양국이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된 이익을 위해서,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가일층의 발전을 위해 양국의 공동이익은 물론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기조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佐々木 幹夫 단장 : 아소 타로 전 총리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한국측 기조강연이 있겠습니다. 조석래 단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석래 단장 : 한국측에서는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 계시는 한덕수 회장님께서 『세계 번영에 기여하는 한일경제협력의 전개』라는 테마로 기조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한덕수 회장님은 하버드대학의 경제학 박사로서 한국 정부의 요직을 거치셨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때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셨고, 2005년 노무현 정부때 부

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국무총리를 역임하시고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로 활동하시다 금년 초에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 무역협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지금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서 대외적인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 한미FTA를 더 넓게 확산함으로써 한국경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을 쏟고 계십니다. 그럼 발표 부탁드립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존경하는 일한경제협회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 한일 경제협회 조석래 회장님, 아소 타로 전 총리님, 신각수 주일본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님, 그리고 오카다 히데이치 경제산업 심의관님, 그리고 한일 양국의 귀빈 여러분을 모시고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3.11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위로를 드립니다. 엄청난 재난 앞에서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온 일본 국민의 시민의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 국민도 인접국 일본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면서 전 국민의 31.9%가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기부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이는 양국 국민이 국경을 넘은 상호 간의 깊은 우정과 유대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일본이 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고 일본 국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경쟁과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및 세계의 경제발전과 평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일본의 대(對)한국 투자액은 1965년에 5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23.0억 달러로 확대되어 외국인투자로서는 2위 투자국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는 금년도 1분기의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9.2억 달러로 전체의 39.2%를 차지하여 2010년에 이어 제1위 투자국으로 재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국에 투자해 주신 일본 기업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국 간 총 무역액도 1965년 2.2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1,08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일본은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 3위국, 수입 2위국의 무역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도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투자 자유화 증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2003년에 ‘한일투자협정’이 발효되어 한일 양국민은 상대국에 투자할 때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투자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국 금융시스템의 단기유동성을 개선하고 한일 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에 130억 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700억 달러로 규모가 확대되어 양국의 외환 유동성을 둘러싼 불안감은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양국 간의 투자, 무역, 금융 분야 등에서의 경제협력은 한국경제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최근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JX닛코닛세키에너지와 SK종합화학(‘11.11), 미쓰비시화학·미쓰비시상사와 포스코캠텍(‘11.9)이 합작회사 설립에 합의하였으며, 스미토모화학(‘11.5)은 약

190억 엔을 투자해 터치패널을 삼성에 공급하기로 하는 등 바람직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한일 간 협력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2009년 대(對)아프가니스탄 농업개발 사업을 공동지원하였고, 2010년 아이티 대지진 참사 때에는 긴급복구팀을 파견하여 이재민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2011년부터 녹색성장을 위해 호주가 주도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CO₂ 지중저장 오토웨이(Otway)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측면의 한일 민간 교류관계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것이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입니다. 성공적인 월드컵 공동개최는 양국 국민 간에 상호신뢰와 깊은 우정을 싹트게 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류 열풍이 뜨겁습니다. 드라마와 K-POP을 통하여 온사마(배용준), 보아, 카라, 소녀시대, 동방신기, 근사마(장근석) 등이 한류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식문화가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와쇼쿠(일식)'로 대표되는 스시를 비롯해 사케, 우동, 라멘 등은 한국인이 즐겨 찾는 음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상권은 많은 일식 가게들이 차지해 'little Shinsaibashi'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일 양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에서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1년 일본인의 한국인 호감도 조사에서는 62.2%가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여 2009년의 63.1%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동년 한국인의 일본인 호감도 조사에서도 40.5%를 기록하여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었습니다. 2009년 한국 방문 일본 관광객 수는 300만 명을 돌파하였고, 2010년 양국 교류인원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무르익은 양국

간 협력 분위기를 새로운 미래지향적 한일 파트너십 정립으로 이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이어져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호황을 누리던 개발도상국의 성장도 둔화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유가, 식량,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세계경제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각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당면한 세계경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동아시아 경제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글로벌화'의 진행으로 경제통합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시아 등 3개의 경제권 구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일본의 선진화된 경제, 중국의 고도성장 등에 힘입어 경제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중일 3개국 GDP는 전 세계의 21.9%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경제는 대지진의 충격에서 깨어나 생산, 투자, 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화의 약세로 자동차 빅3(토요타, 혼다, 닛산)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대지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금년도 대기업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3.6%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도레이(Toray)는 내년 1월 가동 예정인 한국의 탄소섬유 공장을 조기 가동할 수 없는지를 검토 중이며, 한국과 미국, 일본에 총 450억 엔을 투자하여 생산능력을 증대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금년 고용이 60%나 증가하는 등 성장을 위한 투자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빠른 회복은 향후 동아시아의 역동성을 더욱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경제부진이 예견되는 가운데 동아시아는 세계경제를 견인할 성장엔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적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선진적인 시장경제제도를 가지고 있는 한일 양국이 개도국에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동아시아의 경제지형 변화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무역 지형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일 간 무역 규모의 절대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총 무역액에서 상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일 수출은 1990년 126.4억 달러에서 2011년 396.8억 달러로 3.1배 늘어났으며, 일본의 대한국 수출 역시 같은 해 185.6억 달러에서 683.2억 달러로 3.7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일 양국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경제 상호 의존도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일 무역 비중은 1990년 23.1%에서 2011년 10.1%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으며, 일본의 대한국 비중도 5.6%에서 6.3%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양국 모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동아시아가 세계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주변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고 중국이 세계 번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개국의 공동 협력관계는 더욱 큰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의 번영뿐만 아니라

세계의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일 양국은 부족한 자원 환경 속에서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개방정책으로 고도경제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양국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세계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열린 개방정책,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인력양성정책 및 효율적 정부를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정책을 양국에서 심화시켜야 할뿐 아니라 성장과 발전을 갈망하는 아시아 및 세계의 모든 나라와 함께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경제적 성공을 가져왔던 발전전략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은 우리의 성공적 경험이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많은 나라들의 롤 모델(Role Model)로서 세계 번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패턴은 과거 양적 확대에서 이제는 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인적교류, 문화교류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한일 신(新)협력 시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보다 수준 높은 한일 간 협력을 위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협력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FTA 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에서는 중층적 구조의 지역협정 또는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구축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2004년 이후 중단된 한일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노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참여를 추진하는 TPP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에는 ASEAN 10개국은 인도, 호주, 뉴질랜드의 참여를 염두에 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를 추진하고 있습니

다. 동북아에서는 지난 5월 2일 한·중 FTA 협상이 공식 개시되었고, 지난 주말(5.13)에는 한·중·일 3국 정상 3국 간 FTA 협상을 금년 중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일 FTA는 양국 간 '미래 파트너십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규모의 경제 달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 촉진, 제3국 시장에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서 한일 FTA 추진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협상 전망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부문의 대일 무역역조 확대를 우려하고 있고, 일본은 농산물 시장의 수준 높은 자유화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대일 수출품목 중 무관세 비율이 70%에 이르는 반면, 일본의 대한국 수출품목 중 무관세 비율은 38%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2010년 일본의 비농산물 가중 평균 관세율은 1% 미만입니다. 한일FTA가 양국 간 Win-Win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익의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합니다. 일본은 농산물 시장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철폐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관세 철폐에 따른 걱정보다는 기술력이 경쟁력을 결정하게 되는 부품소재 부문에 대해 일본과의 투자협력, 기술이전 등 포괄적인 산업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구축을 실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가진 'FTA 허브 국가'로서 자리매김 했습니다. 2012년 5월 현재 미국, EU 등 8건의 FTA를 통해 총 45개 국가와 무역자유화를 실현하였으며, 7개 국가·지역과 타결했거나 협상 중에 있습니다. 한중 FTA 협상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향후 일본이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한국은 일본

의 세계시장 확대를 위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끼는 한 평의 풀밭을 필요로 하지만 사자는 광야로 나가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듯이' 한국과 일본도 더 넓은 세계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일 FTA를 지렛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액은 2010년 361억 달러를 정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에는 397억 달러를 수출하고 683억 달러를 수입하여 전년 대비 75억 달러가 개선된 28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대일 무역적자가 전년 대비 20.7%나 감소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 부진이 대일 수입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대일 무역적자가 감소(한국의 수출부진 → 국내투자 위축 → 대일 수입 감소 → 대일 무역적자 감소)하는 패턴과 달리, 일본의 쓰나미 등 불행한 사태의 여파도 있었지만 2011년 대일 수출이 전년 대비 40.8%나 증가한 것이 전체 무역적자를 감소시킨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양국 간 무역불균형은 인위적인 노력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대일 무역역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은 한국 상품의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관세, 비관세 장애물을 제거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그 동안 미흡했던 일본의 한국 부품소재 구매와 일본 부품소재 관련기업의 한국 진출이 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태국 홍수 사태로 일본 제조업을 뒷받침 해온 서플라이 체인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핵심 부품소재 공급이 중단되면서 일본기업은 물론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혼이 담긴 제조업

을 의미하는 ‘모노쓰쿠리’ 분야에서 서플라이 체인의 어려움은 일본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산업계는 동일본 지진을 계기로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일본의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 전략은 리스크 분산을 위한 서플라이 체인 복선화와 생산거점 분산화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 이전에 따른 생산거점의 다변화와 현지조달 체제인 지산지소(地産地消)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한일 협력,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일 것입니다. 일본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해 국내고용 감소, 기술이전에 따른 일본기업 경쟁력 약화, 산업공동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내수시장 축소, 대지진 이후 전력문제, 엔고, 저렴한 노동력 확보 어려움 등을 고려한다면 일본기업의 해외 진출은 향후에도 가속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기업의 해외이전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일본기업의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준 높은 노동력으로 인한 기술집약형산업 진출 여건 구비, 일본의 절반에 불과한 값싼 전기요금과 법인세, 부품소재 분야에서 한국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가능성 증대, 지리적으로 가까워 일본기업이 중요시 여기는 JIT(Just in Time)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은 많은 국가와의 FTA 체결로 인해 광활한 경제활동영역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총 GDP는 세계 전체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기업도 한국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확대된 한국의 경제영토 위에서 세계시장을 향한 기업활동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은 일본기업의 안

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기업 투자환경 개선, 노사문화 선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지적소유권 보호 강화, 조세감면 등의 투자 인센티브 확충 등에 대해서 일본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수출지역 다변화와 지속적인 수요시장 확보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큰 신흥국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고품질·고가격 전략으로 선진시장에 주력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선진국의 경기 침체로 신흥국 중심의 글로벌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일본기업은 신흥국의 연간 가계 가처분소득이 5,000~3만 5,000 달러의 소득계층을 볼륨 존으로 정의하면서 이 시장에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기업들이 저가격 혁신과 중저가 제품 출시를 통해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의 신흥국 시장 진출을 확대함에 따라 신흥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국기업과의 경합이 치열한 실정입니다. 한일 양국은 신흥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동차, 가전, 공작기계 분야 등에서 과다한 출혈경쟁과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한일 간 경합구조에서 협력구조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이 ‘Win-Win형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흥국에서 한일 공동 차세대 제품 개발과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대신흥국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통해 신흥국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양국 기업이 공동 진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신흥국 경제발전을 위해 한일 양국의 경제개발 경험, 산업기술 등을 공동 전수 등을 통해 양국 기업의 비즈니스 협력 기회도 기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흥국에서의 한일 간 경제협력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한국과 일본의 기업인 여러분들의 협력이 새로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한일 양국은 해외 자원에 주로 의존하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해 온 국가로서 환경, 에너지, 자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며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야 할 필요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적극적인 환경 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으로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되었습니다. 한일 양국은 환경 분야에서 한중일 3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에너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술개발의 촉진과 국제적 보급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특히 한중일 간의 원자력 안전강화를 위한 협력이 시급합니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개발을 위해 양국 간 기술협력도 필요합니다. 하이브리드 카나 전기 자동차, 클린 기술의 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 간의 공동 R&D를 통해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제3국에서 자원 확보를 위한 한일 간 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미쓰비시상사가 인도네시아에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했으며('11.1), 포스코와 신닛테츠가 브라질 희귀금속인 니오븀 광산에 약 2조원을 공동출자('11.3)했고, 한국전력과 스미토모가 아랍에미리트(UAE)의 가스복합화력 발전을 공동 수주('11.2)하는 등 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화석 연료를 대상으로 제3국 공동 진출이 활발했으나 향후에는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양

국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등 BRICs 국가에서의 IT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스마트시티 전환 프로젝트에 공동 진출하는 것과 신흥국의 그린에너지 기반 경제성장 도모를 위해 양국 산업계가 협력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와 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에너지·자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더 수준 높은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2012년 3월 지진피해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외국기업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개방된 부흥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정부와 국민, 기업은 일본이 하루 빨리 피해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흥사업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한일 협력사업은 인프라 분야입니다.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하여 도로, 철도, 항만, 상하수도 등의 파괴를 복구하기 위한 대대적인 공공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은 필요하다면 일본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하여 기술, 장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한국기업이 일본의 피해지역에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협력방안 논의도 바람직합니다. 특히 일본 지자체가 외국기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야인 이와테현의 반도체와 자동차산업, 후쿠시마현의 재생에너지, 이바라키현의 태양광 등에 대해서 양국 간 민관 공동의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한일 양국을 둘러싼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달리기 좋은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장애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줄이지도, 돌아가지도 않기 위해서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한 차원 높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이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발전과 평화를 위한 동반자, 나아가 세계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고 공동 번영을 누리는데 이 자리에 계신 기업인 여러분들의 역할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본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석래 단장 : 한덕수 회장님 감사합니다. 가깝고도 가깝게 된 한일양국이 서로 협력해 세계로 나가 세계경제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협력해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명깊은 연설이었습니다.

佐々木 幹夫 단장 : 그럼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강연을 부탁드린 후쿠가와 신지 일한파트너쉽포럼 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쿠가와님은 경제산업성의 전신인 통상산업성의 사무차관을 역임하였습니다. 그 후 (주)고베제강소의 부회장, 일본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인 (주)텐츠종합연구소의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최근까지 기계산업기념재단 회장도 역임하였습니다. 그야 말로 관, 산, 학 3분야에서 톱을 지내신 것입니다. 지금은 민간의 입장에서 일한파트너쉽포럼 좌장으로서는, 한일 두 나라의 경제, 문화, 인재교류 촉진의 리더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트너쉽포럼에서의 활동에 대한 것등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3. 특별강연

福川 伸次

일한파트너쉽포럼 좌장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한덕수 한국 무역협회 회장님, 신각수 주 일대한민국전권특명대사님, 아소 타로 전 일본총리대신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후쿠가와 신지입니다. 일한파트너쉽포럼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개라는 차원에서 기업인과 연구인들이 모여 새로운 한일관계를 개척하기 위한 연구인들의 모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일관계의 긴밀화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온 한일경제인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경하드립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1974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통상협상 과장을 지냈던 때입니다. 그 당시엔 살벌한 동서냉전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불행한 역사관계가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시기였고, 두 나라의 경제관계는 초기단계였습니다. 그 후 40년이 지난 현재, 두 나라는 빠른 속도로 상호신뢰를 회복했고, 경제, 문화교류를 발전시켜 두 나라의 관계는 진화를 거듭하였습니다. 그 커다란 계기가 된 것이 1998년 10월의 한일공동선언이었습니다. 양국 정상이 슬픈 외교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이 4차례에 걸쳐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국간의 아주 다양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일본에서는 한류붐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겨울연가는 한일 두 나라의 봄의 소

나타를 들려준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의 상징으로서 애니메이션 혹은 패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2년의 월드컵 축구의 공동개최를 계기로 스포츠분야의 교류도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양국간의 인적교류는 2010년에 약 546만명을 달성하였습니다. 두 나라를 찾는 외국인중에 한국과 일본이 각각 톱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자체간의 자매결연 건수는 2011년 1월 현재 134건에 이르렀고, 일본의 16개 공항으로부터 주 618편의 정기편이 한국에 취항하고 있습니다. 로우코스트캐리어(LCC)가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수는 더욱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론동향에 대해 일본의 내각부가 실시한 외교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한일 양국이 양호한 관계라고 응답한 사람이 66.5%, 한국에 친근감을 느낀다는 사람이 63.1%에 달했습니다. 이는 3년전과 비교해 볼 때, 각각 90%, 4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의 대일감정은 여전히 복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서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일간의 경제관계도 급속도로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양국간의 무역은 수출입 모두 증가되고 있으며, 양국은 각각에 있어 중국, 미국에 이은 제3위의 무역상대국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서로 유사하다보니 전기전자기기, 기계류,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산업내 무역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만성적인 대일적자도 최근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1998년 이후에 한국정부의 투자촉진대책 그리고 2003년에 한일투자협정 발효 등을 통해 한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대한투자는 연간 10억불에서 20억불 수준입니다.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혹은 공항, 항만과 같은 인프라 정비, 그리고 FTA체결 등 한국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침

으로서 일본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1997년 IMF위기를 극복하고 최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기업들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라는 면에서 세계생산의 TOP을 기록하고 있고, 4월 23일 북경 모터쇼가 개최되었습니다만, 중국시장에서 가장 세어가 큰 것이 폭스바겐인데, 중국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자동차생산업체는 현대자동차라고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고 그리고 최고의 수익력을 거두는 실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APEC, G20, UN 등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인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흐름에 호응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화를 향한 움직임은 우리 한국과 일본을 맺어주는 강력한 유대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는 이처럼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향후에도 힘차게 걸어 나갈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합니다.

두 나라의 경제는 상호 우호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기초적인 여건이라는 면에서 최근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세계의 파워구조가 다극화되면서 질서유지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질서의 기축이었던 미국의 지도력이 저하되고 있고, EU도 정치 경제가 모두 표류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같은 아시아국가들이 높은 성장력을 유지해 세계의 경기회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경제는 G8체제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적인 여건 변화를 반영되어 최근에는 G20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인 금융의 안정과 불황으로부터의 탈

출이라는 면에서는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합니다. 한일 두 나라는 지금까지 국제질서를 어떤 주어진 여건으로 생각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국제질서의 재건운영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문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발전시켜 온 이 산업문명은 지구상의 자원은 무궁무진하고, 대기순환 기능은 영원하다고 하는 전제에 입각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원에너지 공급이 한계를 드러내고, 지구온난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은 이러한 전제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계 주요국가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이런 움직임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해 자원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고도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적 창조력이 넘치는 새로운 산업문명 구축에 힘써야만 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2008년 이후의 금융위기는 시장원리주의와 금융우위적 경제운영에 경종을 울리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또 금융완화, 재정진작과 같은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은 꼭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셋째, 인구동태의 변화입니다. UN의 예측에 의하면, 세계인구는 2010년에 69.1억명에서 2050년에는 91.5억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증가율을 보면, 선진국이 0.3%, 개도국은 1.3%로 증가율이 예측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동태 변화는 자원에너지, 식량 등의 수급이라는 면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또 경제성장력도 좌우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계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검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이미 인구

가 줄어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균출생아수, 즉 한 여성이 평생동안 낳는 아이의 수입니다만, 2009년에 일본이 1.37, 한국은 1.15였습니다. 즉, 두 나라 모두 인구유지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입니다. UN의 예측에 의하면, 일본의 인구는 2010년에 1억 2,700만명에서 2050년에는 1억 100만명으로 줄어들고, 한국은 4,800만명에서 4,400만명으로 줄어든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출산고령화는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금리를 상승시키고, 시장을 축소시키고 세대간 대립을 초래하고 그리고 성장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한일 두 나라는 지금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 아주 주도면밀한 대책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두 나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전개해야 할까요? 두 나라는 천연자원이 많지 않아 가공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 만큼 두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세계화」야 말로 경제를 존립시킬 수 있었던 기반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요동치는 국제환경속에서 보호주의를 배척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고, 글로벌리즘을 정착시키고 그리고 이노베이션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구현하는 것이야 말로 두 나라의 경제운영의 요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4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두 나라가 새로운 산업혁명의 선두에 선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원의존 혹은 낮은 환경부하 그리고 실수요에 뿌리내린 성장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가치를 충족시키고, 정신적인 만족을 도모하고 문화적 욕구를 위한 이노베이션에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측면은, 그런이노베이션(녹색혁신)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일본과 한국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수요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 에너지이용 효율을 향

상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환원제철강이라든지 생물화학과 같은 새로운 제조법을 확립하고, 그리고 초전도소재라든지 단열재와 같은 소재를 개발하고, 또 친환경상품 혹은 친환경주택, LED, 차세대자동차, 축전, 축열장치 등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공급면에서는 태양열, 풍력, 조력, 지열, 수력과 같은 자연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원자력의 안전기술을 더욱 개발해서 에너지공급의 최적의 컴비네이션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그리드 라든지 생태도시와 같은 사회시스템 개발에도 함께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산업혁명의 2번째 측면은, 생활을 혁신하는 라이프노베이션의 추진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고령화 사회를 구현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의료기술을 진보시키고 그리고 요양보호시스템을 계속 개선하고, 요양보호로봇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재난에 강한 도시를 만들고, 생활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고 문화적이고 매력넘치는 도시생활을 제공하고,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것등이 과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측면은 문화활동의 진화 즉, 컬쳐이노베이션의 추진입니다. 국제경쟁의 요소들은 과거에는 수량, 품질, 가격 등이 요소였는데, 최근에는 매력, 품격, 감성 등의 부분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매력적인 패션 즉, 상품에 있어 문화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애니메이션 시리즈와 같은 콘텐츠와 전자음악이 가져다 주는 새로운 문화 등, 슈퍼하이비전과 DVD, 스마트폰 등의 문화전달수단 등이 그 예입니다. 저는 산업과 문화,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야말로 새로운 성장을 리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FTA의 추진입니다. 한일FTA협상은 2002년 12월에 시작해 2004년에 중단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의 동향을 보면, 지금은 FTA가 주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WTO에 등록된 FTA는 1990년 말 27개가 2010년 7월 현재 474개로 늘어났습니다. FTA의 무역이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일본은 17.6%로서 비교적 낮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35.8%입니다. 미국은 38%, EU는 역외만 보아도 27.2%입니다. WTO의 뉴라운드협상이 정체되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자유무역을 수행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 FTA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 한중일 3국간 FTA를 추진하려는 기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국 정상회담의 합의를 토대로 2010년 5월에 시작된 정부차원의 산학관 공동위원회는 작년 12월 26일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즉, 3국 FTA는 무역투자를 촉진하여 폭넓은 3국간 협력을 발전시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통합 프로세스의 진전에도 기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4월 23일 북경에서는 민간 싱크탱크인 일본의 일중산학관교류기구, 한국무역협회, 중국국제교류중심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그 결론은 민간입장에서 3국의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일, 일중, 혹은 한중 3개의 FTA를 추진하고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석래 회장님은 수준높은 FTA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과 중국과 한국, 그리고 동아시아까지도 시야에 넣은 FTA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나라간의 FTA도 의미가 있지만, 3국간 FTA쪽이 더욱 더 3국의 서플라이 체인을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고, 보다 넓은 시장에서 이노베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그 결과 커다란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이른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4도 되고 5도 되는 그런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기업활동의 활발화를 위한 조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경제활성화의 관건은 활발한 기업활동입니다. 지난 3월에는 7년에 걸친 협상을 통해서 한중일 투자협정이 합의되었고, 지난 정상회담에서 서명되었습니다. 또 3국의 FTA로 이같은 기업환경정비라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혁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한일이 이노베이션이라는 부분에서 세계를 리드해 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국경을 넘은 산학관의 연구협력, 공적지원을 통한 대형 기술프로젝트 실시, 주재권 제도의 적절한 운영, 사실상의 표준을 위한 협력, 그리고 기업인 교류확대, 전문인력 양성과 자격증 제도의 공동화 등의 면에서 두 나라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나라는 농림수산업 부분에 여러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적인 기법, 경제적인 기법등을 도입함으로써 이 분야의 구조개혁에 관련된 경험을 서로 교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과제는 위기관리정책면에서의 협력입니다. 동일본대지진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기업, 한국의 친구분들께서 따뜻한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자연재앙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뿐 아니라 중남미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앙은 그야말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은 위기나 위협이라는 것이 자연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정세는 지금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그 예입니다. 그밖에 안보, 핵확산, 테러리즘, 재정악화, 식량부족, 에너지 불안, 해상수송의 위협, 인구동태 변화

등 예기치 못했던 위기나 위협이 한일 두 나라를 덮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국정부와 민간은 꼭 사전에 그 위기관리 정책방안을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기 혹은 위협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기의 영향을 극소화시키기 위한 사전적인 위기관리도 필요합니다. 불행하게도 위기나 위협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피해를 극소화시키고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사후적 위기관리도 역시 필요합니다. 또 위기나 위협에 대한 저항력 혹은 대응력을 높이는 구조적인 위기관리도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 정치, 자연이라는 면에서 앞으로도 위기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에서 미리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한일 두 나라의 공통과제라 생각합니다. 이노베이션의 가능성은 우주와 같이 넓습니다. 또 인간의 예지는 샘솟 듯 무한합니다. 산업구조가 비슷한 두 나라의 기업들이 정부 지원하에 예지를 결집시켜 이노베이션에 도전해 간다면 반드시 새로운 성장모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는 한일 두 나라의 경제계가 명확한 비전을 그리고 함께 협력하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가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佐々木 幹夫 단장 : 후쿠가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사무국 부탁드립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아소 전 총리님께서 회의를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5동안 휴식시간을 갖고 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오니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COFFEE BREAK)

4. 보고·제안

佐々木 幹夫 단장 :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산업무역회의와 관련된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측 চে어맨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석래 단장 :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 활동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국측의 চে어맨이신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님께서 「하나의 경제권」 구축의 구체화를 위한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보고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현호 부회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 국장을 역임하고,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0년 지식경제부 제1차관으로 활동하시다가 2011년 12월에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구립 발표 부탁드립니다.

(1) 신산업무역회의의 보고·제언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안현호입니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한일간 산업, 무역, 투자 등 공동의 과제에 대한 실천적 문제해결 지향형의 회의로서, 양국정부와 관계기관등의 정책제언 및 실현을 목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회의는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일본측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아소 চে어맨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이므로 저는



금번에 한국 측에서 조사·연구하여 발표한 4개 테마에 대해 보고·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일 경제인들은 양국 경제의 번영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성장축으로 충분히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역내 통합경제권의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한일 양국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는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 하나의 경제권이 갖는 이익을 한일 양국이 충분히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① 한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하는 생산 네트워크의 새로운 구축 ② 플랜트 자원개발 등 제3국 공동진출 방안 ③ 신성장 산업분야 R&D 네트워크에서의 한일 협력 ④ 전 제조업 분야 산업인재교류 활성화 방안 등 4개의 테마를 선정하고 열띤 논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제13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보고·제언된 「신성장 산업분야 R&D 네트워크에서의 한일 협력」과 「전 제조업 분야 산업인재교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대학교 경영학부의 서정해(徐正解) 교수께서 조사·연구하여 발표·제언한 「신성장 산업분야 R&D 네트워크에서의 한일 협력」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융위기 등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신성장산업 발굴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R&D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미 유럽지역은, 1985년에 유럽 18개국이 미국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지향적 산업기술개발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범 유럽 공동 R&D 네트워크”인 EUREKA를 설립하여, 국제협력의 상시성, 지속성, 체계성, 다양성을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일 양국은 R&D 글로벌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가지고 있으나, 실제적 활동은 세계 각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정부 R&D 예산 중 글로벌 공동연구·아웃소싱 등 국제공동연구 투자 관련 예산비중은 한국 2%, 일본 15%로 공히 선진국의 평균인 28%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2009년부터 「신성장동력종합추진계획」을, 일본은 2010년부터 「신성장전략기본방침」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상호 유사한 녹색기술기반 신성장 산업분야에서의 상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가능성을 높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 글로벌 R&D 국제협력 추이 및 한일 양국의 신성장 육성정책 등을 고려하여,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관점에서 한일 양국 간 R&D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의 한일 R&D 협력 추진방안」을 제언합니다. 먼저, 한일 신소재 공동개발 연구 추진입니다. 장기적으로 신성장산업의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신소재의 개발을 통하여 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가칭 「한일소재산업지원재단」을 설립하여, 기초연구인 소재 연구분야에서 신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의 교차과전·공동연구 및 기관 간, 기업 간의 R&D 협력 네트워크 구축·강화를 통하여 한일 공동연구를 활성화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 한일 신소재 기술 공동포럼 등을 개최하고, 또한 신소재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설·공동실험시설 구축 및 활용 등을 통해 한일 공동연구를 활성화할 것을 제언합니다. 다음으로는 한일 녹색기술 공동개발 협력추진입니다. 미래의 저탄소 사회의 주도권 획득을 위하여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일 양국 정부 관련 부처 실·국장급

차원의 가칭 「한·일 그린파트너십」 회의를 정례화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환경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기술개발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상호협력을 확대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양국의 유명 녹색기술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한일 녹색기술 공동개발 연구소」 설치와 민간차원의 녹색에너지 기술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가칭 「한·일 기업 간 그린 파트너십」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산발적이고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환경분야 한일 공동연구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하여 연구 성공확률을 높이고 원하는 연구자와 기업들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하여 주실 것을 제언합니다.

한일 지식재산권 처리 등 국제공동의 R&D 관련제도 개선도 시급합니다. 현재 국가마다 서로 상이한 지식재산제도가 국제적인 사업활동에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칭 「한일 지식재산 및 국제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표준화 결정에 대한 제휴·협력을 강화하고, 또 지식재산 심사 및 등록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국의 특허청과 심사공조 확대, 심사 절차의 국제적 통일화 등 심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확대를 제언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R&D 협력 플랫폼 구축입니다. 한일 R&D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개발주체들이 상호신뢰 하에 R&D 협력에 대한 지식을 창출, 확산시킬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가칭 「한일 R&D Open Innovation」 플랫폼을 구축하여, 양국의 R&D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시스템을 통한 R&D 협력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줄 것을 제언합니다. 대규모 자본소요에 따른 리스크 분산과 안정적 시장확보 차원에서 한일 R&D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반드시 필요

하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산업분야인 전기자동차, LED, 스마트 그리드, 차세대 통신 분야 등에서 한일이 협력하여 산업표준을 만든다면 결국 이것이 차세대 세계 기술표준이 되어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동의대학교 무역학과 이홍배(李鴻培) 교수께서 조사·연구하여 발표·제언한 「全 제조업 분야 산업인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일 간 산업인재 교류 확대는 양국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21세기 들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보유자원, 자본력 등의 유형의 자산에서 지식과 기능 등으로 대변되는 무형자산의 집약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서로의 축적된 무형자산을 활용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차별화된 기술, 브랜드 및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바로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한일 양국의 제조기업이 가진 지식과 기술의 교류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수한 인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일 양국의 산업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국은 산업인재 교류와 협력을 위한 지원체제가 여전히 부족하고, 차별화된 인재육성 시스템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 지금도 기술보호·유출 억제를 위한 정책이 존재하고 글로벌 인재의 상대적 부족 현상으로 세계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한일 간 산업협력 강화를 통한 긴밀한 경제관계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양국

간 산업인재교류의 확대·발전에 공동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소통의 장(場)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全 제조업 분야 산업인재교류 활성화 방안」을 제언합니다. 먼저, 한일 간 우수 퇴직기술자·퇴직경영자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이 필요합니다. 양국 간 산업인재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호 강점을 극대화하여 취약부문을 보완하기 위해, 한일 양국 제조업 분야의 우수 퇴직기술자와 퇴직경영자를 공동모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화 된 통합 Data Base 구축과 이들 간의 상호 교류 수급시스템의 공동 구축을 제언합니다. 다음은, 한일 간 글로벌 전문인력 Innovation Pool 구축입니다. 그동안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온 제조업 분야의 '기술인재육성 사업'과 'R&D 인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등의 성과를 더욱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양국 간 산업인재 인프라를 더욱 확대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한일 간 현직 연구자와 기술자, 그리고 경영자와 차세대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통합 Pool」을 구축할 것을 제언합니다. 이러한 한일간 산업인력 교류분야는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로서 앞으로 보다 활발한 추가적인 연구와 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R&D협력과 인력교류 2개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2개분야인 「한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하는 생산네트워크의 새로운 구축」과 플랜트 자원개발 등의 제3국 공동진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내일 오후에 열리는 제2세션에서 상세히 설명될 예정이오니 첨부자료와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한일 양국의 공생 발전을 위해 논의·제언된 주요 과제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져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협력을 통해 서로 Win-Win하는 관계가 확대된다

면, 한일 협력이 크게 활성화되고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는 것이 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보고·제언사항’이 반드시 실천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석래 단장 : 감사합니다. 그럼 일본측 활동보고에 대해 사사키 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佐々木 幹夫 단장 : 그럼 일본측의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측 চে어맨이신 아소 유타카 아소라파즈시멘트의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소 유타카 চে어맨은 아시다시피 아까 기조강연을 하셨던 아소 타로 전 총리의 친동생입니다. 시멘트 사업 이외에도 의료, 교육분야에서 70개가 넘는 그룹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산업기술협력재단의 지역교류사업에 있어서도 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 부탁드립니다.

麻生 泰(ASO YUTAKA)
아소라파즈시멘트(주) 사장

좀 전 저의 친형인 아소 타로 전 총리가 기조강연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전통있는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올해 신산업무역회의의 개요와 일본측 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는 지난 3월 동경 호텔 오키라에서 일본측 29명, 한국측 24명 그리고 옵서버를 포함해 70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작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양국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양국



경제의 번영을 위해 필요하며,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안정축으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만,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이번 제13회 신산업무역회의의 주제였습니다. 이번에는 작년 이래 한일경제협회와도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회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의 회의는 한일경제인회의에 대한 자문기관적인 역할을 포함해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한편으로 최근 회의는 전문가의 발표회 자리라는 색채가 짙어 양국의 회원이 기탄없이 논의한다는 당초 목적이 희박해진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폭넓은 입장에서 본인의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부분에 주목해 각 분야의 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러분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이틀째는 참석자 전원에게 한 마디씩 발언을 하게 하는 새로운 시도도 하였고 많은 건설적인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의뿐만 아니라 양국의 경제인들이 서로 알게 되어 이해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노미케이션」 즉, 술을 마시면서 소통한다는 것도 설정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사키 회장님도 직접 참석해 주셨고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내용입니다. 저는 일본측의 발표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재팬클럽의 이사장이었던 아와야 츠토무씨가 앞으로의 일한경제협력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아와야씨는 이사장 시절에 국가경쟁력위원회의 멤버로서 이명박 대통령과 직접 핫라인을 갖고 계셨고, 일한FTA체결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등, 한국주재 시절에 대표자로서 많은 활약을 하였습니다. 회의에서도 높은 차원에서 가

일층의 일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쓰비시상사의 후지야마 집행임원이 발표하였습니다. 양국에 의한 제3국 공동진출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자원이 없는 양국이 하나가 되어 공동으로 자원개발에 노력한다는 아주 중요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공조해 산업설비 수출, 자원국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개발 원조지원을 선진국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하였고, 양국이 공동으로 제3국으로 나가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쓰비시상사가 한국가스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LNG개발을 사례로 소개해 주셨고, 공동으로 글로벌전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의 야마자키 상무이사가 일한산업기술교류의 방향이란 테마로 발표하였습니다. 야마자키 상무이사는 작년에 일한경제인회의에서 합의된 몇 가지 중요한 과제 즉, 서플라인 체인의 재구축, 대한투자, 그리고 진출의 추진, 지역간 교류 등을 양국의 재단사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었습니다. 역견본시 실태, 상품전시회 개최를 양국이 공조해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였습니다. 올해로 4번째가 되는 일본기업의 방한미션, 큐슈, 호쿠리쿠지역과 한국지역간 교류현황 등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양국 공동으로 제3국에 진출하는 사안에 대해 현장시찰단의 파견등 새로운 전개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오카 마사유키 월드플래닝 사장님이 한일 양국의 공동문제인 고령자의 케어전문자격제도의 표준화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간병 수발을 포함한 의료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상황에 있는 양국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일한재단의 사업으로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다룰 것이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쿠호도 토마리 상무로부터 지진후 1년을 경과한 피해지의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논의도 중요하지만 논의 이상으로 결과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제안들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꼭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미에서 양국의 재단이 적극적으로 공동성명의 합의사항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현재 준비중인 4건을 포함해 일본측으로서 지금까지 30건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번 화제가 된 고교생교류캠프를 18번에 걸쳐 실시했습니다만, 실제 상황을 동영상으로 보시는 것이 이해에 도움될 것 같아 작년 오사카에서 있었던 교류캠프 상황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보신 바와 같은 형태로 18살의 1,600명의 학생들이 교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캠프기금은 올해로 끝나게 됩니다만, 여러분의 이해로 계속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국 젊은이들이 만나고 평가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佐々木 幹夫 단장 : 아소 사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양 체어맨으로부터 신산업무역회의의 활동상황과 제안등에 대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교생교류캠프 소개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질문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래 단장님 어떻습니까?

조석래 단장 :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佐々木 幹夫 단장 : 그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 그러면 신산업무역회의 보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한일·일한경제협회를 대표해, 한 해동안 실시해 온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경제인회의가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당초 예정보다 5개월 늦은 작년 9월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인회의는 7개월만에 개최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단 일부 중지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업도 있었지만, 여러분의 협력으로 큰 문제없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사항은 일반경과보고 자료로 대체하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6시 30분부터 리가로알 호텔 3층 로얄홀에서 양국 협회주최의 환영리셉션이 개최됩니다. 오사카부의 마쓰이 지사님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6시 20분부터 두 분 회장님께서 홀 입구에서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통역 리시버는 테이블에 놓고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9시부터 제1세션이 개최됩니다. 감사합니다.

(2) 일반경과보고(협회활동) 서면 보고

I. 한일·일한경제협회 공동사업

1.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11년 9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개최. 한국 측으로부터 조석래 단장 등 187명, 일본 측으로부터 佐々木幹夫 단장 등 121명이 참가

2. 한일 청소년교류사업

(1) 한일고교생교류캠프

① 제17회(2011년 8월, 한국 서울)

참가자 : 96명

당초는, 동 시기에 일본에서 개최 예정이었지만,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장소를 서울로 변경하여 개최

② 제18회(2012년 2월, 일본 오사카)

참가자 : 100명

과거 18회까지의 총 참가자 수 : 1,678명

③ 제19회는 2012년 7월, 한국 서울에서 개최 예정

(2) 한일학생미래회의

① 제6회 한일학생미래회의(2011년 8월, 한국 서울) 참가자 : 36명

② 과거 6회까지의 총 참가자 수 : 191명

③ 제7회는 2012년 8월, 한국 서울에서 개최 예정

(3) 한일교류광장

제1회 한일교류광장(2011년 12월, 한국 서울) 참가자 : 127명

한일고교생교류캠프 OB/OG의 동창회를 처음으로 개최

(4) 본 사업은 한일 청소년교류사업으로써 평가를 높이 받아 2008년도부터 일본 외무성의 예산을 받아 「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 대교류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나, 2012년 3월 말로 이 교류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자금적인 면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3. 제13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본 사업에 대해서는 양국 체어맨이 앞서

별도 보고·제안 드린 바와 같음

II. 일한경제협회 단독 사업

1. 일한경제심포지엄

한일의 경제교류를 비롯한 양국의 한층 더 긴밀한 관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여 2011년도에도 개최 예정이었으나,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개최를 중지하였음. 금년도는 11월에 동경에서 개최를 예정하고 있음

2. 조사·홍보 활동

회원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로써 이하와 같이 실시. 향후, 더욱 확충 예정

(1) 회원 대상 기관지의 발행

- ① 협회보(월간)
- ② 일한경제협회통신(주보)
- ③ JKE 리포트(부정기)

(2) 협회 홈페이지의 충실화

협회의 홍보수단으로써 홈페이지를 충실화하여 접속건수가 증가

III. 한일경제협회 단독 사업

1. 한일 및 한중일 지역간 경제협력

한일 및 한중일 지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3개의 지역간 경제교류 회의를 통해 관련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산업기술 협력, 비즈니스 매칭, 전시회 상호 파견, 기술자 연수, 산학관 제휴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 고자 노력

(1) 제12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1. 9. 5(월)~7(수), 경상북도 경주시
- 목 적 : 한국 동해안 지역과 일본 호

쿠리쿠(北陸)지역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지역별·업종별로 서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유무상통(有無相通)하는 상호 보완적 경제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무역·투자·산업기술 협력의 확대를 도모

- 참가자 : 양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 관계자 등 99명
 - 2000년 토야마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2년간 총 2,015명 참가 (韓 838명, 日 1,177명)
- 내 용 : 한일 양국 지역 간·기업 간 교류협력 사례발표 및 제언
의료융복합·농수특산물 가공식품 전문분과회 개최

(2) 제18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1. 11. 15(화)~11. 18(금), 대전광역시 대전컨벤션센터
- 목 적 : 한국 남부지역과 일본 큐슈(九州) 지역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무역·투자·산업기술 협력을 확대
- 참가자 : 양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 관계자 등 54명
 - 1993년 기타큐슈시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8년간 총 2,050명 참가 (韓 850명, 日 1,200명)
- 내 용 : 한일 중소기업 간 경제교류의 확대(환경·IT·인재 등), 비즈니스 교류촉진, 지역 간 경제교류의 적극적 지원 등 3개 의제 논의

(3) 제11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1. 11. 15(화)~11. 18(금), 대전광역시 대전컨벤션센터
- 목 적 : 한중일 환황해 지역에서의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고, 환황해권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 자유무역권 구

상의 기반을 구축

- 참가자 : 3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 단체, 대학, 기업 관계자 등 414명
 - 2001년 후쿠오카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1년간 총 4,148명 참가 (韓 1,121명, 日 1,610명, 中 1,417명)
- 내 용 : 환황해 지역 간 교류 촉진 및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분야별 포럼 및 개최지역의 전시회, 상담회 등 각종 사업을 동시 개최

2. 정보제공 서비스 실시

회원에게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로써 아래와 같이 실시

(1) 회원 대상 기관지의 발행

- ① 한일경제협회 소식지 발행(2회)
 - 협회 사업안내 및 실적, 회원 동정, 일본의 뉴스, 기획연재, 한일 통계 등
- ② 주간일본동향(Japan Weekly Digest) 제공(매주)
 - 금주의 이슈, 일본 정·재계 소식, 기업 동향,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 등
- ③ 일본지식리포트 제공(수시)
 - 경제통상, 산업기술, 비즈니스, 정치 외교, 사회문화
- ④ 조사 및 연구보고서 제공(부정기)
 - 협회 사업 개최결과 보고서 등

(2) 회원사 간담회 개최(2회)

회원들의 일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저명강사를 초청하여 강연과 의견교환을 실시

- ① 제5회 회원사 간담회(2011년 5월 27일/서울)
- ② 제6회 회원사 간담회(2011년 9월 6일/경주)

3. 한일 친선교류 활동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와 친선증진·경제협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주한일본대사관·SJC와 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및 친선교류활동 실시(총 6회)



5. 제 1 세션

테마: 「세계경제의 불안정 심화와 한일 협력」

사회 【森賀 弘(MORIGA HIROMU) (사)일한경제협회 사업기획부장, 이하 동일】 : 이른 아침부터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된 일한경제협회 사업부장인 모리가 히로무입니다. 오늘 회의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됩니다. 갖고 계시는 리시버는 채널4번이 일본어, 5번이 한국어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핸드폰은 진동모드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계경제의 불투명 심화와 한일협력」이라는 테마를 다루게 될 제1세션의 코디네이터와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이신 이경태 고려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OECD대표부 대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원장 등 요직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발표자입니다. 최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님, 박철 리딩투자증권

회장님, 후지야마 토모히코 미쓰비시상사 집행임원,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상석주임연구원님을 소개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일관계에 식견이 풍부한 저명한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구미, 중동, 아시아에 있어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일 양국 연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표는 15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경태 좌장께 이후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좌장 【이경태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이하 동일】 :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한일 양국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일경제인회의에 여러번 참석한 바 있는데 제가 느낀 바를 솔직히 말하면, 해마다 아주 중요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또 정부에 대해 건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실행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일이 말대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작년 43회 회의에서 한일 양국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키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합의를 실천키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44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세션의 주



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한일협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어제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와 오늘 아침뉴스에서도 나왔지만, 그리스의 연정구성 실패에 따라 앞으로 그리스가 유로지역에서의 탈퇴여부와 이에 따른 유럽경제와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새로운 불확실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것은 오히려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이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고 경제의 공동번영을 이룩해야 할 필요성을 더 크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도 있듯이 한일 신시대의 협력이 개막되고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일 협력에 대한 연구사업에 오래 전부터 참여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1999년도로 기억하는데, 한일FTA를 위한 사전공동연구를 그 당시 제가 있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일본의 아시아개발연구소와 공동으로 시작하였고 제가 한국측 책임자였습니다. 동경에서 연구주제를 정하는 첫 회의가 열렸는데, 일본측에서 농업분야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 끝에, 이 회의는 협상이 아닌 연구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 농업분야도 연구대상에 포함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동아시아비전그룹이 창설되고 제가 한국측 위원으로 참석해서, 동아시아지역에서 장기적으로 경제공동체를 구축해 가야 하는데 그 첫걸음으로서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자는 건의를 동아시아 지도자들에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일FTA를 위한 산관학공동연구회가 2010년부터 작년까지 진행되었는데 제가 무역

협회 멤버로서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동아시아지역에서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그 실행속도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EU의 경우 지금까지 오는데 거의 5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럽 재정위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한 가지 배우고 있는 것은, 경제통합이라는 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무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유로통화를 발족하고 유로통화로 통합하는데 유럽의 정치적인 의지가 많이 작용한 것으로 그 저변에 있는 경제논리를 등한시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앞으로 한일협력과 아시아의 협력을 하는데 있어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갔으면 합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어제 많은 분야에서 한일협력의 가능성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FTA를 통해서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자고 강조해 왔는데, 어제의 내용을 보면, 자원에너지의 개발, 새로운 공급망 구축문제, R&D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한 신성장산업의 육성문제, 개도국에 대한 지원협력, 심화되는 리스크의 공동대응문제,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대응, 앞으로 세계경제 질서의 축이 아시아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어 한국과 일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인력 교육문제 등 새로운 분야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세션에서는 불확실성 하에서의 금융협력 문제라든지 글로벌화에 따른 리스크 문제, 세계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등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하고 여러분과 토의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광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와 대학교 동기입니다만,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셨고 메릴랜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을 역임하고 1997년도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한국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최광교수께서는 한일관계에 대해 좀더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세계경제의 불투명성 심화와 한일협력』

최 광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수



방금 소개받은 최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직업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제가 학생들에게 가장 존경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룹이 기업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에서 교수생활도 해 보고 많은 학술발표도 했지만, 이렇게 존경하는 한일 양국 기업인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것이기에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정치인의 역할이 절대라고 생각하며, 정치인은 문짝, 부품 하나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같은 삶을 영위하는 것은 바로 기업인 여러분들이 밤잠을 설치며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세계경제의 불투명 심화와 한일협력』입니다. 사실 한일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제안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새롭고 더 나은 제안이 나올 여지는 있겠지만, 이미 나온 제안을 잘 위

어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 아니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평상시에 느꼈던 점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내년에 정년퇴직입니다만, 새삼스럽게 제가 뭘 안다고 이렇게 새로운 것을 내놓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선대들, 일반시민에서 위대한 사상가들이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이미 답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역사에 모든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역사를 잘 반추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은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역사에 대해 생각보다 무식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느 나라든지 국민 개개인부터 지도자들의 바램은 한 마디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것입니다. 치국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국안민」이 모든 바램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과 제도와 사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에 있어서는 지도자가 매우 중요하고, 사상에 있어서는, 물론 개념적으로 보면 자유, 평등, 박애인데 저는 오늘날 인류를 이 자리에 까지 오게 만든 것은 자유라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평등을 강조했던 조직과 사회는 결국은 몰락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나라에서는 평등이 자유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이나 제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라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 원인은 이 모든 번창의 주역은 기업인과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

러분들이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기업인들이 주역의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한 나라마다 흥망성쇠가 다 있는데 「흥」이란 스테이지에 도달했을 때 가만히 관찰해 보면, 가장 공통적인 것이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자본과 기술이 유입될 때 그 나라는 번창했다는 점이 공통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본이나 기술이 자기 나라로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웃 일본을 왕래하면서 직간접으로 본 일본과 일본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대륙문명권에서 벗어나 해양문명권의 태평양을 주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1945년 해방이후에 태평양을 주시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오늘날 잘 나가고 있어 비즈니스는 하고 있지만 중국만 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본질을 놓고 보았을 때, 중국이란 나라가 제도를 새로 만들어 낸 것이 없고, 가치를 새로 창조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 아시는 공자의 인,의,지,예,신 등이 있지만 중국의 이런 가치들이 오늘날 인류를 이렇게 번영하게 만들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라든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오늘의 인류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일본인 개개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대단한 혼과 덕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화폐에 등장하는 3분의 인물도 있고, 이시다 바이칸의 근로 정신에 대한 얘기도 있고, 사카모토 료마도 있고,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21명의 학동을 키워낸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시다 쇼인은

중급 사무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국가미래를 위해서 참으로 큰 일을 한 일본인의 저력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한국 기업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을 보는데 있어 2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시경제 체제」 또 하나는 「일본이 세계적인 전략구상의 설정에 실패했다기 보다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4번의 국제적인 전쟁을 치루었는데, 일본의 노구치 유키오 교수는 1960년대에 미국경제학회에서 일본경제를 전시경제체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시경제체제로 갈 수 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그 잠재가 아직도 일본 구석구석에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시경제체제는 전쟁시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6.25때 침입받은 것을 빼고는 전쟁을 한번도 치룬 적이 없는데도 이 일본의 전시경제체제를 80년, 90년대까지도 도입하느라 엄청 애를 썼다는 것이고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번째는 전략전술 부분입니다. 일본이 전세계에서 G10의 위치에 도달했을 때, 앞으로 G2나 G1이 되면 세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고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명치유신 이래의 150년, 아니면 자비에르 신부가 표류를 한 시점부터의 460년을 보더라도 일본에게 주어진 전략은 바로 「캐치업」입니다. 따라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술을 잘 구사해서 G2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훨씬 전부터 세계에 대한 새로운 가치창출이라든지 전 인류를 구원하는 사고를 했어야 했는데 놓쳤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다음 일본은 한국에 있어 언제나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

니다. 한국의 일부 학자나 국민들이 반대할 지도 모르지만, 저는 일본이라는 이웃이 있었던 것이 한국에게는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필요하다 했고 미국은 사실 자기논리에 의해 한국을 필요로 했습니다만, 그럼 과연 일본에 있어 한국은 꼭 필요한 존재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식민지 지배에 관해서는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면 전쟁중에도 기업인(상인)들은 거래를 하였습니다. 한일관계에 있어 과거가 어떻든 간에 지금은 기업인들이 상호의 이익에 따라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석춘 사회학자가 쓴 재미있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식민지배가 있었음에도 왜 한일관계만 별난 것인지에 대한 통계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요체는 기간은 가장 짧은데도 응어리는 크다고 하는 내용은 결국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식민지 주체가 후진국인지 선진국인지에 대한 문제와, 또 하나는 식민지배에 있어 개입하는 제3자의 유무 문제입니다. 동남아 대부분의 경우는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 응어리가 없는데 반해, 한일관계는 매개체가 없어 응어리가 컸다는 것입니다. 다음, 한국과 일본의 경제와 재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슬라이드도 중요하지만, 발표를 위해 쓴 20페이지의 풀텍스트 논문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점이 있습니다. 경제현상을 놓고 많은 변수와 지표들이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가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GNP, 성장, 인플레이, 외환들이 아니라 저축과 투자라고 봅니다. 저축은 개인이나 가계의 정신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투자는 기업의 정신상태, 활력의 지표라 생각합니다.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불행하게도,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두 가지 지표가 2000년경부터 침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축을 보면, 10-20%대였던 것이 지금 2-3%대로 떨어졌고 이것은 OECD 평균의 반밖에 안됩니다. 국민연금 등의 제도적인 요인도 작동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결국은 각 나라의 국민들이 자기 삶을 어떻게 영위하느냐 하는 결과가 저축율의 하락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 투자부문(기업의 시설투자)입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년을 보면, 전년도보다 다음연도에 마이너스가 된 해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재정문제입니다. 80년대 일본은 재정재건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수상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의 일본재정은 재건정도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정도입니다. 사실 제 전공이 재정학입니다만, 일본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한일협력을 하기위한 몇 개의 지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것이 각각 1,300억 달러, 1,400억 달러이고, 해외로 나간 것이 각각 1,900억달러, 8,800억달러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그 나라에 들어오면 좋다고 했는데, 일본의 경우 해외로 나간 것은 많은데 들어온 것은 적습니다. 중국의 경우, 지금 잘 나가는 것이 자기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기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세계기업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으로 와서 잘 나가는 것이지 자체 실력으로 잘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경쟁력에 관한 지표를 보면, 대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두 나라의 정부가 문제입니다. 저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재원의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한

다고 보며 이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불행히도 정부지출낭비, 규제부담, 정책투명성 부분이 심각한 지경에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일협력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답이 있는게 아니고 답은 이미 과거에 나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잘 꾸려 나가느냐,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태평양을 주시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두 나라는 지금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경써야 할 것은, 현안인 외교문제, 국민감정 문제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두 나라의 지도자와 국민, 기업인들의 머리속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외교와 협력하는 사고가 박혀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력에 있어 중요한 것을 다시 강조드리면, 기본적으로 한일협력의 핵심은 기업과 기업인들이지 정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정부가 나서면 결국 정치가 개입되어 경제문제가 잘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치와 경제가 미스매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3월의 대지진으로 인해 한일협력의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일본인들이 폐쇄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출구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중FTA가 진행되면서 한중일 통화의 통합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연횡이라고 생각됩니다. FTA는 결국 기본적으로 기업과 개인들의 거래입니다. 그런데 이 통화라는 것은 정부가 관리한다는 면에서 통합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피터 드러커가 기업경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doing

the right thing(효과성), doing things right(효율성)라 하는데, 한일협력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구슬들이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조직이나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right thing(올바른 일)을 골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두 나라가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판단이고, 꼭 그렇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네 아마 최광 교수님이 하실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 제약 때문에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나중 토론 시간에 질문을 받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너무 지엽적이고 근시안적인 문제에 매달려 크고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통이 크게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말씀과, 협력의 주인공은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한일 기업인들이 같이 모여 방안을 논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것이 정부를 리드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 정치를 너무 믿지 말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박철 회장님께 금융협력에 대한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박철 회장님은 한국은행 부총재를 역임하고 현재 리딩투자증권 회장으로 계십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세계금융의 불안정과 동아시아 역내 금융 안정을 위한 한일협력」

박 철
리딩투자증권 회장

먼저 기조연설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훌륭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논의내용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많은 의미있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일 경제협력을 위해 애써주신 기업인 여러분들에게 경의



를 포함합니다. 아직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또 작년에는 유럽 국가의 채무위기가 발생해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한 중요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금융의 불안정이 아시아 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어 한국과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역내국의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금융안정을 위한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금융의 불안정이 아시아 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위기는 미국의 금융시스템과 유럽의 제정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일입니다. 역내 아시아국가들은 위기를 일으킨 장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인 미국이나 유럽 못지않은 영향을 받아 무고한 피해자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한 국가 또는 지역에 발생하는 위기는, 무역경로와 금융경로를 통해서 다른 국가와 지역으로 파급되고,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통해서 위기가 심화되는 메카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무역경로는, 한 지역의 위기가 교역위축과 경기둔화를 통해 글로벌위기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무역의존도가 높고, 이에 따라 해외의 수요충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무역경로를 통한 위기전염 효과를 크게 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신흥국들의 GDP대비 무역의존도를 보면, 말레이시아 153%, 태국 119%, 한국이 88%에 달하고 있어 일본을 제외하면 미국, 유로지역과 비교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역내교역보다 역외교역 의존도가 높아서 이번 위기와 같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생한 충격에 더욱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아시아역내무역 의존도는 꾸준히 증가해 2010년에는 40% 중반까지 상승했지만, 유로 또는 북미지역에 비해서는 역내교역의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에 대해 역내국가들이 중국으로의 부품소재 수출을 통해 미국이나 유로지역으로 간접수출하는 점을 감안하면, 아시아 역내국의 실질적인 역내무역 의존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수출의 26%에 달하지만, 이 중 부품소재 수출이 2/3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 중 상당부분이 중국에서 가공되어 미국이나 유로지역으로 다시 수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금융경로는 역내국가들이 글로벌 위기사 급격한 외자유출과 이로 인한 주가하락 및 환율의 급변동 그리고 외화유동성의 부족이라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가정을 말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역내국가들은 대외금융 익스포저가 높고, 지역별로 미국과 유럽등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경로를 통한 위기전염 효과가 즉각적이고 충격적으로 나타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주식투자를 포함한 총대외부채 의존도는 GDP대비 81%에 달하고 있고, 이 중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70%, 은행차입금의 60%가 유럽 및 미국계 자금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BIS통계를 이용해서 역내국가들의 글로벌 은행자금 의존도를 지역별로 분석해 본 결과, 60%정도가 유럽 및 미국계 은행자금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세계금융위기가 실제 역내 실물경제와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역내각국은 리먼사태 이후 역외지역등에 대한 수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율이 큰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물론 역내무역도 역외무역과 함께 동반위축이 되었으나, 2010년 이후 역외무역보다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진앙지가 아니고 기존의 경제편더멘털이 상대적으로 건전한 역내국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을 함으로써,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요충격을 역내무역이 상당정도 완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위기가 역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 리먼사태 직후 4개월동안 은행차입금 등 단기부채가 급감하는 등, 외국자본의 급속한 이탈을 경험했습니다. 동기간중 외국인자금 유출규모가 약 700억달러에 달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유출규모 220억달러의 3배를 상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기간중 외환보유액도 400억달러 이상 감소했으며, 직전 고점대비 600억달러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유럽의 재정문제가 악화된 작년 7월이후 6개월동안 유럽계 자금이 200억달러 유출되는 등, 외국인자금의 이탈현상이 재현되었습니다. 그런데 동기간중 비유럽계 자금은 한국의 외환건전성 부담금제도의 도입 등 거시건전성 정책의 추진과, 외환보유액의 확충 등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120억달러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유출로 아시아 역내국가의 주가는 리먼사태 직후 61%, 작년 유럽국가 채무위기 악화 이후에는 29%가 하락함으로써 선진국 주가보다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또한 역내국가의 CDS프리미엄도 크게 상승해서 국가신용위험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역내국가의 차입비용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편 위기기간중, 엔화는 안전통화 선호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한국 원화를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 통화는 대폭 약세를 보였으며 그 변동성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리먼사태 발생 이전에 약 1,000원-1,100원 사이에서 움직였으나, 리먼사태 이후 가파른 상승세로 전환해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2009년 3월에는 1,570원까지 약 50%정도 절하되었습니다. 원 달러 환율변동성도 리먼사태 이전의 0.34%에서 1.69%로 5배 가까이 확대되었습니다. 또 이런 현상은 작년 유럽재정 악화시에도 일부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통화가치의 급격한 절하는, 일시적으로 수출에 도움이 될 구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 통화불안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위험의 증가, 대외차입 여건등에서 금융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외화자산은 주로 중앙은행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외화부채는 은행과 기업등 민간에 집중되어 있어, 원 달러 환율이 상승시에 민간의 외채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경로를 통한 위기전염 현상은, 작년 유럽재정 위기 이후에도 재현되었지만, 그 충격의 정도가 아직 리먼사태 이후에 비해서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국가채무위기가 정책대응의 실기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될 경우 아시아 역내국에도 리먼사태에 버금가는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금융안정을 위한 역내국간의 협력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국가들은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고, 특히 미국 및 유럽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금번 위기사 그 전염효과가 위기의 당사국이었던 19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전염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역내각국

이 교역, 투자 및 금융거래 측면에서 역내 거래를 확대하는 등, 지역의 다변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다변화를 위한 3가지 정책과제를 들자면, 역내교역의 확대, 역내 자국통화에 의한 무역결제 확대, 역내 자본시장의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첫째로, 역내교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한중일간의 FT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NAFTA와 같이 아시아지역 전체차원의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역내국가들의 환율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역내각국이 무역결제시 자국통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아직 역내국간의 초보적인 논의단계에 있고, 여러 현실적 제약요인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회의에서는, 미래과제의 하나로 로컬 커런시(LOCAL CURRENCY)를 활용한 무역결제 방안을 연구중에 있어 향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한중일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역내의 풍부한 자금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역내투자 자금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역내자본시장을 통한 상호투자를 확대하여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0년대 중반이후, 역내통화표시 채권의 수량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국채시장을 중심으로 역내상호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작년 유럽재정 위기시에는 역내의 채권시장에서 유럽자금이 유출된 반면에, 아시아 자금은 유입되어 외국인자금 유출효과가 일부 상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내국채 시장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 한중일 3국은 사전정보제공의 제도화등 국채상호투자의 프레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국채시장뿐만 아니라 작년 유럽재정

위기사 한국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사무라이본드 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등 회사채 시장에서도 역내자금의 역내환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소기업들이 역내통화표시 채권의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 확충, 역내국경간 채권거래에 관련된 규제 및 관행의 표준화, 역내증권경제기구의 설립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역내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한일경제인회의에 양국 금융인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구체적인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역내 공적금융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역내국가들은 민간차원에서 여러 가지 협력강화가 이루어지겠지만, 외부충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국가들이 국제통화 국가가 아니라는 원죄로 인해서 세계금융불안시 역내국은 외환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무고한 피해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역내통화 스왑, 상호 외화 유동성 지원장치 등 공동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부 및 중앙은행 당국자간의 역내협력이 긴요합니다. 한중일 3국은 2008년 금융위기는 물론, 작년 유럽국가 채무문제가 악화되었을 때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한일양국은 통화스왑 규모를 300억달러에서 700억달러 상당액으로 확대하고, 이 중 300억달러는 원 엔 스왑이 아닌 원 달러 스왑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간에도 원 위안 통화스왑을 1,800억 위안에서 3,600억 위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 외환 유동성 부족의 우려를 크게 완화

시키고, 차입선을 다변화하는 효과를 가져와 외환시장 안정은 물론 국가신용등급 전망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역내통화 협력에서 국제통화 국가인 일본과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의 전향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한편, 아세안국가와 한중일 3개국이 상호 달러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3월에 발효된 치앙마이 다변화 이니시어티브(CMIM)규모도 지난 마닐라 모임에서 1,2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IMF의 PCL과 같은 위기예방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등, 그 기능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하였습니다. 치앙마이 이니시어티브는 역내 중앙은행간 통화스왑과 함께 지역금융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향후 CMIM의 기능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리더쉽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아시아 역내 시장국들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였지만, 그 성과는 위기 직후인 2000년 5월 CMIM에서 보는 바와 같은 아주 초보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세계의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역내국들의 금융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지역차원의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역내 금융협력은 회원국 상호간 서로 잘 파악하고 있고 상호간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신속한 자금을 지원하는 가능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역내금융 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신흥 시장국의 과도한 외환보유액 축적요인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일통화 스왑의 확대는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뿐 아니라, 일본의 입장에서

상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이같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제 통화 국가인 일본의 전향적인 역할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아시아 각국은 요역, 투자, 통화 및 금융거래에 있어서 역내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일본과 한국이 서로 협력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당국자 뿐만 아니라, 민간 경제인, 금융인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상호신뢰와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점에서 한일경제인회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서 아시아 역내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아시아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한국에서 무역하시는 분들의 외환 부문의 가장 큰 어려움은 원화환율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고, 일본에서 무역하시는 분들은 엔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역내 통화가치 안정을 위한 역내협력이 더욱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기업인들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내통화 결제의 비중을 높이자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역을 하는데 있어 달러화, 유로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일본은 엔화결제 비중이 한국보다 훨씬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역내통화 결제비중을 높여감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부터 역내무역을 좀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정부에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일

본측 두 분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먼저 후지야마 토모히코 미쓰비시상사 집행임원께서 「글로벌리즘과 리스크 매트릭스」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후지야마씨는 동경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쓰비시상사에 입사해 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을 거쳐 현재 집행임원으로 활동중입니다. 그럼 발표 부탁드립니다.

「글로벌리즘과 리스크 매트릭스」

藤山 知彦
(FUJIYAMA TOMOHIKO)
미쓰비시상사 집행임원



오늘은 글로벌리즘과 리스크 매트릭스라는 특이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글로벌리즘이 각 지역의 리스크를 야기한다고 합니다만, 오늘은 그 정반대입니다. 세계화 자체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경제의 현상 차트를 보면, 세계명목GDP는 70조달러, 인구가 70억명, 그리고 70조달러의 구성을 보면, 대체로 EU가 세계경제의 1/4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5, 중국이 1/10 그리고 일본과 한국을 더하면 1/10정도가 됩니다. 글로벌리즘이라는 것은 세계경제의 크기로 논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숫자들을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숫자의 추이에 따라 세계가 움직이고 있고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일본과 한국은 서로 대면하게 되면 「차이」가 강조되곤 합니다. FTA를 하게되면 우리쪽이 손해보고 상대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닌 가 하는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규모의 글로벌리즘 관점에서 보면, 일본과 한국은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이 어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양국의 경제구조가 가까울 뿐 아니라 글로벌리즘의 격류속에 들어가는 역사도 일본이 조금 더 일찍 들어갔지만 유사합니다. 회계기준, 자본시장 메카니즘과 같은 룰로 아픔을 수반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 97년 이후 IMF시기에 상당히 고생하면서도 급격한 글로벌리즘속에서 대응을 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양국은 아시아의 선진국이 되었고 주요멤버로 자리잡았다는 면에서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오늘의 메시지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글로벌스탠다드, 글로벌리즘은 심한 동요를 하고 있고 그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보발신면에서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글로벌 리스크 매트릭스를 논의해 한국과 일본이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처방안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양국 공동으로 리스크대응을 위한 액션의 사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세계경제의 구성변화를 시간적, 역사적으로 보겠습니다. 1980년경 선진국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1%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경에는 73.4%, 2010년에는 59.1%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수년내에 선진국이 차지하는 세계GDP의 비율은 50%를 밑돌 것입니다. 남은 50%이상을 이제부터 발전하려고 하는 나라들에게 지금까지의 룰을 강요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글로벌 룰이란 무엇인가? 아마도 시장주의, 자본주의가 하나의 큰 전제가 될 것이고, 민주주의, 개인의 인권이 두 번째로 큰 전제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성일 것입니다. 이 3가지가 큰 요소이고, 이것을 지탱해 온 것은 그리스, 로마등의 구미에서 만들

어진 리버럴아츠 지식의 축적이라는 전통이 아닐까 생각되며, 바로 이 4가지가 글로벌스탠다드일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도 이 흐름속에서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장주의를 보면 거품의 발생과 붕괴를 막을 수 없는 상태이고,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에 대한 공포심에 따라 좋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예를 들면, 전세계 핵과학의 활동, 생명윤리와 의학의 문제, 원전사고에 따른 원자력기술을 어떤 식으로 살려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 등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주의, 민주주의, 과학기술의 신뢰성이 앞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수정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문명사적인 조류속에 나중에 뛰어 들어가 입장이 유사한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스탠다드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시장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 보강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리먼사태 이후에 세계경제의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리먼사태가 일어난 후인 2008년 9월경 전세계적으로 신용불안이 야기되었고, 이를 구제한 것이 정부의 재정지출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계산으로는 세계 선진국과 중국에서 이루어진 재정적인 지원은 6조달러-7조달러였습니다. 세계GDP의 1/10이라는 금액이 정부에 의해 재정출동이 이루어졌고 이후 2009년부터 서서히 세계경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리스크가 일어났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시장을 살렸는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는 재정적자가 발생한 나라

가 생기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선진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만들어 세계경제를 견인해야 하는 과제가 또 있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파탄이 났고, 결국 선진국은 성장전략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리먼사태후 시장의 실패로 인한 금융제도의 개혁입니다. 상업은행에서 모은 돈을 투자 은행이라는 비즈니스모델에서 사용하게 되면 큰일난다는 자각으로 금융제도의 개선에 많은 진전이 일어났습니다. 은행의 건전성에 관해 미국, 유럽에서도 물이 만들어졌고, 펀드의 공개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먼사태 발생시, 펀드의 행동규제 자체가 필요하며 신용등급기관이 위기를 조장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유럽위기도 신용등급기관이 발표할 때마다 시장은 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먼사태후 선진국의 저성장과 신흥국의 고성장이라는 흐름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리즘의 주도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저성장의 요인이 되었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큰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리스크인 금융, 경제, 정치적인 리스크에 있어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불안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리스크문제와 정보문제 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글로벌스탠다드(시장주의, 민주주의, 과학기술의 신뢰성)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바드 교수가 세계문명포럼에서 말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흥하고 있는 인도나 중국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그럼 중국과 인도를 글로벌스탠다드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수정을 일본

과 한국이 제안하는 것이 문명사적으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리스크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리스크는 정치, 사회, 지정학, 국제제도 리스크와의 관계가 더욱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리스크의 크로스 보더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유가격을 예측하는 이코노미스트가 원유의 생산과 수요만을 보고 있어서는 원유가격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세계금융자산의 동향을 알아야 하고 정치적인 중동정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라 정치학자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제도, 지정학, 정치, 경제모두가 리스크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연재해 리스크도 있어 리스크 상황은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라는 것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정보가 되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있다는 정보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고, 어떤 주체에게 그 리스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리스크 매트릭스라는 개념에 대한 표입니다만, 세로방향은 리스크가 일어났을 때의 영향도를, 가로방향은 그 리스크가 얼마만큼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만, 제시된 개별적인 항목의 유무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유럽의 금융불안 출현의 확률이 10-30%의 중급으로 제시되었지만, 중급정도가 아니고 그 영향도는 훨씬 더 큼니다. 그리고 더 안좋은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이같이 글로벌 리스크 매트릭스를 늘 수정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는 한달에 한번 이상은 수정을 해야 하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수정에 있어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경우라면, 글로벌 거버넌스의 혼란, 미국의 세계관 후퇴 등은 매우 큰 리스크입니다. 물론 한국에게도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특별강연에서 후쿠가와씨가 위기 관리의 공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기관리라는 것은 정보수집 공유화와 분석의 공유화를 말하며, 이 분석의 공유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문명사적으로 가깝다면 양국은 리스크문제에 대해 정보수집체제를 하나로 통일시켜 서로 의견교환을 해야하고, 분석부분에 있어서도 자주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리스크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표에 제시된 팬데믹의 발생은 발생 가능성도 크고 그 영향도 크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나아가 중국과의 공조는 지금이라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글로벌 리스크 매트릭스를 각 나라에서 분석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발생시의 대책을 사전에 공유화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금융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로의 불안은 큰 문제입니다. 아마도 세계금융자산의 잔고는 약 230조달러라고 생각되지만, 세계GDP의 3-4배에 이르는 금융자산이 운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운용을, 리스크를 감수한 높은 이윤이 나는 방식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버블이 발생하기 쉽고 또한 그 버블이 꺼지기도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금융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금융시장을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일본과 한국의 입장에서 건전한 금융시장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말하는 것이, 앞으로의 가치를 지키기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금융면에서의 한일연대에 있어서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개선, 그리고 작년 노다총리의 방한시 한일통화 스와

프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한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과 일본의 이니셔티브 부분은 아직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중일 3국의 자금에 대한 위기에 방기능의 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만, 과제는 아직까지 산적해 있어 역할의 재검토, 금액의 재검토 등 본질적인 금융제도 개혁을 세계를 향해 발신해야 합니다. 신용등급기관 문제에 대한 논의는 구미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언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괄해보면, 첫째, 경제, 지정학, 정치, 사회 리스크는 조류변화의 과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리먼사태 이후, 성장전략의 방향성이 잘못되어 세계는 성장전략을 만들 수 없었고, 금융제도 개혁의 방향성도중에 중단되어 시장주의, 민주주의, 과학기술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동요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경제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경제리스크는 지정학, 정치, 사회 리스크와 더욱 더 긴밀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 일본과 한국은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정보수집체제와 분석체제를 공유화시켜, 향후 대책에 대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한일 양국은 가깝고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가치관을 크게 만들어 세계에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중일FTA도 한국이 먼저 진전시킨다는 것도 좋습니다만, 일본과 한국이 먼저 진전시켜 같은 기반을 튼튼히 하고 그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동시에 한중일, 한일이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세계에 일본과 한국의 목소리가 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한일FTA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갖고 계신다는

점을 어제 발표에서 들었습니다만, 기대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흥미있는 주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
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를 수정해 가야
하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은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당과 야
당이 내건 공약을 보면, 가장 중요한 화두
가 복지를 확대하고 한국사회를 공정한 사
회로 만들고, 또한 기회균등한 사회를 만
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후지야마씨가
말씀하신 성장전략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
습니다. 지금 일본도 거의 20년 이상 저성
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성장전략을
새로이 발전하는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 있
어 가장 시급한 공동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본측 무코야마 히데히
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주임연구원께 발
표를 부탁드립니다. 『글로벌화속에서
강화되는 한일 경제관계』라는 제목으로 발
표해 주시겠습니다.

『글로벌화속에서 강화되는 한일경제관계』

向山 英彦

(MIKOYA HIDEHIKO)

일본종합연구소

상석주임연구원



시간관계상 다른 분하고
접치는 부분은 생략하고 말
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한국의 거시경
제를 분석하고 있는데, 때로는 따뜻한 눈으
로, 때로는 신랄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한일의 경제관계가 최근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은, 여러 가지 리스크와 그 리스크와 관련
된 한일간 협력에 대해서, 나아가 아시아속

에서의 협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한 오후에 발표하시는 한일산업기술협력재
단의 이우광 위원의 발표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같이 들어주시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이 유기EL사업과 관련하
여 소니와 파나소닉이 제휴한다는 것이었
습니다. 이는 굉장히 시사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전제는 유기EL의
양산화인데 한국이 앞서가고 있는 부분입
니다. 삼성, LG가 올해안에 대형 유기EL
TV를 출시한다는데 일본도 캐치업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입니다. 10년전만 해도 이런
상황이 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과거에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
우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반대로 일본기
업들이 한국으로부터 배우려고 하고 있습
니다. 한국경제의 특징중의 하나는 글로벌
화입니다. 한국은 해외로부터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보다는 한국기업이 해외의 직접
투자자로 나서고 있고 투자는 늘어나고 있습
니다. 특히 수출비율의 증가, 해외투자의
증가가 2000년대 들어 아주 현저해지고 있
습니다. 그 배경은, 워낙 한국경제의 규모
가 작다는 점과, 외환위기후 한국의 국내시
장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상으로 저출산
사회로써 앞으로 한국의 국내시장이 더 축
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기업들이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신흥국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글로벌 전개에
대해 한국정부도 FTA체결을 통해 지원하
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
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한국정부가 FTA
체결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습디만,
2005년-2006년경부터 FTA체결 움직임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7월에는 EU
와 FTA에 대한 잠정적 발표, 그리고 올해

에는 한미FTA가 발효되었습니다. 한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특히 신흥국으로의 비중이 높습니다. 수출 구성을 보면, 지난 20년동안 크게 달라졌는데, 간단히 말하면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아까 이경태 좌장이 말씀하셨듯이 대미의존은 저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이 중국으로 생산거점을 옮기고 선진국과 유럽에 수출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대일수출은 많이 줄어, 2000년의 11.9%에서 2010년에는 6%로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대지진 이후의 특별수요도 있었고 최근들어 한국 제품이 일본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휴대폰(스마트폰), 음료(진로 막걸리),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애용하는 화장품 등이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선진국의 의존도는 줄어들고 신흥국에 대한 의존도는 커지고 있다는 재미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과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수출전체에서 차지하는 신흥국의 비율을 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본 이상으로 신흥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경제는 수출의존적으로서 성장의 원동력이 바로 수출입니다. 또한 수출확대에 따른 설비투자의 확대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해외의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수출동향을 보면, 세계경제의 침체로 한국의 대일수출이 줄어들고 있고, 경기가 좋지않은 유럽수출은 전년대비 마이너스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신흥국과 대미수출은 플러스입니다. 한국이 글로벌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리스크도 그대로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화, 금융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한국기업 혹은 한국경제의 글로벌화는 일본에게 지금 큰 플러스효과를 주고 있고, 또 일본의 대한수출 제품들을 한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 일본의 수출과 투자 대상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중국입니다만, 실은 일본의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들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수출선이라는 면에서 볼 때, 일본의 비중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그 반대입니다. 2000년도에는 일본의 전체수출중 6.4%만이 대한수출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8.1%로 늘어 1.7%포인트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일본의 대한수출중 소비재 수출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생산재의 수출이 많았습니다. 소재, 부품, 제조장치 등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했던 것들이 최근 들어 한국에 투자하는 식으로 그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이 일본 제조업의 투자대상이 된 것입니다. 10년-20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투자와 관련된 투자는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통계기준도 달라 어렵습니다만, 움직임이라는 면에서 보면, 작년 일본 재무성에서 작성한 일본의 대한투자액(NET기준)은 전년대비 2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신고기준)도 분기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3월에는 전년대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전 소재, 부품, 기계설비, 제조장비들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일본기업 입장

에서 한국기업은 고객이었고, 일본기업은 한국기업에 대한 서플라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기업이 적극적으로 글로벌 전개를 하면서 국내에서의 생산능력이 확충되다보니까 일본으로부터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내에서 현지생산해 납품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채산성이 맞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기업이 글로벌 전개를 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이 생겼고 한국기업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일본한테는 이익이 더 크고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환경의 코스트라는 면에서 예를 들면, 저렴한 전력비용 같은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한 결과, 한국에서 생산해 한국산이라는 형태로 EU와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관세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국내에는 일본의 고객기업들이 많아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도 하고 공급도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초엔화강세 현상과 환리스크를 줄인다는 면에서도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제조업 이외의 분야인 서비스산업에서도『유니클로』가 한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이 유치하려고 노력중인 부품소재 분야입니다. 한국기업이 성장을 하면 좋은 것이고, 또 하나는 정부가 지원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일본기업이 한국으로 많이 진출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기EL에 대해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R&D는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료도 한국에서 생산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 한일경제 관계의 전체를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 일본의 제조업체가 한국에 진출함으로써 일본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지만, 기업집장에서 보면, 일본국내는 차세대 제품개발로 특화시키고, 한국에서 생산한 것을 일본으로 역수출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동차산업은 일본의 제조업체가 큐슈쪽으로 생산거점을 옮기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제 부품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코스트가 비싸 한국산 부품과 한국산 철강 등을 수입해 자동차 생산에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네트워크가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한국제품이 일본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이 유기EL TV로서 일본에서 출시예정으로 있고 멀지않은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휴대폰도 한국산이고, 대학생인 우리 아들이 쓰고 있는 태블릿도 한국산입니다. 어쩌면 내년에 한국제 유기EL TV도 구입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반일주의자로 낙인찍혀 체포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 한국 사람도 내년쯤에는 아마도 유니클로 옷과 셔츠를 입고 일본 자동차를 타고 골프장으로 갈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더 굵게 더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한일 양국이 더 협력하고 행정부가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 토론)

좌장 :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토론을 할 시간입니다만, 토론시간이 약 15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의견을 말씀하실 분은 가급적 간략히 요점만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형 동서대학교 교수 :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일본이 크게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심각한 디플레이션과 미래세대와 현재 세대간의 격차문제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대간 격차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일본이 더 심각합니다만,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2020년경이 되면 일본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 봅니다. 말하자면 2030세대와 60대 이상의 세대간의 격차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는 비정규직, 정규직간의 임금격차 문제에 더하여 장래소득의 격차(생애소득의 격차)문제 때문에 2030세대의 불만이 누적되고, 또 이를 해결하느라 정치권에서 무상복지 시리즈를 남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장래의 투자를 결심할 수 없을 정도로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후지야마 집행임원과 최광 교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장의 실패에서 기인한 것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대간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젊은 세대들의 투표를 저조와 정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단절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세력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를 논하기 전에 민주주의 결함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과학기술의 만연등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지만, 역시 과거에 갖고 있던 훌륭한 문화적 유산이라 볼 수 있는 「모노즈쿠리」의 정신이 점점 희박해지면서 인테그랄 아키텍처를 디지털화 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 오늘날 일본의 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킨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일부 모듈화가 진전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의 훌륭한 모노즈쿠리 정신이 디지털화로 진전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제도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빨리 해결하는 것만이 일본의 유산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일본은행의 시라카와 총재가 있다고 한다면 한국에는 박철 전 부총재가 계십니다. 모처럼 나오셨으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금융위기라는 불안속에서 미국의 3차 양적 완화에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양적금융 완화의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문제의 전망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그리스의 구조조정 여부와 인플레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2가지 이슈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구조개혁에도 도움이 되면서 유동성도 적절히 공급해 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좌장 : 광범위한 질문인데, 첫째, 일본의 세대간 격차문제입니다.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양극화 문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때와 여론조사를 보면, 소위 2040세대라고 해서 20대에서 40대까지의 세대는 야당을 지지하고 있고, 50대 이상은 여당을 지지하는 분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대간 격차, 양극화 문제, 그리

고 민주주의 결함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의 최광 교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 광 한국의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저는 좀 전에 역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역사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노령화, 저출산, 그리고 세대간 격차문제 등은 우리 당대에만 놓고 보면 정답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인류의 긴 역사에서 놓고 보면, 큰 문제에 당면했을 때 시간은 좀 걸렸지만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우리가 나무나 연료가 없어진다고 걱정하던 시절이 불과 200-300년전 일입니다. 연료, 에너지문제도 시간이 다 해결한다고 봅니다. 세대간 얘기입니다만, 아주 오래된 알타미라 동굴벽화에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세대간 격차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처칠은 「민주주의는 가장 최악의 정치제도지만 이 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정치에 더하여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가의 역할은 경제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정치에 화합과 하나의 지향점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노령화가 되면 오히려 젊은 세대가 힘이 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노령화 세대는 그런 젊은 세대보다 잘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그렇다는 논리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도자의 지도력이라고 봅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놓고 볼때, 조선왕조 500년동안에 위대한 임금을 꼽으라고 한다면, 세종대왕 등 한 두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 60년 동안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에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그 당시에는 새롭지만 역사적으로 지내고 보면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지도자로 갈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상당수 해결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작은 문제는 인류와 함께 같이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을 긴장하게 만들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 봅니다.

좌장 : 일본국민들도 지도자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도 지도자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만, 후지야마 선생님, 세대간 격차문제라든지 양극화 문제를 민주주의 수준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후지야마 토모히코 미쓰비시상사 집행임원 : 민주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선진국에서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는 포폴리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의 하나는 중간층의 소수화, 소멸화, 일부 부자와 대부분의 가난한 자로 중간층이 갈라진 것으로서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있는 독립된 의견의 행사, 한 표의 행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간층을 어떤 식으로 다시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첫째 부분입니다. 두번째는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이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비실천적인 제도의 설명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철학적 의미의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것을 제대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민주주의라고 해도 직접 국민투표 같은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국정의 틈을 정하고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의 지도력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가 채무문제를 둘러싸고 국민투표를 한다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체 국민투표로 하는 것과 지도자에 의존하는 것 등 테마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 세가지가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장 : QE3문제와 그리스 사태가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부탁드립니다.

박 철 리딩투자증권 회장 :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전이되는 과정을 보면,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은행들은 자산의 부실화가 생기고 또 위험선호를 기피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기업이나 가계에 대출을 해주지 않아 유동성 경색이 생기고, 이에 따라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과정을 밟습니다. 따라서 금융위기시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은행을 정상화시켜 은행대출이 위기전의 정상상태로 움직여 주도록 하는 것인데, 1차적으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금리를 낮추어 은행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리스크 테이크를 하더라도 기업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 주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현재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모두 금리를 0%까지 낮추었지만 은행들의 대출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할 수없이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민간에게 직접 통화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만, 양적완화라고 해서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미봉책입니다. 은행이 빨리 자산을 건전화시켜 즉, 부실자산을 빨리 상각시키고 발생하는 자본부족, 다시 말해 BIS비율이 올라가도록 자본충실화를 기해야 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중앙은행

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메꿔 은행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미국은 상당부분 이런 식으로 은행이 점차 정상화된다고 합니다만, 유럽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합니다. 지금 미국이 다시 QE3를 한다는 것은 중앙은행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미국이 지금 2-3%의 성장률을 지속하는 한, 잘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절제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스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국가부도의 여부, 또는 유로존에서의 탈퇴문제입니다. 그동안 그리스 채무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대체적으로 그리스 구제금융의 패키지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채무의 반 정도는 투자가 즉, 그리스 국채를 산 유럽의 주요 은행들이 손실을 보고, 나머지 반은 EU등이 지원한다는 식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국가부도와 관련해 사실상 반은 이미 부도가 난 상태니까 이미 디폴트 상태, 즉 반디폴트상태입니다. 남아 있는 문제는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그리스가 이 구제금융을 계속 받기위해서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IMF위기 때 IMF가 우리에게 상당히 가혹한 여러 조건들을 제시했는데 그리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 조건은, 긴축해서 재정을 건전화하고 노동시장등의 구조개혁을 하고 정부가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긴축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다 받아들이고 구제금융의 딜이 끝났습니다만, 최근들어 여당의 선거패배로 인한 연정구성 실패, 그리고 유럽 전체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이미 상당한 경제침체에 들어 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갑자기 긴축에서 성장으로의 구호가 나오기 시작하고,

IMF의 가혹한 조건들은 결국 성장을 더욱 둔화시키고 경기를 침체시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에, 성장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정치적으로 설득력을 얻게되고 또 국민들이 긴축의 고통을 수용하려는 자세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국가부도 문제가 아니라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패키지가 무효화되고 결국은 유로존을 탈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리스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그리스가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낮기 때문에 잘 관리된 부도, 잘 관리된 유로존에서의 탈퇴도 할 수 있을 테지만, 잘 아시다시피 스페인, 이태리 등의 나라들이 안전할 것인지 등의 전염효과를 생각하면 결국은 유로존 전체가 붕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유로의 공식적인 의견은 유로존은 지킨다, 그리스는 유로존에 잔류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문제는, 1/4분기 유로존의 GDP가 마이너스 성장의 예상과는 달리 개선되었는데, 이는 독일효과로 인한 것으로서 유로존에서 독일과 기타 국가간의 성장률 격차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독일의 기본체력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유로화로 통합되면서 환율의 혜택을 독일 혼자서 수혜를 받고 있어 결국은 그리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해 다시 자국통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 본측에서 한 분만 질문 부탁드립니다.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회장 : 어제와 오늘 4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실제로 기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비즈니스 여건이 달라지면서 일본과 한국기업이 연계하여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경향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일기업 상호간의 경제 협력, 전략, 성장, 사업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양



국기업의 협력이라는 면에서 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양국의 기업간 협력은 걱정이 안되는데 농업분야가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한일 FTA의 추진이라는 면에서 한일 양국 모두 농업분야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농업분야의 종사자들이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국의 정부가 리드해 양국의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협력이나 연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장 : 네. 한국은 지금 농업을 개방하면서 첫째, 농민들의 피해보상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사업의 병행을 통해 농민들의 반대를 설득시키며 농업을 개방하고 FTA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목을 잡혀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이익을 주는 FTA를 하지 못하면 국민경제가 큰 피해를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한국과 일본간의 협력을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들어, 일본은 소고기같은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소고기 시장개방에 잘 대응하고 있고, 또한 과수분야에서도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일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을 같이 개발하는 공동노력이 필

요합니다. 이제 한중일 FTA의 협상이 개시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농업이 받는 피해가 아주 큼니다. 그래서 한국도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한중일 FTA 협상에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일본이 과연 이 농업문제를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한중일 FTA협상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동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대응 노력의 일부분으로서,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광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결국 한일협력의 주인공들은 기업인이고 실제로 시장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한일간 협력의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또 실제로 협력의 범위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희망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FTA도 앞으로 한일 양국에서 리더가 나와 여론에만 끌려가는 것이 아닌 FTA를 끌어주어야 합니다. 한일 모두 크게 생각해 일본은 농업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또 한국은 한국대로 FTA를 통해서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 기대하고 있던 기술이전이라든지 투자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지나친 요구도 해서도 안됩니다. 한일FTA라는 것은 기업이 서로 협력하는데 하나의 무드와 장소를 만들어주는 상징적인 역할이 더 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충분한 토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하면서도 결국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경제와 일본의 경제가 더욱 더 성장하고 활성화되어야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내수가 부진합니다. 한국은 수출 때문에 성장하고 있고 일본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최광 교수님이 지적했듯이, 왜 한국과 일본에 투자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인지, 왜 가계의 저축이 낮은 것인지, 그런데도 가계의 소비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

계부채는 현재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축은 안하는데도 소비가 별로 늘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들이 소비할 만큼은 다 하고 있어 저축할 여력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고 소득도 올라야 합니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하고 분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협력방향에 대해서는 오후의 2세션에서 다룰 것으로 기대하고 이상으로 1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제 2세션

테마: 「한일 경제의 합리적 협력방향」

사회 【森賀 弘(MORIGA HIROMU) (사) 일한경제협회 사업기획부장, 이하 동일】 : 제2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좌장은 JETRO 아시아연구소 지역연구센터장으로 계시는 히라노 카즈미 센터장입니다. 히라노 센터장은 일본을 대표하는 개발경제학의 권위자입니다. 제2세션에서는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하며, 또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성공사례를 이룩한 예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측의 진로(주)의 양인집 사장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진로 회사는 알콜음료 회사로서 그동안 일본시장에서 정착될 때까지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양 사장은 한일간의 신규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스미토모 상사의 암바토비 프로젝트의 이나바 마코토 리더입니다. 이나바씨는 마다가스카르의 니켈개발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서 자원확보의 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의 성공요인과 경위, 현황 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측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었고 현재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자문위원으로 계신 이우광 위원입니다. 이어서 숭실대학교의 신장철 교수님입니다. 두 분 모두 동경대학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의 박사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일본산업계에 대해 아주 정통하신 분들이고 저서도 많이 편찬한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발표시간은 1인당 15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히라노 선생께 이후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좌장 : 【平野 克己

(HIRANO KATSUMI)

일본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소 지역연구 센터장, 이하 동일】 : JETRO 아시아연구소의 히라노입니다. 오늘은 미시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는 거시적인 부분을 다루었지만, 오늘 오후 세션에서는 미시적인 부분, 즉, 시장에서의 협력과 산업협력 등에 대한 것들이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실태와 거시적인 부분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 연관성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검증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진로의 양사장님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일본시장에서의 진로의 사례」

양인집

진로(주) 사장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일본시장에서의 진로의 사례」입니다. 지난 5월에 중진

의 진로재팬에서 진로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조직은 일본 전국에 8개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총직원은 110명이고 그 중 93%가 현지 채용이고 나머지가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



원입니다. 다음 일본의 주류시장을 살펴 보겠습니다. 작년 규모로 약 3조7천억엔의 시장이며, 피크는 1995년입니다. 원래 규모는 4조8천억엔이었는데 해마다 감소해 피크 때와 비교하면 작년의 경우, 77%까지 축소되었습니다. 시장의 구성비를 보면, 맥주류가 2/3를 차지합니다. 맥주류라고 부르는 것은,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3가지의 맥주류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맥주가 33%, 발포주가 11%, 요즘은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제3의 맥주(신장르)가 23%정도입니다. 진로가 소속된 소주는 갑류가 5.2%, 을류소주가 5.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갑류와 을류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갑류소주라는 것은, 연속 증류주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희석식이라고 부릅니다. 연속해서 증류하기 때문에 원료의 향기와 색깔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을류라는 것은, 단식 증류주입니다. 일본에서는 본격소주라고 합니다만, 문자 그대로 한번밖에 증류하지 않아 옥수수, 보리, 쌀과같은 원료의 향이 그대로 남아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의 진로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에는 상품의 99%가 갑류소주로서 한국에서 생산해 수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작년 내용을 보면, 소주는 갑과을을 합쳐 35%, 맥주류가 가장 많은 48%, 그리고 최근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막걸리 15%정도입니다. 따라서 진로는 일본에서는 이미 소주회사가 아니고 종합주류 메이커로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최근 5년간의 주류시장과 진로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주류시장은 6%정도 줄었는데 반해 진로는 24%정도 성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국내의 주류메이커 랭킹을 보겠습니다. 2009년 판매량 기준의 자료로 작년 1월 영국의 데이터 모니터라는 회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1~4위까지는 대형 맥주회사가 차지하고, 5위는 타카라, 그리고 진로가 9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탑10에 들어간 외국계 기업으로서는 진로가 유일합니다. 최근의 진로의 성장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막걸리 성공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막걸리인가? 왜 진로인가?라는 두 가지 테마입니다. 2010년 2월에 일본 전국의 200여개 도매상을 동경에 초청하였습니다. 당시 주류매출이 해마다 축소경향에 있어 주류협회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인당 음주량도 줄고 마신다 하더라도 집에서 마시는 경향이 늘어난 것입니다. 같은 양이 판매된다 하더라도 메이커 입장에서 볼 때는 가족용이 가격이 저렴해 매출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전과 비교해 술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개사의 도매상에게 「여러분, 이대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합쳐 새로운 시장을 열어 나갑시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다음, 막걸리는 발효식품이라 건강지향적인 사람들에게 잘 팔리고 6도의 알콜음료로서 여성에게도 팔 수가 있습니다. 왜 진로인지? 역시 식품이기에 안전, 안심적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30년동안 브랜드를 키운 진로가 브랜드를 걸고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공요인이 있다면 맛과 유통채널의 현지화입니다. 현재 일본에는 50종류 이상의 한국산 막걸리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한국에서 생산한 것을 그대로 일본에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는 일본사람의 입에 맞는 일본 한정품을 개발하여, 판매채널도 일본의 일반주류도매상을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로가 2010년에 전년대비 3배로 성장하였고, 작년에는 2배이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같은 막걸리의 성공은 물론 맛과 유통망의 덕분이기는 하지만, 브랜드의 힘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 지난 4월 브룸버그 비즈니스위크지를 보면, 자기 나라가 아닌 타국에서도 브랜드 이미지가 좋은 몇 가지 주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경우, 아이리시 위스키인 잼손이라는 브랜드가 인기가 있고, 일본에서는 진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민적 이미지이지만, 일본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고 보다 높은 이미지구축에 성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내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류기업으로서 프라이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이라는 것은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기원할 때 술을 사용하는데, 이는 동서고금, 인종, 종교를 불문하고 똑같습니다. 영어로 술은 일반적으로 「스피리츠(spirits)」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의미는 영혼입니다. 따라서 술과 영혼은 동격이라는 말을 사내에서 하곤 합니다. 영혼과 같은 레벨의 상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서 프라이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희로애락, 관혼상제, 연회 등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입니다. 기뻐도 한잔, 슬퍼도 한잔, 이유가 없어도 한잔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 아닐까요? 또 하나, 한국인 직원에게 강조하는 것은 진로 브랜드의 책임입니다. 미국에는 코카콜라, 맥도널드의 브랜드가 있지만, 한국의 식품속에서 진로라는 브랜드 이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브랜드의

책임감을 갖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늘 직원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어로 임파서블(impossible)은 아임파서블(I'm possible)과 같은 스펠링으로서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만, 이 말을 저희 직원들에게 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계가 그렇습니다만, 새로 거래처를 개척하려고 했을 때,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래를 시작할까요?」라는 반응은 거의 없습니다. 영업이라는 것은 no라는 말을 듣는데서 시작됩니다. 물건을 파는 것이 목표인데 현실은 no일 때 현실과 목표의 갭을 메우는 것이 전략일 것입니다. 포지티브한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타이밍입니다. 「everything is timing」이라는 말처럼 비즈니스도 사람도 타이밍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간부들에게 「의사결정 시 감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경영자로서 위험한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실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일본에서 20-30년동안 훈련받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크게 틀릴 확률은 적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이나 실행의 타이밍을 놓쳐서 비즈니스 기회 자체를 잃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라톤 예를 들면, 운동화의 끈을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남들은 모두 출발했을 겁니다. 한번 사람들이 뛰쳐나가면 쫓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일본에서 주류판매만큼 쉬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훌륭한 신뢰인프라를 말합니다. 신뢰, 신용의 「신」이라는 글자를 목숨처럼 지키는 이 나라에서 장사하기는 쉽습니다. 진로의 경우, 과거 5년동안 부실채권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편한 시장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경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사람의 마음을 잡

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자기 회사 사원의 마음을 잡고 그리고 거래처의 마음을 잡고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잡는 것이 경영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로는 일본에서 법인설립을 한지 2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술을 수입해 유통할 뿐아니라, 일본국내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60종류 이상의 일본청주를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진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한일양국의 가교역할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어렵다고 하는 일본시장에서 강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은 주류는 문화산업입니다. 문화가 없으면 술은 팔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로는 좋은 의미의 사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 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니켈프로젝트의 총사령관인 스미토모상사의 이나바 마코토 리더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한일 협동작업(협업)의 자원대책-암바토비 프로젝트」

稻葉 誠

(INABA MAKOTO)

스미토모상사 자원제1본부
아바토비 프로젝트 리더



「한일협업의 자원대책」이라는 테마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프로젝트의 개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어떤 협력을 해 왔는지를 비즈니스 모델의 한 사례로서 소개하고자 하며 향후 양국관계 강화에 일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아시다시피 니켈과 코발트는 자원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니켈은 호주, 브라질등의 지역에 매장량이 60%정도이고, 생산은 대형 4개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발트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는 콩고가 최대의 자원국입니다. 호주, 쿠바, 뉴칼레도니아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알려져있는 것은 전자쪽의 원료이고 니켈은 스테인레스의 원료가 되고 있습니다. 암바토비 프로젝트는 광석채굴에서 니켈지금까지 세계 최대급의 일관생산 사업입니다. 이같은 두 회금속에 대해 한일양국이 협력하면서 자원 확보를 하게 된 것이고, 광석채굴에서부터 지금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투자액이 55억달러였고, 연간 니켈 생산능력은 6만톤으로 세계 4%정도이고, 코발트는 5,600톤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8-9%정도가 됩니다. 황산암모늄은 21만톤입니다. 조업기간은 약 30년입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니켈의 지금에 대해서는 스미토모상사와 한국의 코레스(KORES, 한국자원공사)가 반씩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의 구조입니다. 캐나다의 SHERRITT가 40%, 코레스와 스미토모가 각 27.5%, 그리고 캐나다의 엔지니어링회사인 SNC-LAVALIN이 5%의 형태로 스폰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 특징적인 것은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21억달러의 융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국제협력은행,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같은 정부계, 혹은 세계적인 금융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시너지 랜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협력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우는 일본, 한국 각각의 민간금융기관의 융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파트너간의 협업체제로서 각각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셰리트는 조업자, 코레스와 스미토모는 파이낸스 조성과 제품판매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SNC-LAVALIN은 엔지니어링 설계나 건설 혹은 활동지원을 합니다. 다음, 본 프로젝트의 의의입니다. 가장 큰 의의는 금속 자원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자원회사들이 과점화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중국의 위세가 강해 희토류와 관련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일본기업중에서는 최초가 되겠지만, 니켈을 광산에서 채굴해 지금까지 일관생산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수요국인 일본과 한국이 처음으로 공동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한일간의 협업이 생기고 있지만, 비철금속이라는 의미에서 그 당시로서는 한일 최초의 공동참여였습니다. 또 아프리카에서 이 정도 규모의 파이낸싱을 조성한 것은 세계최대의 규모로서 본프로젝트의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자체가 장기 저코스트라는 점도 큰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간단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원래 2005년에 캐나다의 다이나텍이 마다가스카르에서 권익을 취득했는데, 니켈개발은 초기투자가 많이 필요해 당시 중소기업 이던 다이나텍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스미토모상사는 니켈이 앞으로 커나갈 전략자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니켈의 권익에 대해 알아보고 있던중이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두 회사의 뜻이 맞아 2005년 8월에 스미토모상사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또 하나의 회사가 있었는데 결국은 철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이나텍과 스미토모상사, 또 하나의 파트너를 찾아보자고 해서 2005년 말부터 다시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 10월에 코레스와 SNC-LAVALIN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다이나텍이 현재의 셰리트로 인수되었습니다. 2007년에 건설을 시작했는데, 도중에 자원

의 양등과 리먼사태, 쿠데타 발생 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 작년에 거의 건설이 끝나 광산사이트의 조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4월부터 중간생산인 믹스 설파이드를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금속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의 섬 나라인데 수도 안티나리보에서 동쪽으로 80킬로가면 모라만가라는 광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정련하는 플랜트사이트가 토아마시나입니다. 토아마시나는 마다가스카르 최대의 항구도시이고 제2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광산과 정련소를 이어주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슬러리를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서, 광석을 채굴해 파이프라인으로 운반해 정련한다는 것입니다. 니켈광석은 단단하지 않고 붉은 흙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붉은 흙속에 니켈 1%, 코발트가 0.1%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산에서는 붉은 흙을 채굴해 물을 섞어 슬러리화 해서 파이프라인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파이프라인은 220킬로미터로 역시 환경대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상이 아니라 지중에 파이프라인을 매설하였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완전히 땅속에 묻어 녹화를 해서 산사태등을 방지하였습니다. 슬러리는 토아마시나항에 있는 정련소로 운반되는데, 부지면적이 320헥타르이고 3가지 주요설비가 있습니다. HAPL은 고압산침출의 약자인데, 중간생산물을 만드는 플랜트이고, 이것을 금속으로 만드는 정련플랜트, 그리고 본 플랜트를 위해서 전기나 가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플랜트가 따로 있어 복합일괄 화학플랜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련의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관건이 되는 부분이 고압산침출 부분인데 황산액을 금속별로 분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정련플랜트는 상공정과 하공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상공정에서는 중

간제품을 만드는 부분으로써, 금속에 혼합되어 있는 니켈, 코발트, 아연 등을 분류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 순수한 제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토아마시나항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인프라를 정비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만입니다. 이 항에는 발전소가 필요했고 발전소는 석탄이 필요해 석탄을 수입하기 위해 벌크용 전용버스를 건설했습니다. 이 곳에서 수입되는 광석물을 컨베이어로 옮기고 전용열차에 실어 10킬로 떨어진 플랜트까지 운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석으로부터 용액을 빼어 금속을 추출하면 빨간 흙이 남는데 이것을 테일링(TAILING)이라 부릅니다. 이것으로 테일링댐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지역에는 약 300채 정도의 주민들이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만, 이주를 부탁드리고 새집도 지어주고, 우물, 학교, 병원 등을 제공하여 지금은 1,200-1,300채 규모의 새로운 마을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의 상황입니다. 국민총생산 GDP가 87억달러이고 국민1인당으로 하면 421달러로 소득수준이 낮습니다. 대부분이 농업과 목축업 등 1차산업이 주종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원래 말레이계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고 하루 세끼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아시아민족과 비슷해 아프리카인지 아시아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이 마다가스카르에 있어서의 경제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암바토비는 외국인 직접투자로서는 최대규모의 지역이었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플래쉽(FLAGSHIP)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효과로서는, 수출입의 증가로 수입이 2배로 늘어났고, 정부의 세수와 로열티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창출 효과입니다만,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 만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이전입니다만, 미래적으로

마다가스카르 현지인들을 고용해 직업훈련과 직능훈련을 제공해 미래를 내다보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 인허가의 취득, 혹은 대규모 광산투자법을 인정해 주고 장기에 걸친 법제도와 세제면에서의 안정화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외교, 아프리카 지원의 중심이라는 차원에서 일본정부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개발에 있어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환경에 대한 배려와 지역공헌입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도 환경에 대한 배려를 하였는데, 첫 번째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독자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했고, 채굴후의 광산을 원상태로 되돌려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주변의 산을 확보해 삼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프사이트입니다. 우리 프로젝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80킬로 떨어진 곳에도 보호구역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회사가 이 정도까지 활동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볼 때 아주 드물고, BBOP라든가 NGO활동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와 공헌입니다. 저희들은 공청회나 설명회 등 정보공개로 200회에 걸쳐 주민과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것을 알았고 여기에 관련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인프라 개선, 농업지원, 교육수준의 향상, 기술트레이닝 등의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기업과 제후경위를 보면, 2006년 말에 중국기업과 한국의 코레스가 남았는데, 결정타는 역시 국제컨소시엄이라는 것과 코레스가 경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국제협상에 센스가 있었다는 것, 파트너의 입장을 상호 존중하면서 조건협상을 한다는 가치관의 공유가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싱 부분에서 국제적인 신디케이트를 조성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한국의 수출입은행이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가 한국의 코레스와 손을 잡게 된 이유입니다. 특히, 가치관의 공유라는 차원에서 스미토모상사는 코레스의 참가에 찬성한 것입니다. 가장 큰 메리트는, 자원이 없는 나라로서 주요국이라는 점과 출발점과 백그라운드 같은 나라, 그리고 멘탈리티입니다. 파트너를 존중하는 자세, 채산과 코스트 의식, 혹은 환경사회, 규정이행에 대한 배려 등 사고방식이 비슷했고, 스폰서간에 보조를 맞추기가 쉬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컨트리 리스크에 대한 견해도 일치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쿠데타 발생시의 대응방법에 있어서도 발상자체가 비슷하였습니다. 암바토비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의 국영기업과 일본의 민간기업이라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은 있었지만, 기탄없는 의견을 나누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을 몇 번이나 되풀이한 결과, 상대의 사고방식을 잘 이해하게 되어 지금은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서로 믿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컨트리 리스크에 대한 대응입니다만, 쿠데타가 발생하자 각각의 정부에 연락해 일본, 한국, 캐나다의 각 대사들이 하나가 되어 잠정정권에 대해 여러 가지 충고들을 해 주는 등 정부측에서도 많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속한 협력이 이루어져 잠정정권 입장에서도 암바토비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동향이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잠정정부도 우리를 계속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총정리하는 의미로 한국기업의 강점과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좋은 점밖에 없었고 약점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억지로

약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점을 느끼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점은 민관연대와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 신속한 의사결정이고, 약점은, 광산 사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권익확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로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면에 조금 소홀한 것 같고, 채굴등의 권익확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정보관리 문제입니다. 한국기업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데, 대표회사 밑으로 관계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입장에서 보면, 투자가와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데 그 정보가 밑에 있는 주변기업에게까지 새어 나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유하면 좋은지에 대한 정보관리 부분이 좀 애매하다는 면이 있었습니다. 내부의 치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협업의 사례입니다. 한국의 KEPCO와 KT하고도 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원과 관련해 암바토비 경험에 비추어 지금도 동광산이나 레어메탈 등 제2의 암바토비를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자원관계를 어떤 식으로 강화할 것인지를 생각할 때, 2가지의 키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원은 꽤 많은데 컨트리리스크가 높은 나라에 접근하는 문제, 또 하나는 중국이 많은 것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협력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코레스와 구축한 암바토비 프로젝트와 같은 안전을 하나라도 더 늘려감으로써, 한일이 하나가 되어 리스크셰어링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모습을 세계적인 모델로 제시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이우광 위원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겠습니다.

「한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하는 생산네트워크의 새로운 구축」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자문위원



한일경제인회의는 제가 일본 전문가라는 이유로 그동안 많이 도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의 가장 큰 테마는 한일FTA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일FTA가 진행이 잘 안된 이유는, 오전에 농업애기도 있었습니다만, 한국측 입장로서는 대일 무역적자 문제, 일본의 대한투자가 적다는 문제등이 장애물이 되어 실질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1년의 한일 경제관계를 보면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확대균형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만, 실제로 작년의 한일경제 관계는 명실공히 확대균형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원인은 한국 대기업들의 성장발전도 있었겠지만,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속에서 한일경제 관계가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년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한국으로 왔고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열린 신산업무역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세 가지 정도를 제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일무역적자가 발생한 이유는, 한국의 수출이 늘면 일본의

소재, 부품, 장치들을 많이 사들이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일반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한국의 총무역이 19%정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일무역적자는 75억달러나 줄었들었고 바로 이것이 하나의 큰 변화입니다. 또 하나는, 수출도 늘고 대일수입도 늘고 대일수출도 늘었는데 무역적자는 줄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양국간의 경제관계를 상징하는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무코야마 선생님도 지적하셨지만, 작년의 일본의 대한투자는 125%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의 양국 경제관계가 변화된 배경은 6중고 등 여러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만, 저는 일본경제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내수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수부족분을 어떻게 보완해 가면서 기업활동을 할 것인가가 일본기업들의 가장 큰 과제라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일본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속에서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요한 점은 향후에도 더욱 더 해외 생산비용을 늘리겠다는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리먼쇼크로 일본기업의 해외투자가 줄었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늘어나는 움직임이 아니라 구조적인 내수부족 때문에 일본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부 자동차, 전자업체들의 해외진출에 따라 부품업체들도 따라 나갔지만, 일본으로부터의 소재, 부품수출도 늘어난 것이 일본경제의 실상이었고, 그런 무역에 의해서 일본경제를 견인해 온 구조가 리먼쇼크 이후에 아마도 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흥국의 중산층을 공략키 위해서는 코스트 절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으로부터 부품이나 소재를 가지고 나가는 것

이 불필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기업이나 중국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현지에서 소재나 부품을 생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작년 대지진으로 인한 자동차업체들의 부품공동화, 코스트 절감을 위해 한국기업으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는 사례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요인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본국내의 수요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지속키 위해서는 해외를 공략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큰 변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기업들의 해외진출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품, 소재, 장치분야의 진출, 둘째는 본격적인 중소기업들의 진출, 세 번째는 지금까지 중국이나 태국에 진출했던 패턴들이 좀 분산되는, 예를 들어 한국이나 대만,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움직임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기술과 핵심부품을 가지고 나가는 등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수출로 소재와 장치들을 공급하던 시스템이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에서만 만들어서 충분히 수출이 잘 되면 문제가 없지만, 이 부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중국이나 한국, 대만의 글로벌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더 이상 일본에서 만들어 수출하기가 어려워진 현상이 특히 작년에 많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진출 이유를 보면, 코스트 경쟁, 진출국의 마켓셰어 확대, 또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일본의 소재부품 기업들의 진출을 원한다는 이유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최근들어 과거보다는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온 기업들의 패턴을 보면 세 가지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내수시

장입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잠재성장력이 4% 이상이 됩니다. 일본이 약 1%정도로 한국시장이 훨씬 성장성은 좋을 것입니다. 둘째 한국의 생산거점 활용입니다. 그 이유로서 전력, FTA, 법인세 등이 있는데 특히 화학, 소재쪽에서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삼성, LG 등 한국의 글로벌기업들이 대두하고 있고, 한국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기업보다 앞서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스마트TV, 유기EL이 그렇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본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것이 거래선과의 정보관계라든지 피드백 등이 훨씬 원활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일본기업들이 한국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시장성, 전기요금, 법인세, 환율 등이 있습니다만, 오전 세션때 지적이 안된 부분이 물류문제입니다. 특히 부산등의 물류경쟁력이 강화되어 동해쪽의 호쿠리쿠 지역등에서의 글로벌시장에 대한 어프로치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가나자와에서 빙둘러서 고베나 요코하마로 가는 것보다도 직접 부산으로 가는 것이 훨씬 코스트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진출이 목적이려면 서해안의 공업단지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서산테크노벨리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두어 일본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가 가깝다든지 물류등의 메리트를 지적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제조능력, 혹은 다른 나라보다 앞서있는 모노크루리 기술 등이 일본기업들에게 어필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제로 일본 JETRO에서 발표한, 한국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은 별로 없

고 단지, 코스트삭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인데, 이것도 한국의 물가상승과 인건비상승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어 그 외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실제로 JX닛코닛세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오일 원료를 한국으로 들여와 베이스오일을 생산하고 최종제품은 일본에서 다시 만들어 팔거나, 아니면 중국이나 미국으로 가져가는 식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도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재한일본기업인 미즈호서울지점의 야스하라 지점장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한국은 대기업이 강하고 일본은 중소기업이 강한데, 이것을 융합시키는 비즈니스모델이 되어야만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경제권을 이룰 수 있다」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소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양국정부와 기업에 제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간의 협력 특히, 정부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개발도상국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9월 시점까지는 일본정부가 일본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때, 한국진출의 경우에는 도상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기업의 한국진출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국도 역시 그동안에 자본축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기업들이 한국으로 올 때 자금면과 경영면 등에서 많은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최근에 중국기업들이 일본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만, 왜 한국기업들은 일본에 진출하지 않는 것인지? 오전에 진로의 발표도 있었지만, 시장진입이 힘들고 여러 가지 유통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제품과 일본제품이 경합하고 있는 가운

데 쉽게 한국제품으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갤럭시같은 경우, 새로운 상품이 투입되면서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종 제품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술력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좀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미디어와 일본에 계신 분들이 한국의 위상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몇 년간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조나 부품, 소재들의 분야에서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일FTA의 진행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측면에서 한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기술문제입니다. 저는 동경대학에서 유학을 했는데 경제학부의 다케우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의 은사이기도 합니다만, 그 분에게 기술에 대해 질문했더니 「기술은 물과 같은 것이어서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있다」는 말씀을 듣고 옳은 말씀이라 생각했습니다. 최근 기술유출 문제와 지적소유권 문제 등이 과제가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한국이 지적소유권 보장이 다른 나라보다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한국정부가 노력을 해야하고, 일본측에서도 유출되었다는 일반적인 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한국정부에 요청도 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기술의 미스매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사장된 기술등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것도 양국정부의 책무라는 제언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경제통합이 추진될 때는 양쪽에서 중력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사람이 아닌 사람에 의한 일본경제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 발표로 한국의 신장철 교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3국 공동진출과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방안-자원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신장철
승실대학교 교수



한일교류에 있어 거점도 시화되고 있는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발표를 하게되어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스미토모상사에서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에서 암바토비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례에 대해, 소위 자원개발에 있어서의 패키지개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실무차원에서의 자원개발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일이 국가차원에서 제3국에 있어서의 공동 자원개발을 위해 어떤 실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 자원시장은 한마디로 자원의 유한성과 함께 수급에 있어서도 불균형한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석유는 50년, 천연가스는 70년안에 고갈이 예상되고 있고, 특히 근년 들어 자원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또 상승된 가격이 높은 상태로 고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희토류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림 1을 보면, 디스프로슘이라고 해서 주로 전기자동차의 모터나 광디스크등의 주요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데, 2011년 4월 현재 16개월이라는 기간동안에 무려 6배 이상이 상승되었습니다. 최근의 세계자원은 인구의 급격한 증

가와 개도국이었던 중국이나 인도의 산업화가 급진전되면서 이들 국가의 자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이 고갈되고 수급불균형에 의해 자원을 둘러싼 개발권에 대해 국가간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중국 경제가 급성장함으로써 자원의 불균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1980년부터 중국의 등소평에 의한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후 중국은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과정에서 세계자원을 많이 이용하는 나라가 되었고 자원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세계자원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은 자원에 있어서 주요 수출국이었는데, 1999년부터 희토류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북한과 아프리카 등의 인접국가들에 대해 개발권을 확대함으로써, 개발권 확보뿐만 아니라 인접국 또는 세계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은 자국자원에 대한 보호정책을 강화시켜 수출을 억제하고 자국자원에 대한 개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물가격 특히 희귀금속에 대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자원을 둘러싼 국가간의 경쟁, 즉 안보에 있어서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희토류는 자원의 비타민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첨단소재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재료입니다만, 세계 희토류의 95% 이상을 중국이 생산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림2 희토류 매장량 및 생산량을 보면, 중국이 생산량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고, 매장량에 있어서도 거의 58%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희토류의 경우에는 특정국가에 편재되어 있다는 특징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일간 협력사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근년 들어 한일간 제3국 자원시장에 있어서의 공동진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건수나 금액면에서 보면 전체시장의 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공동진출이라는 것이 아직은 초기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례의 대부분은 일본상사가 주도하고 한국기업이 협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동안 한국기업이 제3국에서 수주를 통해 인지도를 확보함으로써 수주경쟁력을 강화시킨 부분은 있습니다. 반면, 일본기업은 엔화강세로 인한 해외직접투자의 메리트와 함께 정보력, 자금력, 금융조달 능력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같이 양국이 가진 역량을 상호보완적인 제휴관계를 통해 발전시켜 나갈 여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들어 한일기업이 협력해 제3국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희토류개발과 관련된 공동진출 사례로써는 니오바입니다. 니오바라는 희토류는 주로 특수합금이라든지 특수공구용으로 활용되는 자원인데, 한일 양국이 15%씩의 공동투자를 한 사례입니다. 또한 자원개발과 관련해 공기업과 종합상사, 그리고 민간기업에 의한 제휴사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제휴협력의 강화방안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한일간 경제협력은 일방적이었는데 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쌍방적인 지원체제의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양국은 제3국에서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과당경쟁을 탈피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또 보완관계를 통해 양국기업이 가진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리스크도 상호 분산하는 체제를 구축해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민간차원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한일양국의 기업활동에

대해 측면에서 지원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큰 투자규모, 높은 투자, 국가리스크 등의 핵심이슈는 민간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일양국은 일시적이고 단계적인 협력에서 벗어나 장기적, 지속적인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구축방안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제3국 자원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 양국정부의 공조에 의한 협력환경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정부의 지원전략과 함께 그 방향성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실무조직의 구성이 필요하고 그것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프로젝트 심사협의회」 또는 「한일산업협력위원회」 등의 가칭 글로벌데스크를 설치운영해,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안전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심사협의회에서 심사하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기업에 확산시키는 상설조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동반자 관계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또 교통인프라를 정비하는, 즉 한일해저터널의 건설을 통해 한일간 시공간적으로 거리를 좁히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으로써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부의 역할로서는, 수준높은 한일 FTA 체결을 통해 양국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한일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FTA 체결을 통해 인적, 물적

교류관계를 보다 원활히 하고 연계지원체제를 강화해 민간차원에서의 협력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중국의 급부상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중심으로 유지되어 왔던 동북아 질서가 중국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은 양국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한일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룩해야 할 역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유 토론)

좌장 : 감사합니다. 토론에 앞서 사회자로서의 의무인 논점을 몇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시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거시적인 부분과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FT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광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최근들어 확대 균형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미 일미 무역불균형 그리고 한국과 중국과도 불균형문제가 되풀이되었습니다. 무역불균형은 투자만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쪽이 무역을 억제하고 수출을 억제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지금의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일본의 생산력이 한국으로 이동해 가면서 한국의 무역이 늘어나는데도 대일적자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국측 정부입장에서 보면, 한일FTA보다 일본에 대한 투자촉진책, 유치정책을 취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되고 한일FTA의 의미

는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일본의 생산기업이 진출했을 때, 관세장벽이 존재한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EPA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 양인집 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일본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시대에 있던 모든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도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본이 선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시아 전체시장이 앞으로 20년에 걸쳐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 전체에서의 기업생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무엇이, 어떤 기업이 생존할 것인지가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로의 일본시장에서의 건투는 아주 시사적이었습니다. 특히 트러스트(신용)라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이것은 경제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사회적 인프라중에서도 이 사회적 신용이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노후된 시장, 즉 성숙된 일본시장은 축소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공급자가 줄어든다면 나쁜 시장이 아니라 좋은 시장, 보다 더 이익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아시아 경제속에서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 또는 글로벌 로컬기업은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하고 어떤 시장의 개척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에 대한 소재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일 양국기업의 차원에서 봤을 때, EU의 독일과 프랑스의 기업관계보다 한국과 일본의 기업관계가 깊어질지에 대한 문제설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독일과 프랑스보다 한국과 일본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는 기업의 통합, 기업연계, M&A일지도 모르겠지만, 같은 지향성, 같은 시장, 같은 니즈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마지막까지 경쟁을 해서 양쪽 다 망하는 것이고, 차선책은 한쪽이 살아남아 흡수를 하는 등 살아남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시적인 얘기입니다만, 마크로라는 것은 정부에 의한 경제학이고 마이크로라는 것은 기업을 위한 경제학입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일본이나 한국은 중국과는 싸울 수가 없고 공존해야 합니다. 중국도 언제까지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노쇄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예를 들면, 연계나 통합을 할 때 한일기업의 입장에서 그 대상으로서 중국기업은 바람직한 선택일까요?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한일, 국가차원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같이 공유한다고 해서 가치관의 공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를 미시적으로 말하면,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라고 풀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아이덴티티라는 부분이 전혀 다르다면 연계도 어렵고 통합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에서 한일기업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봅니다. 이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는 본사가 있는 나라의 경제제도와 법제도입니다. 이는 경영이라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서울과 동경, 북경, 상해라는 도시들을 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논점은 이상으로 하고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병대 히카리정보 회장 : 어제부터의 강연속에서의 키워드의 하나가 제3국 공동진출

이라는 부분입니다만, 스미토모의 이나바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2가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이나바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역사회의 배려와 공헌이라는 부분과, 한일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으로 일본보다도 더 큰 섬입니다. 이 곳에서 자원개발을 하는데 있어 조업기간이 30년이고, 고용인원이 6,000명으로 대부분이 현지인이라고 합니다. 현지인의 구성을 보면, 말레이계통과 인도네시아계통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한일 합작의 현지법인의 대표로 일한 경험이 있는데, 항상 부딪치는 문제가 최저임금제입니다. 현지 사람들의 최저임금제를 어떻게 해서 납득할 만한 보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ISO26000이라는, 인증제도가 아닌 검증제도가 작년에 발효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갭」이라는 의류회사가 인도에서 아동들의 저임금 학대로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이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일어날 소지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한일협력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5월 8일 동경에서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산업기술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산업전략연구소의 무라카미 대표의 얘기가 「일본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암묵의 룰이 많다. 국적을 뛰어넘는 탈국적화도 과제 중의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본 뿐만 아니라 양국의 기업이 다같이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두 나라가 제3국에 공동진출하는데 있어 서로가 얘기를 못하는 사정들

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 경험상 흥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면 안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일본에서는 「아운노 고큐(阿吽の呼吸)」라는 말이 있는데, 눈만 마주쳐도 서로가 알 수 있는 경지에 까지 이르지 못하면 공동진출의 장애를 극복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 양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공동의 가치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치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에 앞서 기본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스나오나 고코로(素直な心)」운동을 한국에서 30여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운동을 통해 확인한 것은, 파트너십에는 이런 스나오나 고코로(素直な心)가 공통적으로 있어야만 공동진출하는데 있어서도 서로가 보다 더 성공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일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한 이나바 선생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나바 마코토 스미토모상사 자원제1본부 암바토비 프로젝트 리더 : 마다가스카르의 지역 공헌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나라는 빈곤국가이며 농업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슬라이드에서도 소개했듯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평가를 받을 것인가 라는 문제를 생각하였고, 인프라 정비, 교육, 의료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알기위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많이 마련했습니다. 선진국 입장에서 「이것이 필요할 테니 줄게」가 아니고, 「당신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라는 것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경청한 것입니다. 아직도 이 나라는 완전한 화폐경제가 아니라 물물교환 같은 것이 남아 있습니

다. 그래서 월급을 건설사업 종사자들에게 주면 더 달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최저임금제라는 노동법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급여는 물론 최저임금보다는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처음 우리는 기술인력 향상과 매칭되는 수입 혹은 월급을 주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는 누가 얼마를 받았더라. 더 달라는 의견이 계속 나왔고 이 부분은 지금도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들의 기술수준을 올리고 스스로 조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더 주겠다」는 식으로 설명도 하여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일간의 협력문제에 있어 눈만 봐도 알 수 있다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처음 한국의 코레스와 대화를 할 때 「왜 저런 발상을 할까」하고 의아해 한적이 많았습니다만, 코레스는 자신들의 처지를 스미토모에 솔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의명분이 아니라 「실제 배경은 이렇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오퍼레이트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우리 방향은 이런 것을 원하는데 스미토모가 중간에 들어와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프로젝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의명분만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서로가 솔직하게 입장을 설명하여 동질감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축적되어 지금은 서로 편하게 느끼는 사이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지난 5년동안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카스기 노부야 김&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 : 저는 일본인이지만 오늘은 한국측 멤버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한일 경제인회의의 하나의 큰 특징이 아닐까 생

각합니다. 저도 이 회의에 오랫동안 참석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하며 사무국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스미토모상사에서 나오신 분은 비즈니스의 실질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셨고, 최광 교수님은 아카데미한 관점에서 역사적인 인식, 그리고 박철희장님의 금융측면에서의 발표, 후지야마 임원의 글로벌리즘과 리스크 매트릭스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우광 위원과 신장철 교수님의 발표를 아주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이 회의의 전체적인 구성이 아주 좋았다고 봅니다. 지난 3월의 신산업무역회의에 이어서 「자격의 문제」등을 계속 다루어 「선에서 면으로」라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회의였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공동선언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회의에서도 한일FTA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인들은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촉진하지 않고 있어 아주 의문스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후지야마 선생님의 발표가 아주 좋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중국이 대두되고 있고 불확실한 글로벌시대에 있어 일본과 한국의 역할은 양국이 술선수범해서 재검토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책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 이 감각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기축으로 해서 정부한테 촉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 대해 비즈니스분야의 제언을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동선언문에 이런 내용을 꼭 담아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권 재영솔루텍 회장 : 한일경제협력 방안의 총론에는 모두 찬성하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이해관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한일간의 중견중소기업들의 협력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례들을 조금 더 발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양국은 지리적으로 제일 가깝고 생활문화도 비슷하고 또 일



본사회에는 모노즈쿠리라는 정신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 반면, 한국은 기능올림픽 17년 제패를 한 저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만들기를 좋아하고 근면하면서도 양질의 기술능력을 갖고 있는 국민이기도 합니다. 이런 한국과 일본이 부품분야만이 아니라 제조산업의 모든 부분의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협력하고, 그런 가운데서 양국의 중견중소기업들이 부품소재산업의 세계시장을 확보하면서 윈윈해 갈 수 있는 협력방안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한일간의 중견중소기업들의 투자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유인책을 만들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간 중견중소기업들의 협력관계가 활성화됨으로써 앞으로 한일간FTA를 성사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갈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끝으로 북한의 경제환경은 중국에 많이 의존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한국과 일본이 파트너로서 북한에 함께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가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좌장 : 북한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한일간에 많이 진전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사협력 문제도 많이 진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영환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부회장 :

저는 작년 3월초까지 오사카 주재 한국총영사로 근무했었기에 한일경제인회의가 이렇게 오사카에서 열리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한일경제 관계와 산업협력 관



계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항공우주산업분야에서도 앞으로 좋은 변화가 있어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원하며, 이우광 위원께 한일간의 항공우주산업분야의 협력이 정말 가능할지,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항공우주산업의 역사도 깊고, 또 최근에는 리저널 제트기인 MRJ의 독자 생산에 들어섰고, 또 보잉 에어버스에 대한 주요 부품과 구조물들을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발사체의 운영을 통해 세계 항공우주산업의 선진국으로서 공헌하고 있는데, 한국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기술축적이 많이되어 훈련기인 KT1이라든지, T-50을 개발해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부품공급과 다소의 협력관계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미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내일 일본의 다네가시마(種子島) 우주센터에서 한국의 아리랑3호 인공위성이 발사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한일간 산업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항공우주 분야에서의 한일협력을 해 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이우광 위원님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자문위원 :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모르는 분야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협력을 할 경우에는, 일본의 강한 부분이 협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항공산업은 2차대전에 패한 이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중형 여객기의 일본국산화라는 면에서는 두드러진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은 물론 일본도 이 분야가 유일하게 취약한 분야입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약한 부분에 대한 공동연대나 협력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예를 들면, 표준화등에 있어 이를 리드하는 규모도 갖고 있고 또 제조의 생산능력도 있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은 분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얘기한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항공산업에 있어서도 일본과 한국과의 연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 아시다시피 위성발사에 실패한 경험도 있고, 러시아와의 책임 소재문제로 협력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 일본과 협력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았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좌장 :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한일간의 산업이전에 초점이 되는 소재산업은 실은 항공산업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보잉787은 실질적으로 무게면에서는 40% 정도가 일본산이라고 합니다. 바로 탄소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탄소기술은 지금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엔진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서 군사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어렵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연계속에서 항공산업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산업은 또 다른 문제로서 정부 주도로 되어 있고 마켓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강한 재정력을 갖고 있는 나라만 이 우주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재정력은 거의 꺼지기 직전입니다만, 대지진후 일본국민들에게 용기를 준 것이 『하야부사』인공위성입니다. 일본국민은 항공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즈 투자로서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마도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에 있어서도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이 항공우주 분야는 중국의 독과점 상태가 될 것입니다.

김강희 동화엔텍 회장 :

이번 회의내용을 보면 상당히 진전된 것도 있고 한일간의 협력관계도 많이 진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협력까지 오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좀



더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인은 성격이 급해 오래 걸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실은 이 회의가 상당한 규모의 국제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에서 크게 뉴스화하지 않고 있다는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산업경제신문에 기사가 나서 잠깐 보았습시다만, 조금 더 이런 매스컴을 통한 한일간의 협력이 실질적으로 성공하고 있다는 성공사례를 발표해 주시면 한일협력 관계가 더욱 진전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가 카즈오 일한경제협회 전무 : 감사합니다. 경제인회의에 대해 일본경제신문 등 몇 개 언론이 언급해 주었습니다. 말

썸하신대로 과거의 동향을 보면 언론에서 보도한 상태가 적었을 지도 모르겠지만, 최근 수년동안의 경제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이명박 대통령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 일간의 교류는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나바 선생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보도실태로서 양국의 협력에 대해 일본경제신문 1면에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마루베니가 포스코와 호주에서 철광석 개발을 하였고, 미쓰비시상사가 캐나다에서 셀가스를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언급이 불충분했을지도 모르지만, 어제와 오늘 논의된대로 이러한 성공사례들을 더욱 더 공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신함으로써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 : 질문하신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오사카에 계시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언론에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서울에서 보도된 자료를 보면, 한국의 모든 신문에 다 보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14개 신문에 이 회의의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한일경제인회의에 대해서는 매우 크게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사무국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폐 회 식

(1) 공동성명 채택

사회 : 지금부터 폐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폐회식의 진행은 사사키 미키오 단장님께 부탁드립니다.

佐々木 幹夫 단장 : 양일간에 걸쳐 아주 열띤 토론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성명을 양 사무국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은 후에 승인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의 공동성명 낭독이 있습니다. 일본측과 한국측이 각각 낭독하므로 통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공동성명 전문은 본 보고서 II항에 기재)

是永 和夫(KORENAGA KAZUO) (사)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낭독

이종윤 (사)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낭독

※ [공동성명] 전문은 본 보고서 II항에 기재

佐々木 幹夫 단장 : 방금 양 사무국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타카스기 노부야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 차기회의는 45회째가 되는 기념할 만한 회의입니다. 또 최근의 동향으로서 일본과 한국이 협력해 제3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를 제3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佐々木 幹夫 단장 :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기회의는 공동성명에도 나와 있듯이 한국측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만, 의견에 대해서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공동성명을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성을 해 주신다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그럼 두 분 단장님으로부터 폐회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측의 조석래 단장님께 부탁드립니다.

(2) 단장 폐회인사

조석래 단장 : 이번 회의가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매우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사키 회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에 의해서 양국의 단원이 300명이 넘는 많은 단원이 모일 수 있었고, 또한 오사카에서 처음으로 하는 모임에 오사카시와 오사카부에서도 따뜻한 환영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소 전 총리대신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께서 참석하시어 이 회의를 빛나게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작년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 양국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지고 가까워진 것을 이번 회의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더 발전해서 양국이 진실로 가깝고도 가까운 친구와 같은 관계가 형성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에 저희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해 준 사사키 회장님을 비롯한 일본측의 멤버들에게 감사말씀드리며, 이번 모임의 성공적인 종료에 대해 모든 분들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럼 내년에 여러분을 서울에서 뵙기로 하고 저의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일본측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佐々木 幹夫 단장 : 이틀간에 걸쳐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는 작년 회의가 9월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불과 7개월

만에 개최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계경제는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간의 흐름을 잘 느낄 수 없다고 해야 할까요? 지난 번 회의에서 이번 회의까지 기간이 별로 길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도 150명에 가까운 단원이 참석해 주셨고 그런 면에서 정말 내용이 알찬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틀동안의 발표와 패널토론을 통해서, 두 나라가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로 기탄없는 알찬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양국간 경제관계 강화라는 것을 생각할 때 두 나라 기업이 제휴해서 제3국에서 협업을 한다든지 제3국에서 에너지같은 자원을 공동개발한다든지 하는 전향적인 논의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두나라의 경제발전을 생각하시고, 또 새로운 전개를 위해 어떤 협력이 가능한 지에 대해 아주 진지하고 활발하게 의견교환을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유익하고 알찬 회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일경제협회 조석래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측 참석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연자, 코디네이터, 패널리스트 여러분, 훌륭한 발제와 디스커션을 전개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의견 혹은 건의내용을 토대로 저희들은 앞으로도 한일경제협회와 협력을 하면서 두 나라간의 경제관계를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 사업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됩니다만, 여러분을 재회할 수 있기를 확고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주신 두 분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양국 경제인 여러분, 내년에 한국에서 다시 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44회 한일경제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



VII. 양국단장 공동기자회견



사회 【是永 和夫(KORENAGA KAZUO) (사)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이하동일】 :
그럼 지금부터 약 30분정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폐회식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시다만, 혹시 자료를 아직 못받으신 분은 사무국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은 순차통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양국 경제협회 회장님 두 분으로부터 회의를 마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佐々木 幹夫 단장 : 먼저 어제와 오늘 이틀간의 회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44회째가 되지만, 처음으로 이곳 오사카에서 개최하게 되었고, 과거보다 더 많은 멤버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은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양국의 경제관계를 이야기할 때 양국간의 무역, 투자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견지에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EPA(FTA)의 조속한 협상재개와 체결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양국의 협업문제, 제3국 공동진출문제, 특히 에너지분야의 공동진출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교육문제 등에 있어서는 풀뿌리차원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회의는 아주 시의적절한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조석래 단장 : 저희들이 느낀 것은 방금 사사키 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한일간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지고 양국 경제인간의 협력이 더욱 더 돈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양국에서 아소 타로 전 내각총리대신, 한국측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께서 양국의 협력관계에 대한 기초장연을 해주셔서 아주 좋은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양국의 FTA에 대해서는, 보통레벨의 FTA가 아니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양국간의 시장통합이 우리가 구상하는 아시아시장의 통합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아시아가 EU와 같은 큰 시장을 이룩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EU 혹은 미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완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서도 아시아경제가 커지고 아시아시장이 통합됨으로써 세계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인들의 신념이라고 생각되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아주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을 받겠습니다. 소속사와 이름, 어떤 분에게 질문하실 건지 밝히신 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미우리TV : 조석래 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원전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계에서는 이런 여론동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조석래 단장 : 먼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이 큰 피해를 입은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원자력발전이 전부 중지되어 전기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역시 원자력이 위험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원자력발전의 역사를 보면, 벌써 50년이 넘는 경험을 갖고 있고 그 50년동안 완벽하지는 않지만 큰 문제없이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문제와 전기를 발전하는 코스트 문제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속에서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원자력

에 의존하는 전기공급이라는 것이 경제발전과 국민의 사회생활을 안정화시키는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정부는 앞으로도 원자력발전을 계속해 나가고 원자력발전의 증설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공급의 안전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공급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에너지의 공급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자력발전이 안정되고, 경제적인 면과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깊은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미우리TV : 일본에서는 도시바나 미쓰비시가 원자력발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의 경제계에서는 그런 일본의 기술에 대해 어떤 생각과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조석래 단장 : 도시바와 미쓰비시가 갖고 있는 원자력발전의 원천기술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은 한국에서 도입한 기술과 같은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각국에서 개량하고 더욱더 정확하게 함으로써 40여년동안 큰 사고 없이 원자력발전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은 사실 원자력발전 부문에 있어서는 세계 탑클래스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만, 이번 원전사고로 우리가 모르는 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분석해서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하였고, 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면 좀 더 안전한 원자력발전을 할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한일 양국이 서로 원전 기술을 더욱 더 향상시켜 사고 없는 원자력발전을 함으로써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신문 : 사사키 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일본기업들의 성과가 그다지 좋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만, 최근 들어 소니와 파나소닉이 OLED분야에서 협업을 하는 등 심기일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에 대한 평가와 지금까지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경제의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佐々木 幹夫 단장 : 일본경제에 앞서 세계경제에 대한 말을 먼저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세계경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은 서서히 경기가 회복되고 신흥국가들도 견실하게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경제는 완만히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의 채무위기가 다시 재현되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에 있어서는, 신흥국가에서도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거나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도 역시 여러모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고 이런 요소들에 대해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일본경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같은 여러 가지 외적요인과 지진으로 인한 내적요인,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부진으로 인한 해외수출의 감소 등으로 일본경제도 아직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일본의 GDP성장율이 플러스 4.1%라는 숫자를 잠깐 보았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못봤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일본경제는 아직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틀

림없습니다. 해외경제와의 관계, 그리고 엔화강세 문제, 고용문제 등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래를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본공업신문 : 이번 회의를 참관하면서 아주 우호적이고 알찬 회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회의를 마치고 아직 1년이 안되었습니다만, 그 짧은 기간동안에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고조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요인 또는 이유에 대해 느끼신 부분을 말씀해주십시오.

조석래 단장 : 우선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인들에게는 세계경제가 어려울 때에 서로 도와 가까운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경제가 어려운 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한일간의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의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일본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웃인 한국도 똑같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잘 되어야 한국도 잘 된다는 신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이런 따뜻한 마음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아시아경제의 성장발전을 보면, EU와 미국으로의 수출에 의한 수출주도형 경제로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EU나 미국의 경제가 과거만큼의 성장발전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으로 아시아를 돌아보면, 아시아의 신흥국들과 합쳐 일본과 한국이 잘 하면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되고 성장발전의 핵이 될 수 있

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국 경제인들은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내부를 들여다 보면, 역시 앞선 나라는 한국과 일본입니다.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합심해서 아시아의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 우리도 EU나 미국과 같은 성숙되고 발전된 거대 경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세계경제의 성장 발전에 리더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이 아마도 우리 경제인들의 바램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미래를 위한 두 나라의 합심이 이런 좋은 분위기를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佐々木 幹夫 단장 : 조석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작년 대지진 발생이후 바로 한국에서 각종 지원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가깝고도 먼 나라」가 몇 개월사이에 진정한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 아주 친근한 양국관계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는데, 지금이 바로 양국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막을 여는 시점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힘을 합쳐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세계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우리 멤버들의 열의가 이번 회의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한 가지 공동성명에 대해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어드바이스 받은 부분입니다. 한중일 투자협정이 서명되어 성립되었다는 식으로 공동성명에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비준을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성립은 되어 있지만, 이 공동성명에서는 서명을 하였다는 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 부분을 고치도록 어드바이스를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이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

< 부 록 1 >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
보도자료 · 신문기사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 '높은 수준의 한일 FTA 체결해야'

기사입력 2012-05-16 16:22 기사수정 2012-05-16 16:22



▲16일 일본 오사카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CEO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 최고경영자(CEO)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경제협회는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가 16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일 협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촉구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경제

4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한일FTA 체결 등 논의

입력: 2012-05-16 14:57 / 수정: 2012-05-16 16:46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가' 16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시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 깊이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일본의 한국투자자는 올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50%(9.2억 달러) 늘어났다.

첫날에는 '하나의 경제권 구축을 향한 한일협력'을, 둘째 날에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 심화와 한일협력', '한일 경제의 합리적 협력방향'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된다. 한일 양국의 경제인 311명 등이 참가한다.

한국 측에선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144명이 참석한다. 일본 측에선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아소 다로 전 일본총리 등 167명이 참가한다.

조석래 회장은 개회사에서 "아시아 국가들도 EU와 같은 경제통합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확보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한일 양국이 수준 높은 FTA를 먼저 체결하고, 이를 아시아 시장 통합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의 양보와 협조를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회장은 "향후 동북아시대를 맞아 중국이 세계 번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선 한중일 3개국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뒤 "한일 양국은 과거의 양적 확대를 넘어 이제 질적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기조 연설자인 아소 다로 전 일본총리는 "양국의 정치·경제·문화 교류면에서 제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개최에 앞서 한국 측 단장단 일행은 15일 일본 관방장관 등을 예방해 양국이 더 공고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높은 수준의 한일FTA 체결을 촉구했다.

올해 44회를 맞은 한일경제인회의는 민간 경제인 모임으로는 최대 규모의 회의다. 1969년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 후 양국을 오가며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한경닷컴 이환주 인턴기자 hwlee@hankyung.com

조석래 한일경제협회장 "높은 수준의 한일FTA로 아시아시장 통합기준 제시해야"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입력 2012.05.16 15:00:46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효성그룹 회장)은 "아시아도 유럽연합(EU)처럼 성공하려면 중국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해 이를 토대로 아시아시장 통합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16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시 오사카국제회의장에서 시작된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EU가 시장통합을 이뤄 세계경제 중심축이 됐듯이 아시아에서도 시장통합을 일궈내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어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이를 위해 "일본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한국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위한다는 대국적 관점에서 양보할 것은 서로 과감히 양보하면서 한일 FTA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양국에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조 회장은 "세계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그동안 구미시장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성장모델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으며 이제는 역내교역을 늘리고 내수를 키워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성장축 역할을 할 때가 됐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높은 수준의 한일FTA를 체결해야하는 이유를 밝혔다.

올해로 제44회째를 맞이한 한일경제인회의는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로 민간 경제인 모임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1969년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후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에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50%(142건 9.2억불)가량 늘어난 가운데 일본의 한국진출이 계속 이어질지,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한일 협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의에는 총 306명의 한일 경제인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효성 회장)을 단장으로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이윤우 삼성전자 상임고문,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하영봉 LG상사 사장 등 경제인 137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츠비시상사 상담역, 전회장)을 단장으로 아소 타로 전 일본총리, 아소 유타카 아소라파즈시멘트 사장, 오카 모토요키 스미토모상사 회장, 요시카와 모토오 도레이 고문, 오기타 히토시 아사히그룹홀딩스 회장, 와타나베 히로시 국제협력은행 부총재 등 169명이 참석했다.

회의개최에 앞서 한국측 단장단 일행은 15일 내각관방장관, 외무 부대신, 경산 부대신을 예방하고 시장경제체제를 같이하는 한일이 더욱 공고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세계 번영에 기여하는 한일 경제협력의 전개'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동아시아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협력적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향후 동북아시대를 맞이하고 중국이 세계 번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개국의 공동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 회장은 "양국 경제협력을 과거 양적 확대에서 이제는 질적으로 강화해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인적교류, 문화교류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한일 신흥협력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신흥협력 시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한일FTA 체결과 한국의 FTA네트워크의 활용 △대일 무역역조 개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서플라인 체인 확대 △신흥국 볼륨 존(Volume Zone) 전략의 한일협력 △환경·에너지 분야와 제3국 자원개발 공동 진출에 대한 협력 △동일본 대지진 부흥사업에 있어서의 한일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일본 측 기조연설자인 아소 타로 전 일본총리도 양국의 정치·경제·문화교류면에서 제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 44회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한일경제협회 제공) © News1

한일경제협회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이 날 개회사에서 "EU가 시장통합을 이루어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됐듯 아시아도 시장통합을 이루어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어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좋겠다"며 "아시아가 EU처럼 성공하려면 한국과 일본이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해 이를 토대로 아시아 시장통합의 기준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세계 번역에 기여하는 한일 경제협력의 전개'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동아시아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적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한일FTA체결과 한국의 FTA네트워크의 활용 ▲대일 무역역조 개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서플라인 체인 확대 ▲신흥국 볼륨 존 (Volume Zone)전략의 한일협력 ▲환경·에너지 분야와 제3국 자에 있어서의 한일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단장으로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한국측 경제인 137명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아소 타로 전 일본총리, 아소 유타카 아소라파즈시멘트 사장 등 일본측 경제인 169명 등 총 306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올해로 제44회를 맞이한 한일경제인회의는 최대 규모의 민간 경제인 모임으로 1969년 서울에서 열린 첫 회의 이후 양국을 오가며 해마다 개최된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조석래 회장 "높은 수준의 한일 FTA 체결해야"

입력시간 :2012.05.16 17:38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조석래 효성(004800)(54,700원 0 0.00%) 회장은 16일 "아시아도 유럽연합(EU)처럼 성공하려면 한국과 일본이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해 이를 토대로 아시아 시장 통합의 기준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올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한-중-일 FTA'에서 중국 측이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거나 자유화의 속도를 늦추는 등 '낮은 수준의 FTA'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한일 양국간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해 아시아권의 성공적인 경제 통합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6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막식에서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조 회장은 또 일본 정부가 농산물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문제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한국 정부도 일본과의 FTA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양측 간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한국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위한다'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양국이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고 FTA 체결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일경제인회의`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로 44회째를 맞았으며 양국을 오가며 번갈아 열린다.

조석래 효성 회장 "한-일 FTA 대승적 차원 접근해야"

일본 오사카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사 연설

최밍키 기자 (mkchoi@ebn.co.kr) | 2012-05-16 15:26:49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대국적 차원에서 한일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석래 회장은 16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막식에 참가해 개최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자국 이기주의를 앞세우기보다는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아도 유럽연합(EU)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수준 높은 FTA를 먼저 체결하고 이를 아시아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시장 통합의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한국과 일본이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통해 아시아권의 성공적인 경제통합을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올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한-중-일 FTA'에서 중국 측이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거나 자유화의 속도를 늦추는 등 '낮은 수준의 FTA'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 경제위기 탓에 아시아 국가들은 구미시장으로의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뤘던 모델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며 "이제는 역내 교역을 늘리고 내수를 키워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성장축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일본 정부가 농산물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문제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한국 정부도 일본과의 FTA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양 측간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한국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위한다'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양국이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고 FTA 체결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의 경제인들이 모여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민간 경제 모임으로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된다.

조석래 회장 "높은 수준의 한일FTA 체결해야"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입력 : 2012.05.16 16:11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16일 "아시아도 유럽 연합(EU)처럼 성공하려면 한일 양국이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먼저 체결하고, 이를 아시아 시장통합의 모델로 삼아 통합된 거대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 개막식에서 "올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한중일 FTA'에서 중국 측이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거나 자유화의 속도를 늦추는 등 '낮은 수준의 FTA'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한일 간에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해 아시아권의 성공적인 경제통합을 주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또 "일본 정부가 농산물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문제로 소극적을 대처하고, 한국 정부도 일본과의 FTA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일본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한국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 대국적인 관점에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면서 한일 FTA를 빨리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한일경제인회의'는 이날 일본 오사카에서 이들 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올해로 44회째를 맞은 한일경제인회의는 민간 경제인 모임으로는 최대 규모의 회의로 매년 양국을 오가며 번갈아 열린다.

韓 · 日 최고경영자들 경제협력 증진 머리 맞대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 日서 개막... CEO 311명 참석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입력 : 2012.05.16 13:26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CEO)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한일경제협회는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가 16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시 오사카국제회의장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효성 회장)을 단장으로 한 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이윤우 삼성전자 상임고문,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하영봉 LG상사 사장 등 경제인 144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츠비시상사 상담역/전 회장)을 단장으로 아소 타로 전 일본총리, 아소 유타카 아소라파즈시멘트 사장, 오카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회장, 요시카와 모토오 도레이 고문, 오기타 히토시 아사히그룹홀딩스 회장, 와타나베 히로시 국제협력은행 부총재 등 167명이 참여했다.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이날 개회인사에서 “역내교역을 늘리고 내수를 키워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성장축 역할을 할 때가 됐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시아 국가들도 EU와 같은 경제통합을 함으로써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확보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아시아 경제통합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아시아는 EU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해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아시아도 EU처럼 성공하려면 한일 양국이 수준 높은 FTA를 먼저 체결하고 이를 아시아 시장통합의 모델로 삼아 아시아 모든 나라가 함께 참가하는 통합된 거대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개최에 앞서 한국 측 단장단 일행은 지난 15일 내각관방장관, 외무부대신, 경산 부대신을 예방하고, 양국이 더욱 공고한 협력체제를 구축,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하나의 경제권 형성’의 구체화를 위해 높은 수준의 한일 FTA 체결을 촉구 하고 GCF(녹색기후기금)의 한국 사무국 유치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로 제44회째를 맞이한 한일경제인회의는 민간 경제인 모임으로는 최대 규모의 회의로 1969년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양국을 오가며 한 번도 빠짐 없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조석래 회장 "한-일FTA 높은 수준으로 체결해야"

2012-05-16 18:11



[뉴스핌=최영수 기자]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효성그룹 회장)은 16일 "아시아도 유럽연합(EU)처럼 성공하려면 한일 양국이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먼저 체결하고, 이를 아시아 시장통합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 회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 개막식에서 올해 협상을 게시하기로 한 한중일 FTA와 관련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거나 자유화의 속도를 늦추는 등 '낮은 수준의 FTA'를 추구할 것"이라면서 "한일 간에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해 아시아권의 성공적인 경제통합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정부는 자국 이기주의를 앞세우기보다는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농산물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문제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한국 정부도 일본과의 FTA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양국이 대승적인 관점에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면서 한일 FTA를 빨리 성사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 회장은 또 "세계 경제위기 탓에 아시아 국가들은 구미시장으로의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뤘던 모델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며 "이제는 역내 교역을 늘리고 내수를 키워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성장축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로 44회를 맞는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경제인들이 모여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매년 양국을 오가며 번갈아 개최된다.

조석래 회장 "한-일FTA 대승적 차원서 체결해야"

기사입력 2012-05-16 15:00



16~17일 오사카 한일경제인회의 개회사 연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조석래 효성회장은 16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자국 이기주의를 앞세우기보다는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6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아시아도 유럽연합(EU)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수준 높은 FTA를 먼저 체결하고 이를 아시아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시장 통합의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올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한-중-일 FTA'에서 중국측이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거나 자유화의 속도를 늦추는 등 '낮은 수준의 FTA'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통해 아시아권의 성공적인 경제 통합을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세계 경제위기 탓에 아시아 국가들은 구미시장으로의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뤘던 모델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며 "이제는 역내 교역을 늘리고 내수를 키워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성장축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일본 정부가 농산물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문제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한국 정부도 일본과의 FTA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양 측간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한국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위한다'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양국이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고 FTA 체결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의 경제인들이 모여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민간 경제 모임으로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된다.

조석래 한일경제인협회장 "아시아 미래 위해 日 정부 나서야"

우고운 기자 woon@chosun.com 입력 : 2012.05.16 15:39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CEO) 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가 16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시 오사카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올 1분기 일본의 한국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142건, 9억2000달러) 늘어난 가운데 앞으로도 일본의 한국진출이 계속 이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이날 개회인사에서 “유럽연합(EU)가 시장통합을 이뤄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되었는데 우리 아시아에서도 시장통합을 이뤄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어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좋겠다”면서 “아시아도 EU처럼 성공하려면, 중국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이를 토대로 아시아 시장통합의 기준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를 위해 “일본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한국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위한다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양보할 것은 서로 과감히 양보하면서 한·일 FTA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세계 번영에 기여하는 한일 경제협력의 전개’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동아시아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동북아시대를 맞이하고 중국이 세계 번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개국의 공동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 회장은 “양국 경제협력을 과거 양적 확대에서 이제는 질적으로 강화해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인적교류, 문화교류 등보다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한일 신(新)협력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신흥력 시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한·일FTA체결과 한국의 FTA네트워크의 활용, 대일 무역역조 개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공급망 확대, 신흥국 볼륨 존(Volume Zone)전략의 한일협력, 환경·에너지 분야와 제3국 자원개발 공동 진출에 대한 협력, 동일본 대지진 부흥사업에서의 한일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일본 측 기조연설자인 아소 타로 전 일본총리는 양국의 정치·경제·문화교류 면에서의 제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로 제44회째를 맞이한 한일경제인회의는 민간 경제인 모임으로는 최대 규모의 회의로, 1969년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양국을 오가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효성 회장)이 한국 측 단장으로,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이윤우 삼성전자 상임고문,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하영봉 LG상사 사장 등 경제인 137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츠비시상사 상담역, 전 회장)을 단장으로 아소 타로 전 일본총리, 아소 유타카 아소라파즈시멘트 사장, 오카모토요키 스미토모상사 회장, 요시카와 모토오 도레이 고문, 오기타 히토시 아사히그룹홀딩스 회장, 와타나베 히로시 국제협력은행 부총재 등 169명이 참석하는 등 양 측에서 306명의 경제인이 참가했다.

조석래 회장 "높은 수준의 한일 FTA 체결해야"

기사입력 2012-05-16 17:49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16일 "높은 수준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 개막식에서 한일경제 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아시아도 유럽연합(EU)처럼 성공하려면 한일 양국이 수준높은 FTA를 먼저 체결하고 이를 아시아 시장통합의 모델로 삼아 아시아 모든 나라가 함께 참가하는 통합된 거대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세계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그 동안 유럽이나 미국시장에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뤘던 성장모델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며 "이제는 역내교역을 늘리고 내수를 키워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성장축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올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한중일 FTA'에서 중국 측이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거나 자유화의 속도를 늦추는 등 낮은 수준의 FTA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소극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한다면 한국과 일본 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조 회장은 그러나 한일 양국 간 협상 역시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일본 정부가 농산물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한국 정부도 일본과의 FTA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한국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위한다'는 대국적(大局的)인 관점에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면서 한일 FTA를 빨리 성사시켜야 한다"고 양국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한일경제인회의'는 이날 일본 오사카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개막했다. 올해로 44회째를 맞은 한일경제인회의는 민간 경제인 모임으로는 최대 규모의 회의로 양국을 오가며 번갈아 열린다.

iiinyoung85@newsis.com

한일 CEO 한 자리에..."아시아 시장통합 이뤄내야 "

기사입력 2012-05-16 17:20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CEO) 들이 16일 한 자리에 모였다.

한일 CEO들이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이날 이들 간의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시 오사카국제회의장에서 시작됐다.

올해로 제44회째를 맞이한 한일경제인회의는 민간 경제인 모임으로는 최대 규모의 회의로, 1969년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양국을 오가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효성 회장)을 단장으로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이윤우 삼성전자 상임고문,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하영봉 LG상사 사장 등 경제인 137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츠비시상사 상임역/前회장)을 단장으로 아소 타로 전(前) 일본총리, 아소 유타카 아소라파즈시멘트 사장, 오카 모토요키 스미토모상사 회장, 요시카와 모토오 도레이 고문, 오기타 히토시 아사히그룹홀딩스 회장, 와타나베 히로시 국제협력은행 부총재 등 16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일간 협력을 통한 아시아 시장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올해 1분기 일본의 대한(對韓)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50%(142건, 9억2000만 달러) 정도 늘어난 가운데 일본 기업들의 한국 진출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조석래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유럽연합(EU)의 시장통합 구축에 대해 "우리 아시아에서도 시장통합을 이뤄내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어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좋겠다"며 "아시아도 EU처럼 성공하려면 중국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이를 토대로 아시아 시장통합의 기준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세계 번영에 기여하는 한일 경제협력의 전개'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동아시아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적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향후 동북아시대를 맞이하고 중국이 세계 번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개국의 공동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한일 신(新) 협력 시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한일FTA체결 ▲대일 무역역조 개선 ▲안정적인 공급망 확대 ▲신흥국 볼륨 존(Volume Zone) 전략의 한일협력 ▲환경·에너지 분야와 제3국 자원개발 공동 진출 ▲동일본 대지진 부흥사업 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일본 측 기조연설자로 나선 아소 타로(麻生 太郎) 前 일본총리는 동생인 아소 유타카(麻生 泰) 아소라파즈시멘트 사장과 함께 형제가 나란히 회의에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회의개최에 앞서 한국 측 단장단 일행은 15일 내각관방장관, 외무 부대신, 경산 부대신을 예방했다.

iiyoung85@newsis.com

조석래 회장 “높은 수준 한일 FTA 체결 필요”

발행일 2012.05.16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조석래 한일경제인회의 회장은 16일 “아시아도 EU처럼 성공하려면 한일 양국이 수준 높은 FTA를 먼저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44회 회의에서 “올해 협상을 시작하는 한중일 FTA에서 중국 측이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거나 자유화의 속도를 늦추는 등 낮은 수준의 FTA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먼저 FTA를 체결해 아시아권의 성공적인 경제통합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세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그동안 구미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 모델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고 이제는 역내무역을 늘리고 내수를 키워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성장축 역할을 할 때”라며 “일본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고 한국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 한일 FTA를 빨리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조석래 회장, 한일FTA 체결 시급..정부 결단 촉구

정경준 기자 jkj@wowtv.co.kr 입력 : 2012-05-16 15:41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효성 회장, 사진)은 조속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양국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조 회장은 오늘(16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EU(유럽연합)가 시장통합을 이뤄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됐듯 아시아에서도 시장통합을 이뤄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어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보다는 한일 양국이 높은 수준의 FTA를 먼저 체결하고, 이를 아시아 시장통합의 모델로 삼아 아시아 모든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된 거대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일본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한국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양보할 것은 서로 과감히 양보하면서 한일 FTA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모여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민간 경제인 모임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 날 회의에는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이윤우 삼성전자 상임고문,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하영봉 LG상사 사장 등 경제인 137명이 참석했습니다.

조석래 회장, "높은 수준의 한일FTA 체결해야… “

아시아 경제권 형성을 위해 수준높은 한일 FTA 체결의 필요성 강조

기사입력 2012.05.16 14:14:38

"하나의 통합된 아시아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일 양국이 수준 높은 FTA를 먼저 체결하고 이를 아시아 시장통합의 모델로 삼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석래 한일경제인협회 회장이 16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의 개막식에서 한.일 FTA 조기 체결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올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한.중.일 FTA`에서 중국 측이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거나 자유화의 속도를 늦추는 등 `낮은 수준의 FTA`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먼저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해 아시아권의 성공적인 경제통합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은 아시아 경제 통합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세계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그동안 구미시장으로의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성장 모델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으며 이제는 역내교역을 늘리고 내수를 키워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성장축 역할을 할 때가 됐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한.일 FTA 체결을 위한 양측의 `통큰 양보`도 제안했다. 조 회장은 "일본 정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문제로 FTA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정부도 일본과의 FTA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내며 "일본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고, 한국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위한다`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면서 한일 FTA를 빨리 성사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한일경제인회의`는 일본 오사카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올해로 44째를 맞은 한일경제인회의는 민간 경제인 모임으로는 최대 규모의 회의로 양국을 오가며 번갈아 열린다. 올해 행사에는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이윤우 삼성전자 상임고문 등의 재계인사가 참여했다.

[장재웅 기자]



한·일경제인회의 "한·일 FTA 촉구" 성명

2012-05-17 18:16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또 한번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일경제협회와 일본 측 일한경제협회는 어제와 오늘 이틀간 오사카국제회의장에서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었습니다.

양측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일 통합경제권 구축이 필요불가결하다"며 "최근 한중일 3국이 상호 무역투자협정에 서명한 만큼 다음 단계로 한·일 FTA를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국 기업인들은 또 일본대지진과 태국 홍수를 계기로 한일간 부품 공급망을 강화하고, 양국이 힘을 합쳐 제3국의 금속·에너지자원을 확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일 경제인회의는 1969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양국을 번갈아가며 열렸고, 2003년부터는 공동성명에 한·일 FTA 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한국경제

韓日 경제인, "FTA 조속 체결 촉구할 것"...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의 폐막

입력: 2012-05-17 17:31 / 수정: 2012-05-17 19:04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인들은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성장축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역내 통합경제권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양국 정부에 수준 높은 한·일 FTA의 조속한 실현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참석자들은 17일 일본 오사카시 국제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틀간의 회의 일정을 마쳤다.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에서 통합 경제권 형성을 위해 △한·일 제휴를 통한 공급망 재구축 △상담회 개최를 통한 한국산 부품·소재 조달 확대 △대한(對韓)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한단 파견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한 의료분야 협력 △연구·개발(R&D)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금속·에너지 등의 중요 자원 확보와 인프라 수출 추진 등 양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3국의 현장에 시찰 미션을 공동 파견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前 보건복지부 장관)는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한일 간 통 큰 기업 관계, 통 큰 경제 관계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철 리딩투자증권 회장(前 한국은행 부총재)은 "FTA 추진을 통한 교역 확대와 무역 결제시 자국 통화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양국의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자문위원은 "일본 중소기업의 한국진출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 우려가 양국 간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137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선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아소 다로 전 일본총리 등 169명이 참가했다.

올해 44회를 맞은 한일경제인회의는 민간 경제인 모임으로는 최대 규모 회의다. 1969년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 후 양국을 오가며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13년 열리는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소정 기자 sojung12@hankyung.com

한일 경제인회의 "한일 FTA 촉구" 10년째 성명

기사입력 2012-05-17 17:36 | 최종수정 2012-05-17 17:55



한일 경제인회의의 "한일 FTA 촉구" 성명 (도쿄=연합뉴스) 한일경제협회(대표 조석래)와 일본 측 일한경제협회(대표 사사키 미키오)는 16~17일 오사카국제회의장에서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었다. 사진은 조석래 대표가 16일 개막식에서 연설하는 모습. 2012.5.17

<<한일경제협회 제공>> <<국제뉴스부 기사 참조>>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또 한번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한일경제협회(대표 조석래)와 일본 측 일한경제협회(대표 사사키 미키오)는 16~17일 오사카국제회의장에서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열었다.

양측은 17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일 통합경제권 구축이 필요불가결하다"며 "최근 한일중 3국이 상호 무역투자협정에 서명한 만큼 다음 단계로 한일 FTA를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국 기업인들은 또 동일본대지진과 태국 홍수를 계기로 한일간 서플라이 체인 (부품 공급망)을 강화하고, 양국이 힘을 합쳐 제3국의 금속·에너지 자원을 확보 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 137명과 일본측 169명이 참석했다.

한일 경제인회의는 1969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양국을 번갈아가며 열렸고, 2003년부터는 공동성명에 한일 FTA 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chungwon@yna.co.kr

조석래 회장 "높은 수준의 한일 FTA 체결해야" 44회 한일경제인회의서 강조…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 시장 주도해야

최종수정시간 : 2012-05-17 06:37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16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막식에서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높은 수준의 한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16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아시아도 EU처럼 성공하려면 한일 양국이 수준 높은 FTA를 먼저 체결하고, 이를 아시아 시장통합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한중일 FTA에서 중국 측이 민감 품목을 제외하거나 자유화 속도를 늦추는 등 낮은 수준의 FTA를 추구할 것”이라면서 “때문에 한일 FTA가 높은 수준으로 이뤄져 아시아를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또 한일 정부가 아시아 전체 미래를 위해 FTA 협상에서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농산물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문제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한국 정부도 일본과의 FTA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 협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일본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한국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 대국적인 관점에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면서 한일 FTA를 빨리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경제인들이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올해는 일본 오사카에서 이들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44회째를 맞은 한일경제인회의는 민간 경제인 모임으로 최대 규모로 양국에서 번갈아 열린다.

김정유 기자(thec98@)

한일 경제인, 역내 통합경제권 구축에 공동 노력 합의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서 FTA 촉구 공동성명 채택..내년엔 서울서 개최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 입력 : 2012.05.17 16:20

한일 양국 경제인들이 역내통합경제권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정부에 수준 높은 한일 FTA(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실력을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양국의 경제인들은 17일 일본 오사카국제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틀간의 회의일정을 마쳤다.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등 한일 양국 경제인들은 양국 경제의 번영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성장축으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역내 통합경제권의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에 대해 수준 높은 한일FTA의 조속한 실현을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 경제인은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으로, 한일의 제후에 의한 서플라이 체인의 재구축 등 대응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상품건본시·상담회 개최를 통한 한국산 부품·소재 조달의 확대, 대한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한투자방한단의 파견, 저출산 고령화에 대처해 간호·요양보호·예방의료 등 의료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양국 경제인은 한일 기업이 제휴한 R&D 네트워크의 구축이 양국 모두에게 안정적인 신규 시장의 확보는 물론 코스트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경제인은 한일 양국이 제휴해 제3국 글로벌화를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제휴에 의한 금속·에너지 등의 중요자원의 확보와 양국의 높은 기술력을 배경으로 한 인프라 수출의 추진 등 양국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제3국의 현장에 시찰 미션을 파견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여수에서 개최 중인 여수세계박람회를 비롯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다음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를 2013년 한국에서 개최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조석래 단장 등 137명이 참석했고,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169명이 참석했다.



조석래 회장 "한-일FTA 대승적 차원에서 체결해야"

기사입력 2012-05-17 10:31

조석래 효성회장은 한국과 일본 정부는 자국 이기주의를 앞세우기보다는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회장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아시아도 유럽연합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수준높은 FTA를 먼저 체결하고 이를 아시아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시장 통합의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회장은 올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한-중-일 FTA'에서 중국측이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거나 자유화의 속도를 늦추는 등 '낮은 수준의 FTA'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통해 아시아권의 성공적인 경제통합을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조 회장은 세계 경제위기 탓에 아시아 국가들은 구미시장으로의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뤘던 모델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며 이제는 역내 교역을 늘리고 내수를 키워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성장축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韓日이 먼저 수준 높은 FTA 체결해야”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효성 회장·사진)은 16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도 유럽연합(EU)과 같이 경제 통합을 해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아시아도 EU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수준 높은 FTA를 먼저 체결하고 이를 아시아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시장 통합의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협상을 개시할 예정인 ‘한



·중·일 FTA'에서 중국 측이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거나 자유화의 속도를 늦추는 등 '낮은 수준의

FTA'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통해 아시아권의 성공적인 경제 통합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면서 FTA를 빨리 성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경제인들이 모여 경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민간 경제 모임으로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된다. 신은진 기자

매일경제

2012년 05월 17일 목요일
A16면 기업

“높은 수준의 한일FTA 필요”

조석래 효성 회장

“하나의 통합된 아시아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일 양국이 수준 높은 FTA를 먼저 체결하고 이를 아시아 시장통합의 모델로 삼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석래 한·일 경제인협회 회장이 16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한·일 경제인 회의 개막식에서 한·일 FTA 조기 체결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올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한·중·일 FTA’에서 중국 측이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거나 자유화의 속도를 늦추는 등 ‘낮은 수준의 FTA’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먼저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해 아시아권의 성공적인 경제통합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회장은 한·일 FTA 체결을 위한 양측의 ‘푼른 양보’를 제안



했다. 조 회장은 “일본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고, 한국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

울여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위한’ 대국적인 관점에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면서 한·일 FTA를 빨리 성사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한·일 경제인 회의’는 오사카에서 이를 일정으로 개막했다. 올해로 44회째를 맞은 한·일 경제인 회의에는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이윤우 삼성전자 상임고문 등 재계 인사가 참여했다.

장재웅 기자

조석래 “아시아 역내 교역 더 늘려야”

(효성 회장)

“한·일, 높은 수준 FTA 선도를”

조석래(77·사진) 효성그룹 회장은 16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막식에서 “아시아도 유럽연합(EU)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먼저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경제협회 회장 자격으로 개회사를 한 조 회장은 “올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한·중·일 FTA’에서 중국 측은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거나 개방 속도를 늦추는 식의 ‘낮은 수



준의 FTA’를 추구할 것”이라며 “그래서 한·일은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통해 아시아권의 성공적 경제 통합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세계 경제위기 탓

에 아시아 국가들은 구미시장으로의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뤘던 모델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며 “이제는 역내 교역을 늘리고 내수를 키워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성장축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문병주 기자**



오사카서 한·일경제인회의 민간경제인 모임으로 최대

올해로 44회째를 맞는 한·일경제인회의가 16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다. 한·일경제인회의는 민간 경제인 모임으로는 최대 규모로 1969년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양국

을 오가며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 측 대표단은 15일 총리 관저에서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과 환담하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양국 관심사를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윤우 삼성전자 상임고문,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조

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하영봉 LG상사 사장,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서형원 주일한국대사관 경제공사.

도쿄=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한·일 FTA로 아시아 경제통합 주도해야”

조석래 회장, 한일경제인회의 개회사

한일경제협회장을 맡고 있는 조석래(사진) 효성 회장은 16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회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수준 높은 FTA를 먼저 체결하고 이를

아시아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시장 통합의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올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한·중·일 FTA’에서 중국 측은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거나 자유화의 속도를 늦추는 등 낮은 수준의 FTA를 추구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통해 아시아



권의 성공적인 경제 통합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그러나 “일본 정부가 농산물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문제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한국 정부도 일본과의 FTA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양측 간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일본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한국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조석래회장 “한·일FTA 먼저 체결을”

한·일경제인회의서 개회사 “아시아 시장 통합 모델로 삼아야”

조석래(사진) 효성그룹 회장이 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아시아 시장 통합을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 회장은 16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FTA를 체결해야 한다.”면서 “아시아도 유럽연합(EU)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수준 높은 FTA를 먼저 체결하고, 이를 아시아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시장 통합의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올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한·중·일 FTA’에서 중국 측이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거나 자유화의 속도를 늦추는 등 ‘낮은 수준의 FT



A’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통해 아시아권의 성공적인 경제통합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경제위기 탓에 아시아 국가들은 구미시장으로의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뤘던 모델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면서 “역내 교역을 늘리고 내수를 키워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성장축 역할을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조 회장을 비롯해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아소 다로 전 총리, 오카 모토요키 스미토모상사 회장 등 모두 306명이 참석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한일경제인회의의 개막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6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있다. 효성그룹 제공

“대승적 차원에서 한일 FTA 체결을”

조석래 효성 회장

한일경제인회의 개회사



조석래(사진)
효성 회장이 “한
국과 일본은 자
국 이기주의를
앞세우기보다는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위한 대

승적 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16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개막
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일
본이 수준 높은 FTA를 먼저 체결
하고 이를 아시아 시장 통합의 모델
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
조했다.

조 회장은 올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한중일 FTA’에서 중국 측이 민
감한 품목을 제외하거나 자유화의 속
도를 늦추는 등 ‘낮은 수준의 FTA’
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한일 양국
은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통해 아
시아권의 성공적인 경제통합을 주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회장은 일본 정부가 농산물 시
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문제로 소극
적으로 대처하고 한국 정부도 일본과
의 FTA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양
측 간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
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
로 나서고 한국 정부도 이에 상응하
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위한” 대
국적인 관점에서 양국이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고 FTA 체결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경제
인이 모여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
의하는 민간 경제 모임으로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된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co.kr

“한·일 FTA 높은 수준으로”

조석래 한일경제협회장

한국과 일본 CEO(최고경영자)들
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
44회 한·일경제인회의’가 1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시 오사카
국제회의장에서 시작했다.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사진)
은 이날 개회인사에서 “아시아가 세
계경제의 성장축 역할을 할 때가 됐
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시아
국가들도 EU와 같은 경제통합을 함
으로써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
안정적인 성장을 확보하는 길을 찾아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낮은 수준의 FTA가
아시아 경제통합의 표준으로 자리잡
는다면 아시아는 EU와 같은 높은 수
준의 경제통합을 해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아시아도 EU처럼 성공하
려면 한·일 양국이 수준 높은 FTA를
먼저 체결하고 이를 아시아시장 통합



의 모델로 삼아 아
시아 모든 나라가
함께 참가하는 통합
된 거대시장을 만들
어나가야 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조석래
한일경제협회장(효성 회장)을 단장
으로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이윤우 삼성전자 상임고
문,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허영봉 LG상사 사장 등 경제
인 144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
경제협회장(미츠비시상사 전 회장)
을 단장으로 아소 다로 전 일본 총
리, 아소 유타카 아소라파즈시멘트
사장,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회장 등 167명이 참석했다.

서명훈 기자 mhsuh@

파인앤셀 뉴스

2012년 05월 17일 목요일
016면 산업



日오사카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

16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
장(왼쪽 세번째)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왼쪽 네번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
장(오른쪽 첫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준높은 한·일FTA 체결로 아시아 경제 통합 주도해야”

조석래회장 경제인회의 참석

■ 재계의 ‘일본통’ 조석래(사진) 효성 회장이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성장축 역할을 할 때가 됐다”며 “한·일 양국이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먼저 체결하고 이를 모델로 삼아 아시아 모든 나라가 참가하는 통합된 거대 시장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조 회장은 16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의 개막식에서 “세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미국 시장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뤘던 모델을 더이상 지속할 수 없고, 이제는 역내 교역을 늘리고 내수를 키워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조 회장은 한·일 양국



정부의 FTA에 대한 전향적 접근을 촉구했다.

조 회장은 “일본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

고 한국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위한다’는 대국적 관점에서 양보할 것은 과감히 하면서 한·일 FTA를 빨리 성사시켜달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또 “올해 협상을 개시하는 한·중·일 FTA에서는 중국 측이 자유화의 속도를 늦추는 등 낮은 수준의 FTA를 추구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해 아시아권의 성공적인 경제통합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한·일 FTA로 亞시장 시너지 창출해야”

‘일본통’ 조석래 효성 회장

한·일 경제인회의서 강조

조석래<사진> 효성그룹 회장은 일본 와세다대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2005년 와세다대에서 명예 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일본통’이다. 조 회장은 2005년부터 한·일경제협회장을 맡아, 한·일 경제인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이 같은 경력의 조 회장이 지지 부진한 한국과 일본의 FTA 체결을 위해 나섰다. ‘한·일 FTA’를 통해 두 나라가 아시아 시장 통합을 주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7일 효성에 따르면 조 회장은 16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개막식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자국 이기주의를 앞세우기 보다는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시아도 유럽연합(EU)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가 수준높은 FTA를 먼저 체결하고 이를 아시아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시장 통합의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세계 경제위기 탓에 아시아 국가들은 구미시장으로의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뤘던 모델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며 “이제는 역내 교역을 늘리고 내수를 키워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성장축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경제인들이 모여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민간경제 모임으로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된다. 올해 회의는 이날 폐막된다. **신상윤 기자/ken@**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한·일FTA, 亞 모델되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6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아시아도 유럽연합(EU)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수준높은 FTA를 먼저 체결하고 이를 아시아 모든 각국 시장 통합의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한-중-일 FTA’에서 중국 측이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거나 자유화의 속도를 늦추는 등 ‘낮은 수준의 FTA’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통해 아시아권의 성공적인 경제통합을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한국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 대국적인 관점에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면서 한일 FTA를 빨리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제44회째를 맞이한 한일경제인회의(한국대표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 일본대표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는 민간 경제인 모임으로는 최대 규모의 회의로, 1969년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양국을 오가며 한 번도 빠진 없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조석래 회장

이창한 기자 goldfish@

조석래 회장 “한·일 FTA 먼저 체결해야”

한일경제협 회장인 조석래 (사진) 효성그룹 회장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수준 높은 FTA(자유무역협정)를 먼저 체결하고 이를 아시아 시장통합의 모델로 삼아 아시아 모든 나라가 함께 참가하는 통합 거대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지난 16일 일본 오사카 시에서 열린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은 “일본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고, 한국정부도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 아시아 전체 미래를 위한다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양보할 것을 양보하면서 한일 FTA를 빨리 성사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조 회장을 단장으로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신희

동아제약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이운우 삼성전자 상임고문,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하영봉 LG상사 사장 등 경제인 144명이 참석했다.

일본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아소 타로 전 일본총리, 아소 유타카 아소라파즈시멘트 사장, 요시카와 모토오 도레이 고문 등 167명이 함께 했다.

범현주 기자 hibeom@naeil.com

시장 확대·보급 고도화 이끌 것...한·중 협상에도 측면지원 효과
독도 등 **비경제** 문제와 분리 접근을

이종문 < 한국외대 명예교수·한일경제협회 부회장 >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제44회 한·일경제인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양국 경제인은 지금 세계 경제의 통상환경에 비추어 볼 때 한국과 일본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나아가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이 되는 것이 양국 경제에 크게 이익이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경제인은 각각 자신의 정부에 소속히 FTA를 체결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런 인식과 결의에도 불구하고 한·일 FTA가 쉽게 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한·일 FTA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쉽사리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 비경제적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어 경제협력을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국이 일본에 요구하는 농업개방화 및 비관세 철폐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FTA협상이 시작되면 한국 소재 부품 업체들의 만만치 않은 저항이 예상되기도 한다.

비경제적 문제의 경우, 우리가 부모상을 당해도 먹고 사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듯이, 독도나 위안부 문제 같은 현안들은 그 자체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되, 긴급한 해결을 요하는 경제현안들에 대해서는 이와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일 FTA는 우리나라가 어떠한 시각을 갖고 다가가야 할까. 첫째, 일본은 한국과 같은 시장경제 국가이며 기업가들의 기업 활동이 예측 가능한 인접국이다. 경제 체제를 같이하는 인접국가와 **공동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은 것은 세계 경제에서 드문 경우다.

둘째, 한·일 FTA 체결을 한미 FTA나 한·EU FTA와 비교해보면, 한미 FTA나 한·EU FTA가 한국경제의 입장에서는 내수시장이 확대되는 성격이 강한 데 비해, 한·일 FTA는 EU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을 **공유**하고 공급구조를 같이하게 되는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한·일 간에는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내 분업이 형성돼 있는데, 한·일 FTA가 체결되면 산업 내 분업은 한층 더 확대될 것이다. 지금 한·일 경제는 산업 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제3국에서 **과당경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아 한·일 양국 상품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일 한·일 간에 산업 내 분업을 확대시킨다면 그만큼 제3국에서의 과당경쟁을 억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일 수출품의 교역조건 개선효과도 거두게 될 것이다.

셋째, 한국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80%를 넘을 정도로 국제 분업 구조 속에서 체화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2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즉, 일본경제는 강한 내부지향성, 내부조직성을 갖고 있어 전면적인 **개방화**에는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일본 경제의 높은 비관세 장벽은 이런 일본 경제의 특징과 깊이 관련돼 있다. 이 같은 일본 경제의 체질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미·일 간 FTA 성격을 가지면서 전면적인 개방의 결과로 이어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의 참가가 쉽게 결단을 내리기 힘들 것이다. 그러면서도 시장과 원자재의 해외 의존을 높여갈 수밖에 없는 일본 경제의 체질상 FTA 허브 역할을 해줄 한국 경제와의 긴밀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작년 3·11 대지진 이후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한국 역시 경제의 성숙·선진화를 위해서는 일본 경제에 내재된 기술·경역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일 양국이 가진 이런 여러 측면들을 통해 볼 때, 한·일 양국이 FTA를 체결해 경제권을 키운다면 양국이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이야말로 한·일이 FTA를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돼 있다고 판단되는 바, 양국 간에 적절한 합의점 도출과 대국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진행 중인 한·중 FTA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기 위해서라도 한·일 FTA 협상의 적극적인 추진은 필요할 것이다.

이종문 < 한국외대 명예교수·한일경제협회 부회장 >

Hyosung chairman wants Korea-Japan FTA

By Kim Tae-jong

Hyosung Chairman S.R. Cho said Wednesday that the successful ratification of a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Korea and Japan is a critical step to form a unified mega market in Asia, equivalent to the European Union.

"The EU has become the center of the global economy after successfully unifying their market," Cho said during an opening speech for the 44th Korea Japan Business Conference in Osaka, Japan. "I hope Asia will unify its market and form an economic zone to maximize mutual growth."

But he emphasized that Korea and Japan should first ratify an FTA, rather than one with China and it should be at a high level so that it can serve as a standard for the unified Asian market.

His remark came amid anticipation for an FTA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as the leaders of the three countries met and agreed at a summit in Beijing on Sunday to launch negotiations for a three-way trade pact this year.

Cho, who serves as chairman of the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who hosted the conference, also suggested that Seoul and Tokyo should take a more active stance on the issue and narrow their differences



Hyosung Group Chairman S.R. Cho

with a grander vision for the future of Asia.

The suggestion comes a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taken a reluctant stance toward a bilateral deal, largely due to issues of opening its agricultural market and the non-tariff barrier. Korea also thinks the FTA would bring little benefit to it.

Over 300 businessmen from both countries are attending the two-day conference, which kicked off Wednesday. Some of the distinguished guests from Korea include Han Duck-soo, chief of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ang Shin-ho, chairman of Dong-A Pharmaceutical and Park Sam-koo, chairman of Kumho Asiana.

e3dward@koreatimes.co.kr

Hyosung chief calls for Korea-Japan FTA

By Kim Yon-se

Hyosung Group chairman Cho Suck-rai stressed that Korea and Japan should seek a comprehensive and high-level of b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His remarks came during his keynote speech as the chief of the Korean delegation during the 44th annual gathering of Korea-Japan business leaders in Osaka, which kicked off Wednesday.

"Like the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it would be better for us — Asian countries — to push for market integration," Cho told participants.

"For the success of the Asian market, benchmarking the EU, it is necessary for Korea and Japan to aim at high-level market liberalization in their FTA talks," he said.

Last Sunday, the leaders of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greed to start official negotiations on a trilateral free trade pact within this year during



Korean businessmen pose with Japan's Chief Cabinet Secretary Osamu Fujimura (sixth from left) before talks in Tokyo on Tuesday. From left are Shinhan Financial chairman Han Dong-woo, Samsung Electronics adviser Lee Yoon-woo, Dongkuk Steel chairman Chang Sae-joo, KITA chairman Han Duck-soo, Hyosung chairman Cho Suck-rai, Fujimura, Mitsubishi Corp. chairman Mikio Sasaki and Kumho Asiana chairman Park Sam-koo.

HyoSung

their annual meeting in Beijing, stepping up efforts to deepen economic cooperation.

The envisioned pact would create one of the world's largest

economic blocs, comparable to the EU and the NAFTA.

The three countries' combined population amounts to some 1.5 billion, less than a fifth of the

world's total. Their gross domestic product amounts to \$12 trillion, some 20 percent of the world's total.

(kys@heraldm.com)

Hyosung chief calls for Korea-Japan FTA

By Lee Jung-yoon

Hyosung Group Chairman Cho Suck-rai called for a robust free trade pact between Korea and Japan to set the trend in Asia of forming competitive trade blocs.

Speaking at an annual meeting of business leaders from Korea and Japan in Osaka in Japan yesterday, Cho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two nations to encourage other such pacts in the region.

"In order for Asia to succeed ... Korea and Japan should first sign an intensive free trade agreement and have it serve as the template for market consolidation in Asia," Cho said. "Through this, we must create a massive, united market with participation by all Asian nations."

In a statement, Hyosung Group explained that Cho advocates Korea and Japan agreeing on a "strong" free trade pact before FTA talk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proceed because Chi-



Cho Suck-rai

na is likely to "advocate a low-level free trade pact."

"Since the global economic crisis, there has been a realization that Asian countries cannot maintain a growth model dependent

on exporting to U.S. and European markets," Cho said. "The time has come for Asia to play a main role in international economic growth by increasing regional trade and domestic consumption."

On Monday, Korea, China and Japan called for the three countries to kick off negotiations this year on a three-way free trade agreement.

The pact, if realized, would create one of the world's largest markets as Korea, China and Japan account for 20 percent of global gross domestic product and 17.5 percent of global trade.

joyce@joongang.co.kr

日本経済新聞

2012年 05月 17日 木曜日
近畿経済B 35面

2012年 05月 18日 金曜日
近畿経済B 35面



韓恵洙・韓国貿易協会会長 「企業連携にFTA不可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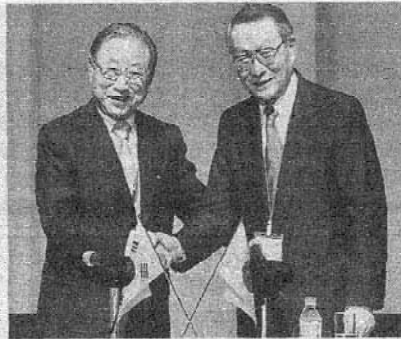
交渉が中断している日本と韓国との関係にある。韓会長は中韓の自由貿易協定（FTA）間隔が育っている新興国で（A）について「今後、日本も韓日の協力によるボリを」とっており、対日FTAと韓国の企業は競争から協 ユームゾーン戦略が必要 交渉の推進役とみられてい

第44回日韓経済人会議出い。そのためにも日韓FTA 調が重要との認識を示し 席のため来日した韓国貿易 Aは不可欠だ」と述べた。 韓氏は韓国の副首相兼財 協会の韓恵洙（ハン・ドク） 日韓の企業はエレクトロ ニクス産業の分野で中国、 政経相、首相、駐米大使 会長は16日、日本経済 新聞とのインタビューで、 インドなど新興市場で競 などを経任、今年2月に同

日韓経済人会議、大阪で開幕

「協業活性化」 意見相次ぐ
日本と韓国の経済人らが意 見を交換する第44回日韓経済 人会議が16日、大阪市内で開 幕した。同会議を大阪で開く のは初めて。参加者からは日 韓協業の活性化、両国間の自 由貿易協定（FTA）実現が 必要という意見が相次いだ。 基調講演した韓恵洙・韓国 貿易協会会長は、両国の人的 交流が年間500万人を突破 力の重要性を強調した。

共同声明を採択し握手する日本側の佐々木会長と韓国側の趙議長
(17日、大阪市北区の大阪国際会議場)



「両国の協力 今こそ」

日韓経済人会議が閉幕

大阪市で開かれていた、2国間の動きだけで 第44回日韓経済人会議は 17日、共同声明を採択し て閉幕した。団長を務め た佐々木幹夫・日韓経済 協会会長と趙錫来（チヨ ・ソクレ）韓日経済協会 会長は会見し「世界経済 が困難な状況に陥ってい る今こそ両国の協力は不 可欠」と口をそろえた。 趙氏も「欧米がかつて 佐々木氏は「日韓の企 業活動がグローバルにな

界経済をリードしていく ために、日韓主導で巨大 な統合市場をつくる必要 がある」と強調した。

ら多くを学び、事故のな い原発をつくらなければ ならない」と続けた。

日韓FTA早期締結を

経済人会議、大阪で開幕

日韓の経済人による合同会議「日韓経済人会議」が16日、大阪国際会議場（大阪市北区）で開幕した。日本側団長の佐々木幹夫日韓経済協会会長（三菱商事相談役）は「一つの経済圏を形成するために何が必要か、互いの懸念を解消し、互いの利益を最大化する」と述べ、早期締結を求めた。

同会議は毎年、日韓交互で開催しており、今回が44回目。17日に共同声明を採択して両国政府に提言する。声明には例年、日韓FTA、経済連携協定（EPA）の早期締結を盛り込んでいる。2011年に野田佳彦首相が環太平洋連携協定（TPP）交渉入りを表明したことを受け、米韓とFTA協定を結んでいく韓国政府は日韓FTAに前向きに転じた。「前回は休む」と述べた。

2012年4～6月期の「船舶・電力を除く民需」は産業機械や工作機械が伸び、前期比2・5%増の2兆3177億円と2期連続の増加が見込まれる。ただ受注総額は官公需や外需の落ち込み

ない。域内貿易の拡大が重要」とした上で、「日本政府は日韓の自由貿易協定（FTA）の実現に積極的な行動を起こし、韓国政府がそれに相応する努力を傾けるべきだ」と早期締結を求めた。

2012年4～6月期

の「船舶・電力を除く民需」は産業機械や工作機械が伸び、前期比2・5%増の2兆3177億円と2期連続の増加が見込まれる。ただ受注総額は官公需や外需の落ち込み



④代表者の負債額が事由
（韓国アビタバンク、東京商工リサーチ調べ）

16日

アールインバーサテック
①リサイクル機器開発・販売
②東京都区下代田区③1億1000万円④韓国中央銀行⑤1000万円⑥韓国中央銀行⑦1000万円⑧韓国中央銀行⑨1000万円⑩韓国中央銀行⑪1000万円⑫韓国中央銀行⑬1000万円⑭韓国中央銀行⑮1000万円⑯韓国中央銀行⑰1000万円⑱韓国中央銀行⑲1000万円⑳韓国中央銀行㉑1000万円㉒韓国中央銀行㉓1000万円㉔韓国中央銀行㉕1000万円㉖韓国中央銀行㉗1000万円㉘韓国中央銀行㉙1000万円㉚韓国中央銀行㉛1000万円㉜韓国中央銀行㉝1000万円㉞韓国中央銀行㉟1000万円㊱韓国中央銀行㊲1000万円㊳韓国中央銀行㊴1000万円㊵韓国中央銀行㊶1000万円㊷韓国中央銀行㊸1000万円㊹韓国中央銀行㊺1000万円

16日は麻生太郎衆議院議員による基調講演などを行った。17日は「世界経済の不安定の深化と日韓協力」「日韓経済の合理的協力の方向性」を議論する。